한국형 문화 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2017. 6.

(사)글로벌발전연구원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태주
-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원장

공동연구원

곽재성
-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 (KODAC) 대표컨설턴트

김용빈
- 개발마케팅연구소 소장 /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 수석 컨설턴트

오연주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연구평가팀 팀장

연구보조원

정연내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연구평가팀 전문연구원

박준영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연구평가팀 전문연구원

정솔
-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지속발전연구평가팀 연구원

김은영
-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 책임 컨설턴트

장아영
-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 컨설턴트

양윤영
-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 프로젝트 애널리스트

본 연구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ReDI)과 국제개발컨설팅 유한책임회사(KODAC)에 위탁하여 연구책임자인 이태주 외 3인의 공동연구원(곽재성, 김용빈, 오연주)과 연구보조원 6인(정연내, 박준영, 정솔, 김은영, 장아영, 양윤영)의 참여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 배경 ····· 1
2. 연구 목적 ····· 2
제 2 절 연구 범위 ····· 4
1. 선행 연구의 내용 및 한계 ····· 4
가. 선행 연구의 내용 ····· 4
나. 선행 연구의 한계점 분석 ····· 5
2. 본 연구의 범위 ····· 7
가.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7
나.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 ····· 8
다.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도출 ····· 8
제 3 절 연구 방법 ····· 9
1. 문헌조사 ····· 9
2. 설문조사 ····· 9
3. 현지조사 ····· 10

제 2 장 한국형 문화 ODA 현황 및 개념 고찰
제 1 절 국내외 문화 ODA 현황 분석 ····· 12
1. 국제사회 문화 ODA 현황 ····· 12
가. 국제사회의 문화 ODA 주요 논의 현황 ····· 12
나. 주요 공여국의 문화 ODA ····· 16
2. 한국의 문화 ODA 현황 ····· 23
가. 한국의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 23
나. 한국 문화 ODA 지원현황 ····· 27
3. 국내외 문화 ODA 도전과제 ····· 35
가. 국제사회 문화 ODA 한계 ····· 35
나. 한국의 문화 ODA 한계 ····· 36
제 2 절 문화 ODA 개념 및 속성 ····· 38

1. 문화 ODA 개념 정립의 필요성 ····· 38
2. 문화 ODA의 의의 ····· 39
가. 문화 ODA의 개념 ····· 40
나. 문화 ODA의 필요성 ····· 42
3. 문화 ODA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 ····· 46
가. 광의의 개념: 범분야 접근방법으로서 '문화적' ODA ····· 46
나. 협의의 개념: 문화 분야 ODA 사업 ····· 48
4. 문화 ODA에 대한 인식 ····· 48
가. 문화 ODA 인지 정도 ····· 50
나. 문화 ODA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 51
다.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 ····· 59
라.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 62

제 3 장 한국의 문화분야 비교우위 분석 및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제 1 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및 분석 프레임워크 ····· 65
1. 분석영역 ····· 65
가. 분석기준 ····· 65
나. 점수부여 기준 ····· 77
제 2 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결과 ····· 80
1. 영역별 분석점수화 결과 ····· 80
2. 한국형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 82
가.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선정 기준 ····· 82
나.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 83
다.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 83

제 4 장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제 1 절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 92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중장기 추진전략 ····· 96
1. 문화 ODA 사업의 비전 및 기본목표 ····· 96
2. 문화 ODA 사업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 97
가. 전략목표 1. 문화 ODA 기반 확대 ····· 97
나. 전략목표 2.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 98
다. 전략목표 3.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 99

제 5 장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1. 선정목적 ····· 100
2. 선정방법 ····· 100
3. 선정기준 ····· 102
4. 선정결과 ····· 106
가. 아시아 ····· 107
나. 아프리카 ····· 115
다.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 119

제 6 장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제 1 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 124
1. 개요 ····· 124
가. 시범사업 발굴전략 ····· 124
나. 시범사업 발굴절차 및 방법 ····· 125
다. 시범사업 대상국가 선정 ····· 127
2.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 127
가. 미얀마 일반현황 ····· 127
나. 미얀마 문화분야 현황 ····· 135
다. 미얀마 문화 ODA 수요조사 ····· 140
라.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결과 ····· 146
3.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 161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 161
나. 인도네시아 문화분야 현황 ····· 168
다. 인도네시아 문화 ODA 문제 및 목적 분석 ····· 178
라.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결과 ····· 179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 190
1. 문화분야 협력전략 수립방안 ····· 190
2. 프로젝트 발굴 전략 및 방법 ····· 194

제 7 장 한국의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 1 절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 197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수행체계 ····· 200
제 3 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202
제 4 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성과제고 방안 ····· 204

[부록] ····· 206
1. OECD 국가의 관광 분야 사업 총액 변화
2. 한국의 문화분야 분석
3. 중점협력국가 기초 수요조사(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4. 미얀마 시범사업 수요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5. 인도네시아 시범사업 수요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6. 설문조사 질문지

참고문헌 ····· 304

표 목 차

[표 2-1] OECD 국가의 문화여가 분야 사업 총액 변화 ····· 17
[표 2-2] 2011-2015 문화분야 ODA 최대공여국 6개국의 문화분야 ODA 비중 ·· 18
[표 2-3] 문화 영역 ODA 누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방안 ····· 24
[표 2-4] 2013-2015년 문화 ODA 사업주체별 분류 및 총비용 ····· 29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의 2013-2017 연도별 예산 ··· 31
[표 2-6] KOICA 문화 ODA 사업유형별 분류 ····· 33
[표 2-7] 한국형 ODA 모델 ····· 39
[표 2-8] 문화 ODA 사업의 두 가지 측면 ····· 41
[표 2-9] 설문조사 개요 ····· 49
[표 2-10] 조사 항목 ····· 50
[표 2-11] 한국 문화 ODA 수행 시 중요한 원칙 ····· 59

[표 3-1] 한국적 경험 분석의 예시 ····· 68
[표 3-2]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분석 예시 ····· 71
[표 3-3] 기존 ODA사업 예시 ····· 73
[표 3-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문화 분야 이행목표 ····· 74
[표 3-5] 수원국 수요 분석 예시 ····· 75
[표 3-6]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점수기준표 ····· 77
[표 3-7]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결과 ····· 80
[표 3-8] 공급 및 수요측면 합계 기준 상위 5개 영역 ····· 81
[표 3-9] 지원 형태별 공급 측면 비교우위 ····· 81
[표 3-10] 수요 측면 비교우위(수원국 수요) ····· 82
[표 3-11] 수요 측면 비교우위(SDGs 부합성 및 수원국 수요) ····· 82
[표 3-12]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 83
[표 3-1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 84
[표 3-1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① · 84
[표 3-1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② · 85
[표 3-16]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적역량 개발 · 85
[표 3-17]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공연/축제 인적역량 개발 ····· 86

[표 3-18]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① ···· 86
[표 3-19]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② ···· 87
[표 3-20]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③ ···· 87
[표 3-21]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정책 수립 ·· 88
[표 3-22]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인프라 구축 · 89
[표 3-2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정책 수립 ····· 89
[표 3-2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프라 구축 ····· 90
[표 3-2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적역량 개발 ····· 90

[표 4-1] SWOT 분석에 의한 전략과제 도출 ····· 95
[표 4-2] 문화 ODA 기본목표 체계 ····· 96
[표 4-3]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문화 ODA 기반 확대 ····· 97
[표 4-4]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 98
[표 4-5]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개발협력 조화의 일치 ····· 99

[표 5-1]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Long List ····· 102
[표 5-2]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 103
[표 5-3]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1 ····· 103
[표 5-4]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2 ····· 104
[표 5-5]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시아 ····· 107
[표 5-6]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프리카 ·· 115
[표 5-7]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 119

[표 6-1]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형성절차 세부사항 ····· 126
[표 6-2] 미얀마 신정부 총선 공약 및 경제정책방향 ····· 130
[표 6-3]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2010-2014) ····· 132
[표 6-4] 2010-2014 주요 공여기관별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 132
[표 6-5] 한국의 對미얀마 지원 추이(2010-2016) ····· 133
[표 6-6] 한국의 對미얀마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6) ·····133
[표 6-7] 미얀마 주요 축제 (전국 단위) ····· 136
[표 6-8] 면담기관별 주요 면담내용 ····· 142
[표 6-9]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개요 ····· 146
[표 6-10]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세부내용 ····· 147
[표 6-11]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내용 및 예산(안) · 148
[표 6-12] 양국 간 분담사항 ····· 152
[표 6-13] 사업수행 일정 ····· 153
[표 6-14] 성과지표(KPI) ····· 154
[표 6-15] 전문가 파견 상세내역(안) ····· 156
[표 6-16] 초청연수 파견 상세내역(안) ····· 156
[표 6-17] 미얀마 문화부 및 고고학 부서의 책임과 역할 ····· 159
[표 6-18] 인도네시아 경제회랑 별 중점산업 분야 ····· 164
[표 6-19]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의 8대 중점산업 및 세부업종 · 165
[표 6-20]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현황 2010～2014 ····· 166
[표 6-2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인도네시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 167
[표 6-22]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 168
[표 6-23] 인도네시아 유형문화유산 ····· 168
[표 6-24]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 169
[표 6-25] 교육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설화관련 정책 ····· 174
[표 6-26] 인도네시아 문화정책 담당부처 ····· 175
[표 6-27] 사업구성 요소 및 활동 ····· 179
[표 6-28] 사업 개요 ····· 180
[표 6-29] 사업 세부내용 ····· 181
[표 6-30] 전문가파견 세부내용 ····· 182
[표 6-31] 초청연수 세부내용 ····· 182
[표 6-32]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내용 ····· 183
[표 6-33] 양국 간 분담사항 ····· 185
[표 6-34] 사업 수행일정 ····· 186
[표 6-35]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지표 ····· 186
[표 6-36] 문화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 191
[표 6-37] 국별분석프레임 - 국별진단 ····· 192

[표 6-38] 국별분석프레임 - 개발협력현황 ····· 193
[표 6-39] 국별분석프레임 - 분야협력 디자인 ····· 194
[표 6-40] 사업발굴 리뷰 보드 (Review Board) ····· 195

[표 8-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베트남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 257
[표 8-2] 對베트남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 258
[표 8-3] 한국의 對베트남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6) ····· 260
[표 8-4] 베트남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발전 전략 ····· 264
[표 8-5] 베트남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전략 ····· 264
[표 8-6]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전략 ····· 265
[표 8-7]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전략 ····· 266
[표 8-8] 국제적 입지 전략 ····· 267
[표 8-9] 베트남 부처별 업무 ····· 269
[표 8-10]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캄보디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 273
[표 8-11] 對캄보디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 274
[표 8-12] 캄보디아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주요 목표 및 내용 · 275
[표 8-13] 캄보디아 2015-2025 산업개발정책(IDP) 주요 전략 및 내용 ·· 276
[표 8-14] 한국의 對캄보디아 지원 추이 2011~2015 ····· 277
[표 8-15] 한국의 對캄보디아 분야별 지원 규모(2011-2015) ····· 277
[표 8-16]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정책 ····· 280
[표 8-17] 문화잠재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 ····· 281
[표 8-18]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 281
[표 8-19] 문화파트너 지원 정책 ····· 283
[표 8-20] 문화 분야 시장창출 정책 ····· 283
[표 8-21] 교육 및 훈련 정책 ····· 284
[표 8-22] 기관 및 파트너와의 협력 정책 ····· 285
[표 8-23]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필리핀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 291
[표 8-24] 對필리핀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 292
[표 8-25] 필리핀 장기 국가개발전략 ····· 293
[표 8-26] 필리핀 중기 국가개발전략 ····· 294
[표 8-27] 필리핀 단기 국가개발전략 ····· 294
[표 8-28] 한국의 對필리핀 지원 추이(2010-2014) ····· 295
[표 8-29] 한국의 對필리핀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4) ····· 296
[표 8-30] 필리핀 관련 기관 성과지표 관리사항 ····· 299
[표 8-31] 필리핀 국가개발전략 내 문화분야 전략 내용 ····· 300

그 림 목 차

[그림 1-1] 설문조사 항목 ····· 10

[그림 2-1] 문화 ODA 인식 여부 설문 결과 ····· 51
[그림 2-2]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의 문화 ODA 지원 중요성 설문 결과 51
[그림 2-3] 한국의 문화 ODA 강점 설문조사 결과 ····· 53
[그림 2-4] 한국의 문화 ODA 약점 설문조사 결과 ····· 53
[그림 2-5] 한국의 문화 ODA 기회요소 설문조사 결과 ····· 57
[그림 2-6] 한국의 문화 ODA 위기요소 설문조사 결과 ····· 58
[그림 2-7] 한국 문화 ODA 대표 사업아이템 설문조사 결과 ····· 61
[그림 2-8] 정책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 62
[그림 2-9] 수행체계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63
[그림 2-10] 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 64

[그림 3-1] UNESCO의 문화분류 체계 ····· 66

[그림 4-1]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한국형 문화 ODA 전략적 방향 ····· 93
[그림 4-2] 한국형 문화 ODA SWOT 분석 ····· 93

[그림 6-1] 국별 접근방법과 유형별 접근방법 ····· 125
[그림 6-2] 한국의 對미얀마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 134
[그림 6-3] 미얀마 문화부 조직도 ····· 139
[그림 6-4] 사업발굴 절차 ····· 142
[그림 6-5] 사업수행체계 ····· 151
[그림 6-6] 성과모형 ····· 154
[그림 6-7] 사업대상지역 ····· 157

[그림 6-8]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조직도 ····· 176
[그림 6-9] 사업수행체계 ····· 184
[그림 6-10] 수행주체별 분담업무 ·····184

[그림 8-1]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자문의견 ····· 245
[그림 8-2] 한국의 對베트남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 261
[그림 8-3] 베트남 문화부 조직도 ····· 270
[그림 8-4] 한국의 對캄보디아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 279
[그림 8-5]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조직도 ····· 287
[그림 8-6] 한국의 對필리핀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 297

상 자 목 차

[Box 1] 항저우 선언 ····· 14
[Box 2] 문화 관련 SDGs ····· 15

약 어

약어	공식 명칭
ADB	Asian Development Bank
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French Development Agency)
AECID	Agencia Espanola de Cooperacion para el Desarrollo(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MA	Art-Major Asian Scholarship
BAPPENAS	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CARICOM	Caribbean Community
CDC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RDB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FU	Convention France-UNESCO
CIB	Cambodia Investment Board
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OF	Department of Finance
GAD	Gender and Developm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German Federal Enterpris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GNI	Gross National Incom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CPI	Korea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Southern Common Market)

MOCFA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MP3EI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Master Plan for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NCCA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SDP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DAC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PBA	Program Based Approach
PCP	Project Concept Paper
PD	Project Document
P>D	Programa Patrimonio para el Desarrollo
PDM	Project Design Matrix
PM	Project Manager
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RMB	Results Based Management
RPJPN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Nat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ning)
SCAC	Service of Cooperation and Cultural Actio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EDP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I	Swedish Institute
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WIPO	United Nation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VICAS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연구요약

□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에 문화분야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도국 발전에서 문화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문화 ODA의 인지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팀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61%)이 가장 큰 약점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위협요소로는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한 낮은 인식'(55%)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음.

□ 아국의 문화분야 역량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문화 ODA 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종합적 비교우위 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안)을 제시함.

○ **(공급자 측면)**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강점이 있는 분야가 시각예술/공예, 시청각/쌍방향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정책 수립과 도서/언론 분야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광 및 스포츠 분야 인적 역량 강화 순으로 파악됨.

○ **(수요자 측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면서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영역은 문화/자연유산 분야 정책수립, 문화/자연유산 및 관광 분야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연/축제 분야 인적 역량 강화 등으로 확인됨.

○ **(종합적 비교우위 분야)** 8개 문화영역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부분의 총점 기준으로 상위 5개 영역은 △문화/자연유산, △관광, △도서/언론, △공연/축제, △스포츠 분야임.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연계형(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개발)의 문화 ODA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문화/자연유산 부문과 △관광 부문 관련 사업이 비교우위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문화/자연유산 영역)**

- 정책수립: 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인프라구축: 문화유산 보존(또는 보수) 지원 사업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인적역량: 문화유산 기술자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보수 역량강화 사업(학위과정,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 또한, 단기적 비연계성 개별사업의 추진과 문화교류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국의 ODA 정책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문화 ODA의 비전과 정책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해 문화 ODA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과 전략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 **(문화 ODA의 개념)**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를 증진하며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ODA 사업이며, 수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의 문화 ODA)** '한국의 문화ODA'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의 토대로서 한국의 문화 ODA는 "한국 ODA 및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로 정의함.

○ **(비전)** 한국의 문화 ODA 중장기적 비전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제시

○ **(전략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3가지로 수립하여 각 목표 아래 세부 전략과제를 구성

- 목표 1: 문화 ODA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범정부적 인식 제고와 예산 확대, 수원국의 우수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업을 다각화하는 **'문화 ODA 기반 확대'**

- 목표 2: 적정한 문화 ODA 중점지원 분야 및 사업의 발굴을 위한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 목표 3: 정부 ODA 체계 안에서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문화 ODA 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 전략목표 3에 명시된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4단계 선정방법을 참고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3단계(Long, medium, short list)로 나누어 진행하되 한국의 문화 ODA 모델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소들을 추가로 설정

○ 1, 2단계 (Long-list 및 medium-list): "한국의" 문화 ODA이므로 한국과의 관계성 및 교류화 활성화, 지원규모 등을 기준으로 top-down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맞는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한국의 수요 반영

○ 3단계 (Short-list): 선정된 국가들 내에서 수원국의 현황, 문화자산, 국가개발전략 내에서의 문화정책 수행여부 등을 bottom-up 접근으로 본 연구팀이 정성적으로 평가

○ 최종적으로 한국의 문화 ODA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

- 아시아 5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 아프리카 2개국: 에티오피아, 우간다
-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피지

□ 한국의 비교우위 및 용이성과 수원국 현황, 수요분석을 통해 선정한 최종 10개국 가운데 본 용역의 시범사업 발굴 대상국가로는 발주처(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내용, 연구용역의 기간, 개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2개국을 시범사업 대상국가로 최종 선정함.

○ **(미얀마)** 미얀마는 유・무형 문화유산 등 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기술,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미얀마 문화부는 양곤 소재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수요를 표출

- (사업개요)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은 2018-2019년 총 2년간 2,300백만원 규모로 진행 될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함.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무형유산 중에서도 특히 전통음악(국악)은 전담부처, 협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않으며, 국가문화정책 상에서 전통음악이 언급되어 그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관광/축제에 초점. 전담부처가 없어 교육문화부, 관광부 등 여건에 맞게 관련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책/제도 담당자들의 전문교육 또는 역량강화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

- (사업개요) 인도네시아 전통문화보존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목적 분석을 통해 발굴된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진흥을 위한 한-인니 지식공유사업"은 2018-2019년 총 2년간 700백만원 규모로 진행될 개발컨설팅형 사업임.

□ 시범사업 발굴과 함께 한국의 문화 ODA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사업대상국 선정, 국별 문화분야협력전략 수립, 프로젝트 발굴 전략 및 방법 등을 향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의 문화 ODA 정책과 전략 수립, 그리고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언함.

○ **(문화 ODA 수행체계 강화)** ODA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외교부,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업과 조정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산하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관리 ODA 역량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한국의 문화 ODA를 수행하는 핵심기관들(KOICA, 문화부, 문화재청, 세종학당, 해외홍보원, 국제교류재단 등)간의 효과적 협력을 위

한 역할조정과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현지역량 활용 및 사전조사 강화)**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 ODA 역량 강화'와 '의도적인 현지역량 활용'이 결정적 사업수행 성공요인이므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역량의 양성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지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우량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타당성을 검토와 디자인 단계를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 다각화)** 정부의 ODA 재원 뿐 아니라 공공외교 및 한류확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원과 현지 지출기업과 단체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사후관리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발적 기부와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원확대도 도모할 수 있음.

○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 지원)** 한국은 피식민지 경험과 ODA 수원 경험을 가진 공여국이며, 전쟁과 민족국가 수립,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후발 공여국으로서 이런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십분 활용하여 여타 공여국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 가운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무형문화유산지원, 디지털 미디어랩, 도시재생 사업 등).

○ **(사업개발 단계부터 성과관리 주력)**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성과관리를 계획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이를 일관성있게 수행하여야 함. 다른 분야 ODA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사업기간을 가진 문화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적용하여 긴 사업기간 동안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나가야 함.

○ **(문화교류를 통한 쌍방향 ODA 사업 지향)** 다른 분야 ODA와 달리 수원국-공여국 사이에 수평적 교류와 문화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호혜적 이익 증진이 가능한 문화 ODA의 특성을 십분 살려, 폭넓은 문화경험을 시민에게 선사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ODA 사업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일방적 공여가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의 시민사회와 대학, 지역사회, 시민까지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교류 ODA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서 문화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다양성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Post MDG 이후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가치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적 기여에 대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임.

○ '문화적 기여'를 한류 확산 등과 같은 일방적인 문화수출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 보건 등의 여러 국제협력 분야에 비해 그 중요도나 시급성이 저평가되고 있음.

○ 아국의 △선진적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e-learning 등), △문화, 체육, 관광분야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피식민지 및 수원국으로서의 경험공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의 용이성 등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문화 협력', 즉 '문화적 기여'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적 인식에 전환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한국형 ODA 모델(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에 문화영역이 누락되어 있으며, 중점협력대상국별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부재한 상황임.

○ '한국형 ODA 모델(2012)'은 경제, 사회, 행정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총 4가지 분야에 대하여 총 159개 모델이 기수립되었으나, 문화 영역으로 분류된 사업은 전무함.

○ 이후 2016년 새롭게 수립된 24개 중점협력국가의 국가협력전략 내에도 문화영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는 한국의 문화산업 경쟁력과 한류 등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전략 수립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또한, 한국형 문화 ODA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적인 문화ODA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문화 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소규모의 단기적 문화 ODA 사업들을 단발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외 논의 사항과 그 맥락을 분석하여 '문화 ODA'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문화 ODA'의 기본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수행에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증진, 문화격차해소 등 문화의 균형과 발전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추진 중인 바, 이 연구를 통해 한국형 문화 ODA 정책과 전략이 새 정부의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비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국내외 문화 ODA 정책과 담론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한국형 문화 ODA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문화ODA의 개념을 정립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국형 문화ODA 전략 및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아국의 문화분야 역량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비교우위 및 대표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문화 ODA 모델'을 수립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문화적 기여를 확대하고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함.

□ '한국의 문화 ODA 전략 및 정책'과 '공여국, 수원국 측면에서의 호혜적 관점'을 모두 반영하여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대상국가 중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2개 중점국가에 대하여 '한국형 문화ODA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발굴 제시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차별화된 전략적 문화ODA를 통해 '국익우선의 협력외교'에도 기여하고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 ODA 정책과 전략 및 사업을 제시하고자 함.

제 2 절 연구 범위

1. 선행 연구의 내용 및 한계

가. 선행 연구의 내용

1)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정정숙 외, 2010)

□ 문화영역 ODA사업을 상호간의 정서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또는 물질적 풍요에서 나아가 우애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였음. 즉, 기존의 일방적 원조행위로 인식되었던 공적개발원조의 관점을 상호국가간의 감성 공유로 확장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히, 저개발국(아시아・아프리카)의 문화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와 선진 원조공여국의 문화분야 ODA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ODA사업 개발과 수행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ㅇ 문화분야의 ODA사업을 크게 감성존중 분야와 감성 증진분야(문화권 향유모델・창조산업기반 조성모델・문화교류기반 조성모델・문화다양성 확산모델)로 구분하여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함.

2)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정정숙 외, 2013)

□ 기존의 문화영역 ODA사업에 대한 정의는 '감성존중과 감성증진'에 기초하였으며, 이후 '정신・정서・신체적 표현과 문화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재정의함.

- ㅇ 경제적 빈곤퇴치에 편중되어있던 공적개발원조의 관점을 무력감, 절망감, 박탈과 배제 등 빈곤의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확장함.

□ 한국의 발전경험과 성과 등의 요건에 기반하여 '한국형 ODA 모델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을 도출하였으며, 사업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은 유네스코의 문화영역 분류 기준 및 문화영역 ODA 사업의 속성인 존중성・정체성・창의성・포용성・다양성임.

□ 2012년 국무조정실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한 '한국형 ODA 모델' 4개 분야 159개 프로그램 중 누락되어있던 문화영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함.

3) 문화와 개발협력 : 한국의 중장기 정책과 전략 방향(이태주, 2014)

□ '한국형 원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식서비스 융합형, 파트너주도형, 민관협력형 개발협력 사업을 제시함.

- ㅇ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1)문화융성을 위한 개발협력 2)창조경제를 위한 개발협력 3)포용과 통합을 위한 개발협력과 4)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문화와 개발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KCPI)을 제안함.

4) 문화영역 ODA 평가 실행계획과 시범적용 연구(정정숙 외, 2015)

□ 한국에서 기 수행된 문화영역 ODA 사업과정・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문화영역 1개 사업과 문화관련 영역 1개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ODA 사업 성과제고 방안을 도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평가지침을 확립함.

5)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진단 및 추진체계 연구(정보람, 2016)

□ 문화분야 ODA 사업과 추진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현행 문화ODA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행 문화 ODA 사업의 사업구조 및 운영관리 개선과 조직기능 및 추진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언으로 도출함.

나. 선행 연구의 한계점 분석

1) 비교우위에 대한 구체적 분석 미흡

□ 현대 국제개발협력 환경에서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화영역 비교우위가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았고, 해당분야들이 어떠한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미흡한 상황임.

- ○ 선행연구에서는 문화재, 문화연수, 문화예술교육, 문화시설, 문화산업, 관광 및 스포츠 총 7가지 분야로 비교우위를 기술하였으나, 문화연수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비교우위라기보다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가 진행되었음.
- ○ 비교우위 분야에서 어떠한 ODA 사업유형들이 발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의 사업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과의 연계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 부족

□ 지금까지 선진공여국에서 도출한 문화 ODA의 가치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영역 ODA 사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한국의 문화 ODA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였음.

- ○ 한국의 특수한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한국형 문화 ODA' 개념 도출과 전략이 부재하여, 선진공여국 사례에서 도출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만 집중하거나 기존 사업을 재정립하는 형태의 연구를 주로 진행해옴.
- ○ 한국은 원조 역사가 짧고 타 선진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조규모가 적기 때문에, 선진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주지하고,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장점을 분석하고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함.

- ○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문화 ODA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문화 ODA 사업을 시행하는 선진공여국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른바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선진국 모방형 문화 ODA 진행은 개도국의 정치적 요구에 의한 단발성 사업이거나, 관행에 치우친 비전문적 사업수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도국의 수요 및 특수한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차별성을 지녀야함.

2. 본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비교우위에 대한 구체적 분석,' '비교우위에 기반한 실제 문화 ODA 사업 발굴,' 그리고 '타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님.

가.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

□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현황파악 및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동향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형 문화 ODA'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설정을 목적으로 하며, 문화ODA의 개념을 정립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국 문화ODA의 전략 및 정책 마련

- ○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전략과제 도출 및, 각 전략과제에 타당한 실행 목표를 "역량확대", "선택집중", "기회포착", "약점보완"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그에 맞는 단계별 주요활동 제시

□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문화분야 비교우위 및 대표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한국형 문화 ODA 모델을 수립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문화적 기여를 확대하고 문화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나.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시범사업 발굴

□ 기존의 ODA 중점협력대상국과는 다른 '한국형 문화 ODA' 에 특화된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고,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상승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 개발

- ○ 중점협력대상국은 공급적 측면을 우선 반영하여 Top-down approach로 '한국형' 에 알맞은 정량적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후에 수요적 측면에서의 Bottom-up approach로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적 특성 등의 요소를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이후 우선 검토대상이 된 아시아 5개국에 대해 국내외 자료조사로 현지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최종 2개국에 대해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에 적합한 시범사업(pilot project) 발굴

다.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도출

□ 본 연구는 크게 1) 문화 ODA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과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중장기적인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며 2) 이와 동시에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과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3) 문화 ODA 사업의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발굴에 필요한 제반환경 분석 등 후속사업을 위한 제언을 도출

제 3 절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 UN, OECD, World Bank, UNESCO, 선진공여국들의 문화와 개발협력에 관한 기존 문헌과 정책연구, 평가자료 등을 우선 검토하고, 한국 문화 ODA에 대한 기존연구(정정숙 외, 2010; 정정숙 외, 2013; 이태주, 2014; 정보람, 2016 등)를 다각도로 검토・분석함.

□ 한국 ODA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해 주요 전략 문건 및 정책, 관계법 등 기본 문건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 추이, 주요 협력국에서의 사업 현황, 주요 이슈 및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문헌 조사를 수행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등 각종 관련 다자기구와 선진 공여국들의 문화 ODA 개념 정의와 활용, 문화 ODA 사업 형태 및 현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관련 개념 및 범주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 수행
- ○ 유효하고 적절한 문화 ODA 개념 정립을 위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문화 ODA 관련 사업의 유형, 수행 주체, 추진 배경, 효과 등에 대한 자료 조사
- ○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해 협력대상국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살펴보고, 각 국의 공식 통계, 정책자료, 예산 운용 계획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정리

□ 한국 문화 분야의 비교우위 분야와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문화분야 세부영역별 정책과 사업경험 등 검토

2. 설문조사

□ 문화ODA 혹은 기타 분야 ODA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각종 기관 종사자와 전문가[1]를 대상으로 △문화 ODA에 대한 인식과

△한국형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문화 ODA에 대한 인식, 문화 ODA의 강점/약점/기회/위기,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파악을 위해 설문지를 아래와 같이 구성

[그림 1-1] 설문조사 항목

항목	조사항목
문화ODA에 대한 인식	• 문화ODA에 대한 인지 여부 • 한국의 문화ODA 지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사유
문화ODA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 문화ODA 사업 수행 시 한국의 강점 / 약점 / 기회요소 / 위협요소
문화ODA의 전략적 방향성	• 한국의 문화ODA 사업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원칙 • 한국 문화ODA의 대표 사업아이템(안)
문화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사업 수행체계 측면에서 문화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에서 문화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

3. 현지조사

□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10개국 중 우선 추진 필요성이 있는 2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을 선정하고 우량 시범사업 발굴을 위해 '미얀마' 와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및 아국 공관 의견 청취, 심층적인 해당분야 이슈파악, 그리고 수요 요청서 작성 협의를 통해 문화 ODA 사업을 발굴함.

○ (이해관계자 면담) 문화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을 담당할 정부부처와 수행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사업 시행부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 정부부처로 향후 사업을 이관 받을 부서와의 면담으로 수요파악 및 협력관계 구축
- 해외 공관, KOICA 해외사무소, 한국문화원 등 사업진행시 긴밀한 협업이 요구되는 한국정부 기관과의 내용 공유
- 해당분야 프로젝트의 수행 NGO: 해당 분야의 민간단체(NGO) 방문, 면담으로 사업 수행 시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와 리스크 요인 파악
- 양자, 다자 원조기관의 사무소: 유사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이 있는 양자, 다자 원조기관을 방문하여 다자기관 차원에서의 관련 정보 획득

○ (현장답사) 사업이 시행될 지역 또는 현장을 실사하여 수원국측 제안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시 고려할 제반사항 확인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해당국 사업요청 리스트 확보, 공식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 타 기관에서의 유사 사업자료 수집

1) 문화체육관광부 ODA 관리자 및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 ODA 시행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 문화분야 ODA 전문가

제 2 장 한국형 문화 ODA 현황 및 개념 고찰

제 1 절 국내외 문화 ODA 현황 분석

1. 국제사회 문화 ODA 현황

가. 국제사회의 문화 ODA 주요 논의 현황

□ 문화와 발전에 대한 국제 담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문화 ODA의 주요 논의의 주축이 되는 UNESCO와 UN의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상에서의 핵심 논의를 중심으로 확인함.

□ 경제와 기술 위주의 서구 중심 국제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와 반성(호지 저, 양희승 역, 2007; 슈마허)에 따라 인간중심 발전론과 1990년 Sen의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과 같은 다양한 발전론이 제기됨.

- ○ 자본주의적 발전 경험을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다른 문화, 역사, 환경을 지닌 개도국에게 발전보다 선진국에 대한 종속과 의존을 강요하는 행위이므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해체시킴으로써 물질중심주의를 확산할 뿐이라는 반성이 부각됨(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2007).
- ○ 문화의 개념이 집단의 정체성 및 경제·사회발전과의 관계설정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 1900-2000년 UN 기구 창설 이후 UN 기구의 인권, 개발 관련 규범에서 문화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인간중심의 발전이론이 발표됨.

- ○ 1948년 UN에서 채택되어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의 제 22조 및 제 27조[2]에서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임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생활의 참여를 인권으로 언급함.

- ○ 1980년대부터 UNESCO는 "인간적, 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개발은 영혼이 없는 성장"이라 밝힘(「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8).[3]
- ○ 1984년 USAID에서는 인간중심발전론(human-centered development)을 제시하며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자립성, 사회 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인간중심적인 발전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
- ○ 1999년 아마티야 센(Sen)은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다양한 행위를 수행하고 다양한 상태로의 존재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조건들 중 문화적 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2000-2015년의 기간 중에는 UNESCO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며 문화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에 문화를 포함시킴.

- ○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2001)**
  - 문화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이며, 인류 공동의 유산임.
  -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의무이며,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 (2005)**
  - 세계인권선언, 세계문화다양성선언 등에 기반하여 문화의 획일주의 저지, 문화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조치, 협력 및 연대의 강화, 각 국가의 자국문화 보호 조처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목적으로 채택됨.
  - 문화와 개발 간의 연계성을 확인함.

---

2)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에 의해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및 제 27조 1항 "모든 사람은 그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3)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유네스코 문화발전 10개년 사업의 보고서임.

○ **2013년 항저우 선언**을 통해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공평성, 존엄성, 복지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

- 지속가능 발전, 국가 개발목표, MDGs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의 기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UNESCO의 제안에 따라 2013년 항저우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UN회의>를 개최함.

[Box 1] 항저우 선언

1. 모든 발전 정책과 계획에 **문화를 통합**한다.
2. **평화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문화와 상호 이해를 활성화한다.
3. 모두가 **통합적인 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4. **빈곤퇴치와 포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를 활용한다.
5. 문화를 기반으로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 전통지식을 보존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막음.
6. 문화를 통해서 **재해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 전통지식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자연재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7. 문화를 소중히 하고 보호하며 **미래 세대에 전달**한다.
8.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관리**를 위해 문화를 활용한다.
9.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를 활용한다.

출처: UNESCO (2013); UNESCO 항저우 선언 홈페이지

- 항저우 선언에서는 문화가 미래발전의 중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였음.
  - 문화는 모든 분야의 발전정책에 통합되고 범분야로 간주되어야함.
  - 개인차원의 권리에서 공동체의 권리로 역할의 비중이 이동하게 됨.
  - 개인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공동의 무형문화재의 저작권, 문화권에 대한 논의로 확장시킴.
  - 민간부문의 역할이 부각됨.
  - 전통지식을 보전하고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유도함.

○ UNESCO는 문화와 발전의 관계를 강조하며 2013년 11월 UNESCO 총회에서 문화 분야에 대한 **2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37 C/4 2014-2021 Medium-Term Strategy, 2014)

- 9개 전략 목표 중 문화 관련 목표는 1) 전체 문화유산 보호·홍보·전수(전략 목표 7) 2) 문화적 표현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전략 목표 8) 등
-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참여 제고, 문화 전문가 및 활동가 육성, 비정부·비영리 기구 양성, 협약 수행 전문가 및 전문기관 육성 등을 꾀함.
- 군소 도서 개발국, 사회 취약 계층, 현지 부족민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UNESCO의 UN Post-2015 개발 아젠다 구성 작업에서 발간한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자 조력자>에서 "문화는 개발을 도울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섭, 평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UNESCO, 2012)" 을 명시.

□ 2015년 이후에는 문화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로 설정됨.

○ SDGs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선정되었으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함.

- 문화는 SDGs의 목표 4번 및 11번에 세부목표로서 포함되어 발전에 있어 문화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Box 2] 문화 관련 SDGs

- (SDGs4) :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확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4.7)
- (SDGs11) :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강화(11.4)

출처: UN (2015)

○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을 연결 및 통합을 중요시했었는데 문화는 네 번째 축으로 기능 가능함.

- 문화는 개발의 진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개발도상국 주민과의 정서적 공감을 형성하여 소통의 폭 확대로 개발협력의 효과성 증진
  - 문화 향유로 나타나는 행복, 정체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수원국의 복지증진 도모.
  - 세계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확산에 기여

나. 주요 공여국의 문화 ODA

□ 주요 공여국의 문화 ODA 현황분석은 그 규모와 기간에 따른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함. 이는 국제사회의 추이파악 및 규모 분석을 통한 1차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각 주요 공여국에 대한 주요 특징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임.

□ OECD의 DAC 원조목적 코드[4]를 활용하여, 최근 5년 간 OECD 국가들의 문화 분야 ODA 집행예산을 확인함.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절대규모 비교가 가능하며 각 국가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 2015년 기준, 전체 29개 OECD-DAC 회원국들 중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일본, 노르웨이의 순서로 문화 ODA에 많은 금액을 지원. [표 2-1] 상의 기타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위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문화 ODA 예산을 집행함.

4) Culture and Recreation, 16061

[표 2-1] OECD 국가의 문화여가 분야 사업 총액 변화[5]

원조금액	구분: 총 지출 (Gross disbursements), 단위: 백만 불(current USD millions)					
해당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순위
기부국						
한국	5.78	7.29	11.59	19.64	17.15	4
호주	2.57	3.26	1.40	0.23	2.72	14
오스트리아	0.25	0.94	0.26	0.95	0.23	19
벨기에	2.49	3.11	3.19	3.22	3.14	12
캐나다	0.56	0.01	0.00	0.02	0.06	21
체코	0.01	0.05	0.15	0.04	0.02	25
덴마크	3.56	7.21	9.07	9.06	11.46	7
핀란드	1.32	0.91	0.80	0.62	0.20	20
프랑스	140.08	99.38	77.73	71.25	76.37	1
독일	40.64	69.44	53.62	74.23	36.45	2
그리스	–	–	–	0.37	0.02	24
헝가리				0.07	0.02	23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2.17	4.36	4.13	4.46	1.80	16
일본	22.61	12.93	10.17	11.28	12.84	5
룩셈부르크	0.05	–	0.016	0.27	–	–
네덜란드	12.77	9.16	7.59	5.63	5.59	8
뉴질랜드	0.11	–	–	0.03	0.65	17
노르웨이	19.47	17.60	15.51	15.53	11.98	6
폴란드	–	–	1.27	2.56	3.08	13
포루투갈	3.49	3.23	2.91	3.43	2.66	15
슬로바키아	–	–	0.01	0.04	0.05	22
슬로베니아	0.03	0.00	0.00	0.00	–	–
스페인	53.91	17.20	16.30	17.23	20.52	3

스웨덴	14.76	17.72	4.33	3.36	3.52	10
스위스	2.92	3.09	3.36	3.44	5.28	9
영국	58.01	1.47	1.98	1.93	3.39	11
미국	10.80	2.65	0.56	0.82	0.56	18
총계	398.37	281.00	225.95	249.69	219.73	

출처:OECD 통계홈페이지 재구성 (검색일: 2017.06.29.)

□ OECD의 DAC 원조코드를 활용하여 위의 표에서 나온 규모별 최대 공여국 6개국의 문화분야 ODA 지출(목적코드 16061)을 ODA 지출 총액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표 2-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됨.

○ 문화 ODA 최대 공여국 내에서도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문화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최근 5년간 약 4.19%), 한국은 신흥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문화 분야 ODA 비중이 큰 국가임.

[표 2-2] 2011-2015 문화분야 ODA 최대공여국 6개국의 문화분야 ODA 비중

원조금액	구분: 문화ODA/ODA 단위: %					
해당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기부국						
한국	0.56	1.38	1.17	1.20	1.72	1.21
프랑스	2.42	1.62	1.59	1.54	1.48	1.73
독일	0.65	0.95	0.77	0.93	0.27	0.71
일본	0.59	0.46	0.16	0.23	0.20	0.33
노르웨이	1.14	1.14	0.70	0.58	0.38	0.79
스페인	3.75	2.49	2.46	6.44	5.82	4.19

※ 2016년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1-2015년을 최근 5년으로 집계하여 정리
출처: OECD 통계홈페이지 재구성 (검색일: 2017.01.26.)

5) OECD CRS 원조목적 코드 '문화와 여가'(16061) 분야에는 문화유산, 공예산업, 언어교육, 스포츠 등 ODA사업들이 포함되지만 관광분야 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관광 ODA 규모는 CRS 원조목적 코드 33210(Tourism policy and admin, management(관광정책과 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부록으로 첨부함.

□ 문화 ODA 지원규모로 확인된 주요 상위 공여국들 중 특이점별로 국가들을 구분하여 살펴봄.

□ 문화영역의 ODA를 중시하는 국가들은 크게 구식민지의 역사와 문화 및 언어적인 부분에 영향력 행사(프랑스, 스페인 등), 수원국의 문화·교육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일본 등), 문화가 모든 사업에 범분야적으로 적용(독일 등) 및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분야 지원(스웨덴 등)이 있음.

1) 프랑스의 문화 ODA

□ 프랑스개발청(AFD)은 '지식과 문화의 교류 증진'을 개발협력의 5대 비전으로 두고 문화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프랑스어 사용 지역 개도국들에 대한 프랑스 문화, 언어 교육 및 문화유산관리 지원을 통해 과거 식민지시대의 유대감을 지속하고 강화함.

○ 개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사업이 높은 스페인, 영국과 달리 개도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높지 않고, 문화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는 것이 인류 세계의 평등에 기여한다는 것이라는데 기초함.

- 1997년 프랑스 정부와 유네스코 간 '프랑스-유네스코 협력 협정(CFU)'을 체결하여 프랑스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을 전파
- 약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47개국에서 100건 정도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으며 약 370만 유로 규모임.

2) 스페인의 문화 ODA

□ 스페인 국제개발협력청(AECID)은 개도국의 '문화예술분야 인적자원 양성'에 집중하고 있음.

○ 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원이라는 개발패러다임을 보여줌, 개도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구축함.

○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됨.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언어전통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증진 프로그램들을 실시함.

□ 다른 선진국과 달리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여 일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통해 문화예술의 평등한 향유를 보장함.

□ AECID는 4차 마스터플랜(2013-2016)에서 스페인이 축적해온 '문화와 개발 전략'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문화 간 이해,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증진할 것임을 명시함.

○ '문화와 개발 전략'의 주목적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기회 및 역량 증진이며 이 중 '문화유산 보존 및 증진' 관련 전략(L5)에 따라 'P>D 문화유산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함.

- 문화유산 개발 프로그램은 1985년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시행되어옴.
- 9개 문화경관관리플랜 및 30개 이상의 역사지구플랜 수행, 도심 문화유산과 건축물 개선작업 200건, 26,000명 이상의 청년층을 훈련하는 직업학교 66개 개원 등의 성과를 냄.

*2010년부터는 문화유산 개발 프로그램과 직업학교는 별개 운영함.

○ 'ACERCA' 프로그램은 문화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치와 콘텐츠의 확산 촉진 △창작 과정 촉진 △에이전트 및 문화 전문가에 대한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 'Ibero-American'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다자 재정 지원이며 각각의 공여국이 특정 프로그램을 담당함. AECID는 라틴아메리카의 박물관과 박물관학 분야의 공공 정책 촉진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IERMUSEOS'에 참여하고 있음.

3) 일본의 문화 ODA

□ 일본국제협력단(JICA)은 수원국의 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ODA 시행을 위해 문화무상협력을 신설하였으며 주체 및 규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문화무상자금협력(Cultural Grant Assistance)'은 수원국의 정부를 주체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의미함.

○ '풀뿌리 문화무상 자금협력(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NGO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을 뜻함.

□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에서는 전체 업무의 30%를 '문화예술교류' 업무에 할애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류 업무 내 문화협력사업이 포함

○ 시설 원조에 치중한 JICA에 비해 "조형미술, 무대예술, 출판, 영상 등 예술문화 교류사업"과 "공동제작, 사람과 생활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류사업"을 실시

- 인물 교류에 의한 일본문화 소개
- 시민·청소년 교류
- 조형미술 교류
- 무대예술 교류
- 출판 교류
- 영상 교류

○ 중장기 사업이 다수

□ 외무부에서는 문화 산업 시설(스포츠 시설, 국립도서관, 대학 등)건설에 대한 차관을 주로 담당

4) 독일의 문화 ODA

□ 독일국제협력단(GIZ)은 개발협력 전반에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범분야 이슈로서의 문화 ODA를 시행함.

- ○ 문화 ODA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유지하여 2015년에는 OECD 국가들 중 총 지원금액이 2위를 차지함(약 3,700만 불).
-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문화유산(유・무형)에 대한 지원
  -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의 역할이 막중하여 현재 92개국에 149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현지직원을 다수 채용하여 문화전달기관의 현지화 추구
  - '문화외교 콘셉트 2000' 등 백서 발간

5) 스웨덴의 문화 ODA 정책

□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은 문화분야 ODA 전담부서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 지원 프로젝트 수행에 집중

- ○ 수원국의 문화적 관습, 언론의 자유, 교육, 여성 권리 강화 등 인권을 강조
- ○ 특정 지역 또는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현지 및 국제 NGO, 정부기관, 학교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시행
  - 탄자니아 아동도서 사업
  - 스웨덴-베트남 문화증진 기금
  - 팔레스타인 및 베트남 저널리즘 강의 등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전반 담당하는 공공기관 SI(Sweden Institute)[6]에서는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Creative Force' 라는 팀을 구성하여 문화협력사업 진행

- ○ 표현력 강화, 생활박물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참고

□ 문화분야 개발협력사업 시행 시 문화예술위원회(Sweden Art Council)의 협력이 중요하며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문체부)

- ○ 아스트리드 린드그렌[7] 추모문학상, 창의 유럽 데스크(Creative Europe Desk) 등의 일반적인 국제 사업 외에도 국제 문화 교류 이니셔티브 재정 지원을 통해 각국 예술가들 초빙 자금으로 사용

2. 한국의 문화 ODA 현황

가. 한국의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1) 한국의 문화 ODA 정책의 발전

□ 2010년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내 최초 유・무상원조 통합 정책문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에서 3대 선진화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일부 문화적 요소가 가미되었을 뿐 문화 ODA로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누락됨.

- ○ 기본 가치: '수원국에게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 ○ 3대 선진화 방안으로는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 시스템의 효과적 개편, 국제 활동 강화가 제시됨.
  - 이 중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방안에 한국적 감성 또는 미를 가미하여 ODA 부가가치 제고에 활용함이 명시되어 있으나, 문화 ODA로서의 인식 및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음.

□ 앞서 명시된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2012년 9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수원국과의

7) 스웨덴 여류 동화작가이며 《말괄량이 삐삐》, 《미오, 나의 미오》 등을 펴냄. 《꼬마 닐스 칼손》으로 닐스 호르겔손상, 《라스무스와 나그네》로 국제 안데르센상 대상을 수상함.

정책협의 및 사업심사 등에 활용되는 준거가 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나, 문화 ODA로 별도 분류 된 사업 및 프로그램은 모두 누락됨.

- ○ 한국이 가진 발전경험과 수원국의 수요 및 국제규범에 따라 4개 영역의 총 159개 ODA 프로그램 pool로 확정하고, 그 중 40개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선정
- ○ 대분류된 4개 영역에 경제, 사회, 행정제도・거버넌스, 미래・범 이슈 영역이 포함되었으나 문화 영역은 누락되어 있음.
  - 프로그램의 성격상 문화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은 있었으나, 문화 ODA로 구분된 사업은 없었음.

□ 선행연구(정정숙, 2013)에서는 문화 영역 ODA의 누락요인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 문화 ODA의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함.

[표 2-3] 문화 영역 ODA 누락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방안

구분		문화 영역 ODA의 누락요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방안
현실적요인	주체	- 한국형 ODA모델 수립 당시 연구진에 문화 영역 불포함 - 문화계(정부, 민간, 연구)의 인식 저조	• 「문화 분야 ODA확대방안 검토(안)」(2013.1)에 따라 사업 확대 및 한국형 ODA모델 반영을 위한 국무조정실과의 협의 • 문화 영역 ODA사업의 기획 및 개발·평가 종합적 체계 구축(국제문화과)
	예산규모	- 문화 영역 ODA의 저예산	• 기존 사업의 규모 확대 실현('13년 40억 원 → '17년 112억 원) • 신규 사업 반영 (총 28억 원 규모 2개 사업) • 신규 사업 발굴(아시아 문화유산 디지털화)
	정책	- 관련 초기보고서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에서 문화영역 제외	• 문화 영역 ODA의 가치와 담론 연구 심화 •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 강화 • 문화 영역 ODA정책 지속 및 홍보를 도모할 자문단 구성 및 활용
인식적요인	사업성격	- 문화 영역 ODA사업에 대한 인식적 혼란(문화교류·문화전파와 동일시)	• 문화 영역 ODA 사업의 성과 발표 및 홍보 강화
	시급성	- 다른 영역에 비해 중요도·시급성 저평가	• 다차원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문화 영역의 ODA사업이 시급 • 시급성 높은 경제 및 보건 사업과의 패키지형 사업을 구상하여, 중요성을 확인 및 역할 인정 추구
	비교우위	- 문화 영역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위 과소평가	• 한국의 문화 영역 발전 경험의 홍보와 소통 필요 (높은 수준의 문화제도, 문화상품 등)

출처: 정정숙 외 (2013), p.68

□ [표2-3]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문화영역 ODA의 현실적 한계를 1) 주체 2) 예산규모 3) 정책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기획,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예산 규모 확대 및 관련 연구 지원,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업 등을 진행

- ○ (사업기획) 2017년 문체부는 관광,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18건의 문화 분야 ODA 사업을 기획하여 요구함.
- ○ (평가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의 경우, 설문조사, 인터뷰, 평가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평가과정 구축 및 국제기준 반영을 위해 2017년 대표 문화영역 ODA 사업인 문화동반자 사업에 대한 체계적 평가지표 개선연구가 이루어짐.
- ○ (예산규모 확대노력)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기준 23개 사업에 대한 약 212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는 2013년 목표로 잡은 112억 원보다 89% 증가한 수치임.
- ○ (전문가와의 협업) 문화 ODA의 효과성, 평가방향 및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자문단 구성, 국제기구(UNESCO)와 연계한 세미나 및 포럼 등을 지원하여 전문가 그룹과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이룸.

□ 현실적 한계와 함께 문화영역 ODA의 인식적 제한요소들을 돌파하기 위해 1) 사업성격 2) 시급성 3) 비교우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함.

□ 대내외적으로 문화영역 ODA 사업 및 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제포럼, 국제회의를 지원함.

○ 2013년 문화와 발전 국제포럼, 2014 UNESCO 문화 개발협력 국제포럼, 2015년 UN 문화와 발전 국제회의 개최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를 통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림.

○ 또한, 2017년 UNESCO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교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2) 한국의 문화 ODA 전략

□ SDGs의 '포용적 발전' 가이드라인, UNESCO의 문화다양성 협약(2001; 2005) 등 여러 국제사회의 규범도 준수함과 동시에,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79번) 및 문화부 추진계획 내에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및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가 포함되어 문화 ODA 사업 진행 시 주요 기준이 됨.

○ 문화동반자사업,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 사업 등 문화 ODA 확대를 목표로 예산투입이 증가하였으며,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 관련 보고서, 종료평가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2012년 발표된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에서 누락되었던 문화영역을 재조명하여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 전수 등 한국형 문화 ODA 모델개발을 과제 목표로 함.

□ 이 외에도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실에서 발주하여 진행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정정숙 외, 2010)"는 SWOT 분석을 시행하여 문화 ODA 사업 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이 상기 문화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였음.

○ 강화 전략: 한국이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한류, 스포츠, 식민지경험 등을 적극 활용

○ 보완 전략: 문화 ODA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는 문화 ODA 인식, 인력,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적인 문화전달의 우려 등을 파악하여 보완

○ 활용 전략: 국제적으로 문화 ODA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 및 배경요소 파악

- 문화적 ODA의 상호성 강조
- 개도국 관련 지식 축적

○ 방지 전략: 문화 ODA 수행에 있어 개도국의 환경 및 국제적 관행 등에서 느껴지는 애로사항 고찰을 통해 대처방안 수립

- 수원국 중심 원조방향 설정
- 수원국 필요파악
- 평가 및 거버넌스, 문화 ODA 모델 수립
- 문화다양성 협약 실천

나. 한국 문화 ODA 지원현황

1) 한국 ODA 및 문화 ODA 개요

□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ODA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8)]

○ ('14) 1.96조원 → ('15) 2.16조원 → ('16) 2.44조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ODA예산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9)]

○ ('14) 약 110억원 → ('15) 약 122억원 → ('16) 약 128억원

□ 문화 ODA의 경우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업 수는

8) 2017년 국제기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참고
9)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예산안 참고

감소하여 사업 당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사업횟수) (´13) 177건 → (´14) 161건 → (´15) 59건
- ○ (총금액) (´13) 약 11.6만 불 → (´14) 약 19.6만 불 → (´15) 약 17.2만 불
  - 문화 ODA 증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물론 KOICA를 비롯한 타 기관 예산의 확대와 관련이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는 soft component(문화・체육・관광 분야 인력/제도의 역량강화 및 협력관계구축)에 집중하고, 문화재청은 hard component(문화재 관리, 시설지원 등)에 초점을 맞춤.
  -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UNESCO 및 UNWIPO와 다각도로 협력하고 있음.
- ○ KOICA의 문화분야 ODA 주요사업 중 하나인 봉사단파견은 한국어 교육, 태권도, 음악 및 미술교육, 도자기 공예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횟수의 감소가 눈에 띄는 추세지만 집행금액의 감소는 미미한편으로 사업 당 집행금액은 증가함.
  - 봉사단파견 외에도 청소년 오케스트라, 시설 지원 등 점차 다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음.

□ 국내 문화 ODA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은 크게 4개로 나누어짐.[10)]

-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부터 예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 KOICA: ODA 사업집행 횟수는 가장 많으나, 봉사단 파견이 주를 이룸.
- ○ 문화재청: 국제기구에의 의무분담금 및 신탁기금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사업들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집중하여 지원함.
- ○ 외교부: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로 매년 연계되어 이루어지지 않음.

10)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경우 "Miscellaneous (기타)"로 통합되어 있어, 2017년 ODA예산 계획, 각 부처 ODA 사업현황 등을 참고하여 구분함.

[표 2-4] 2013-2015년 문화ODA 사업주체 별 분류 및 총비용

(단위: 백만 불)

년도	주체	구체적 사업 내용	사업 횟수	총금액*
2013	문화 체육 관광부	해외전통문화예술단	1	0.1091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Dream Together)	1	3.6139
		문화협력관계구축(문화동반자)	1	0.9089
		문화체육관광부 총계	3	4.6319
	KOICA	봉사단파견	163	4.3062
		영화산업전문가 및 기술교육	1	0.1761
		국립박물관 건립지원	1	0.0043
		국립극장 보수사업	1	0.0248
		KOICA 총계	166	4.5114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지원	7	0.6817
		문화재청 총계	7	0.6817
	외교부	유네스코 미얀마 문화센터	1	1.7650
		외교부 총계	1	1.7650
	총계		177	11.59
2014	문화 체육 관광부	해외전통문화예술단	1	0.1091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Dream Together)	1	5.0305
		문화협력관계구축(문화동반자)	1	1.2649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1	1.4203
		해외작은도서관 건립지원	1	0.8402
		문화체육관광부 총계	5	8.6650
	KOICA	봉사단파견	136	4.4878
		국립박물관 건축	1	0.9166
		국립극장 보수사업	2	0.3106
		영화산업 지원	1	0.2432
		청소년 오케스트라	1	0.1021
		강당시설 개선	1	0.2224
		도서관 지원	1	0.1021
		유네스코 박물관 기록보관소 보존 및 디지털화	1	1.1549
		문화자산관리 능력 배양	1	0.1040
		스포츠 및 정보통신 장비 지원	1	0.0957
		대학살기념관 확장계획	1	0.1030
		KOICA 총계	147	7.8424
	문화재청	문화유산보존지원	8	0.8727

		문화재청 총계	8	0.8727
	외교부	유네스코 미얀마 문화센터	1	2.6735
		외교부 총계	1	2.6735
	총계		161	19.64
2015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신탁기금	1	0.4522
		해외전통문화예술단	1	0.1061
		관광지도자 초청교육	1	1.3259
		아시아예술인력 양성	1	0.5056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Dream Together)	1	3.4624
		스포츠공공외교 (경기단체 지원)	1	0.5038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1	1.0749
		문화협력관계구축(문화동반자)	1	1.0342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1	0.7955
		문화체육관광부 총계	9	9.2606
	KOICA	봉사단 파견	32	3.7099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건립	1	1.4296
		박물관 전략 수립	1	0.0986
		미디어센터 건립 및 기자재지원	1	0.0602
		문헌 및 교육기기 지원	1	0.0922
		도서관 고대문서 디지털화	1	0.0985
		마야문화 강화 및 교육기기 지원	1	0.0985
		문화유산지도 구축	1	0.0985
		KOICA 총계	39	5.6860
	문화재청	유네스코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 전략 세미나	1	0.0082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후보추천서 작성을 위한 역량구축	2	0.0474
		유네스코 세계훈련 워크숍 기념	1	0.1048
		문화유적지 보존관리	3	0.9227
		무형문화유산 보존제도 구축지원	2	0.0883
		문화재청 총계	44	1.1714
	외교부	개도국문화꿈나무 (Dream Project)	1	0.2095
		UNESCO 미얀마문화센터	1	0.8516
		외교부 총계	2	1.0275
	총계		59	17.15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출처: OECD 통계 홈페이지 내 Flows based on individual projects(CRS)항목의 Creditor Reporting System 참고하여 저자 정리 (검색일: 2017.02.02.)

2)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ODA

□ 국무총리실의 ODA KOREA 홈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홈페이지 등에서는 OECD/DAC의 통계를 국내통계로 보완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표2-4]의 OECD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항목들은 부처에서 공개된 국내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문화 ODA 시행기관과는 달리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호교류가 가능한 ODA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분야 국제기구(UNESCO, UN WIPO 등)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문화 ODA 사업 개발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문화 ODA 기반을 확장하고 있음.

[표 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ODA 사업의 2013-2017 연도별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2013	2014	2015	2016	2017
1	WIPO신탁 기금 지원	400	550	529	550	1,072
2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1	120	115	122	124
3	개도국관광 발전지원	667	767	767	2,113	-
4	문화동반자사업	1,000	1,400	1,170	1,145	1,145
5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860	930	900	720	550
6	문화예술(교육)ODA	200	200	105	105	105
7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	-	1,500	1,500	1,500	1,425
8	해외전통문화예술단 (구 해외문화예술봉사단)	120	120	120	120	114
9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3,976	5,568	5,652	5,896	5,896
10	아시아예술인력양성	-	-	600	800	717
11	유네스코 협력	498	-	481	-	481
	총	7,842	11,155	11,939	13,071	11,629

출처: 2013-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ODA사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 스포츠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 스포츠 국제협력 선도[11)]

○ 개도국 국가대표 합동훈련 확대(100명 → 150명),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되었던 드림프로그램 지원 확대(39개국 163명 → 45개국 180명), IOC총회회원국・한류파급국가 등으로의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19명 → 80명) 추진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협력을 도모함.

○ 최근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평창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제문화 인적네트워크 구축) 대표적 문화 ODA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

○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년 진행되어온 장기프로그램으로 ODA 수원국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이수

○ 2016년 기준 98개국 1,003명의 전문가들이 연수를 수료하였으며 전문가들의 귀국 후에도 소속기관과의 후속 또는 연계사업이 진행됨.

○ 기간 및 규모에 있어 문화 ODA의 대표성을 띄는 사업으로 스포츠발전 지원사업과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연수를 이어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문화인프라 지원) 해외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개도국 아동 및 청소년 교육문화 인프라와 교육 기회 제공

○ 해외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성이 돋보이는 사업 중 하나임.

○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조성・건축, 기자재 및 문헌 지원, 사서 역량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육기회 증가로 사회원동력 제공을 목적으로 함.

11)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스포츠비전 2018” 참고

□ (국제기구와의 협업) UNESCO, WIPO등 국제기구와 원조 강화 도모

○ 세종문해상 및 신탁기금 지원 외에도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체계 유지

□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인력양성) 개도국 문화예술교육 및 관광발전 지원

○ 한예종 아시아 우수예술인재(AMA) 유치양성 사업 확대 실시(‘13년)

-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까지 초청국 확대

○ ‘전통공예 콘텐츠의 디자인 개발 및 유통구조 개척’ 지원(‘14년)

- (1단계) ‘공예상품 육성 정책 컨설팅’ 실시
- (2단계) 현대적 디자인 가미한 공예상품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 (3단계) 중소시장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 개척

○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개도국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13년)

- 문화재 분류체계 마련, 보존처리 및 운영인력 교육 등 실시

3) KOICA의 문화 ODA

□ KOICA는 1991년 설립 이후 2015년까지 총 1억 3700불 규모의 문화분야에 해당하는 다양한 ODA사업을 추진함.

○ 문화 영역의 ODA는 봉사단/전문가파견, 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소규모 무상원조, 국제기구협력 등으로 구분

[표 2-6] KOICA 문화 ODA 사업유형별 분류

구분	세부내용	비율
봉사단/전문가파견	한국어교육, 태권도, 박물관, 관광 등 연평균 127명 활동	51%
프로젝트/개발컨설팅	DR콩고 박물관 건립사업등 32개 사업	25%
글로벌연수	기록문화유산관리 과정 등 121개 과정	15%

민관협력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태양광가로등 설치 등 24개 사업	4%
소규모무상원조	짐바브웨농촌도서관 지원사업 등 65개 사업	3%
국제기구협력	UNESCO협력 등 6개 사업	2%

출처: KOICA (2017)

□ (봉사단/전문가 파견) 한국어교육, 태권도 전수, 박물관 및 관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음.

○ 봉사단 파견사업

- 현지에서 공모전 개최, 문화 활동 도구 지원 등 사업을 직접 구상하고 실시하여 문화교류 활성에 기여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전통문화 보존을 통한 관광 지원 사업

- 우즈베키스탄 호레즘 관광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고대 호레즘 문화 축제' 행사 지원
- '사마르칸트'에 파견된 한국어봉사단은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과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

□ (프로젝트/개발컨설팅) DR콩고 박물관 건립사업

○ 2019년까지 문화 ODA로 최대 규모인 2천만불을 투입한 DR콩고 국립박물관 건축 및 운영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임.

- 현 DR 콩고박물관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4만점이상의 유물을 보관 중이나 시설의 낙후로 상당수의 유물이 훼손 및 사라짐.
-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으로 유물보존, 환경대책 수립, 유물 크리닝 및 훈증작업을 실시 예정

□ (민관협력사업)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태양광가로등 설치 사업

○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민관협력사업(PPP)로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앙코르와트 주변의 도로개선 사업과 동시에 실시

□ (소규모 무상원조) 짐바브웨 농촌 도서관 사업

○ 한국희망재단과의 협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도서관 지원사업은 농촌 아동의 학습기회 확대 및 주민역량 강화에 힘씀.

□ (국제기구 협력) UNESCO협력 사업

○ KOICA 설립 이래 2005년까지 국제기구 공동연수 사업으로 UNESCO 회원국 방송인 초청연수를 실시

- 매년 한 달간 한국방송공사에서 디지털 촬영 및 편집기술 실습을 통해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실습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향상 및 방송의 질적 향상 도모

3. 국내외 문화 ODA 도전과제

가. 국제사회 문화 ODA 한계

1) 구식민지 국가에 집중

□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문화 ODA 공여국들은 자국의 구식민지 국가에 대부분의 문화 ODA를 할애하고 있음.

○ 프랑스: 프랑스어권 개도국에 집중하여 문화 ODA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지원함.

- 마다가스카르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
- 베트남어 문화 유산 박물관의 재평가
- 말리 인문사회 과학연구 지원 등

○ 스페인: 다양한 프로그램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집중

- Ibero-American Cooperation: 박물관과 박물관학 분야의 공공 정책 촉진
- 중미통합체제(SICA), 카리브경제통합(CARICOM), 남미경제통합(MERCOSUR)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 지역공동체와의 광범위한 협업

□ 실제 문화수요가 높은 수원국에 지원하기보다는 자국과 언어적, 문화적 유사점을 공유하는 구식민지에 집중하려함.

2) 자국문화 홍보

□ 일본의 경우 수원국의 문화·교육진흥, 문화유산 보존, 장비지원, 시설 건설 및 재건이 주요 사업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일본문화 전파 및 홍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예시: 일본어학 연구실, 일본어 강좌를 위한 장비, 일본문화(부도, 유도 등) 전파
- ○ 문화지원사업을 통해 과거 일본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함.

□ 프랑스의 경우에도 프랑스어 언어교육원인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한 문화교류 또는 자국의 언어 및 문학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룸.

- ○ 예시: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문화 전파(시각 예술 전시, 영화 등)

나. 한국의 문화 ODA 한계

1) 문화ODA의 중요성 및 이해도 부족

□ 국제적 담론에서 논의된 문화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립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선진화 방안 모색과정에서 문화가 고려되지 못한 것은 문화 ODA에 대한 정책담당자 및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의 인식적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 일반인들의 경우 문화 ODA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 관련 사업 및 인식도가 낮으며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짐(정정숙 외, 2013).

□ 또한, 선행연구(정정숙 외 2010; 정정숙 외, 2013)에서는 문화 ODA 사업을 일방적인 문화 수출 또는 문화침략으로 이해하는 비판적인 인식이 존재한다고 한 바 있으며, 실제로 문화의 중요성이 ODA모델에 반영되지 못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

2) 교류성 사업

□ 문화 ODA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KOICA), 문화동반자, 스포츠 국제협력(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인적교류를 통한 역량개발로 개발협력을 도모하는 사업들로서 단년도 진행 및 문화교류가 사업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 구성된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단순히 개도국과의 상호문화교류가 아닌 사회변화를 통한 빈곤퇴치와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형으로 통합 또는 연계와 중장기적인 목표 설정으로 체계적인 사업의 기획·관리가 필요함.

제 2 절 문화 ODA 개념 및 속성

1. 문화 ODA 개념 정립의 필요성

□ 한국 문화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문화 ODA 개념 정립 미흡

○ 문화 ODA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는 문화 ODA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으나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문화와 발전 논의의 흐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 문화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문화 ODA 개념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문화 ODA 사업 추진 기본 방향 및 중장기 전략 부재

○ 이와 함께 문화 ODA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소규모의 단기적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한류를 수출하듯이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수출하는 수단으로 ODA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정보람 외, 2016).

○ 한국의 방송 콘텐츠는 유교, 불교 등의 종교적 정서와 가족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시아 각지에서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하나의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기에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고 있음(정정숙 외, 2010). 문화 콘텐츠의 수출은 타 문화권에 대한 문화적 관심 제고 및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측면만 부각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한국의 ODA 계획 및 전략에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 및 문화의 기여에 대한 인식 저조

○ 2012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1) 경제, 2) 사회, 3) 행정제도・거버넌스, 4) 미래・범 분야 이슈의 4가지 분야에 대한 159개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동 ODA 모델에는 문화영역은 누락되어 있음.

○ 또한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단일의 개발계획인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여 수정된 24개 중점협력국가 대상 국가협력전략 내에 문화영역이 중점협력분야로 제시된 국가가 한 국가도 없는 상황임. 이와 같이 한국의 ODA 계획 및 전략에는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 및 문화의 기여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상황임.

[표 2-7] 한국형 ODA 모델

경제	사회	행정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71개 프로그램	52개 프로그램	10개 프로그램	26개 프로그램
• 경제정책 • 산업·에너지 • 국토건설 • 농·어업	• 보건복지 • 교육 • 인적자원 • 과학기술	• 행정 효율화 • 법제도 구축 • 부패방지	• 녹색·환경 • ICT • 여성

출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p.13

○ 또한 문화 ODA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여전히 전체 ODA 예산규모 중 문화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2016년 기준 0.6%에 불과), 개도국의 경제, 사회 및 보건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의 중요성과 한국 문화영역의 강점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12]도 한국형 문화 ODA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요구함.

2. 문화 ODA의 의의

□ ‘삶의 방식(way of life)’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개념의 근본적 확장성과 통합성으로 인해, 실천적인 한국형 문화 ODA 개념 정립을 위해서는 문화 ODA에 대한 담론과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질적인 사회 발전 및 개발 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ODA의 중요성과 영역, 역할과 이를 위한 자원투입의 확대가 예상됨.

12) 금기형. 2016. ‘우리나라 문화ODA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자료.

가. 문화 ODA의 개념

1) 문화의 개념

□ 문화는 E. B. Tylor의 복합총체(complex whole)로서의 문화개념 정의 이후 수백 가지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합의된 개념이 없이 사용되어 왔음. 다만 보편적인 문화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데에는 UN의 교육문화과학기구인 UNESCO와 문화인류학에서 정의하는 문화의 개념을 참고할 수 있음.

□ 광의의 문화 개념

- ○ 문화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삶과 사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 낸 모든 정신, 물질, 제도적인 모든 것, 혹은 그 복합적 총체를 문화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명과 가치관 및 기술생활 양식과 예술 등을 포함함.
- ○ UNESCO에서는 지식, 종교, 예술, 도덕, 법, 관습이나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광의적 개념으로서 문화로 정의하고 있음(UNESCO, “Cultural Diversity”). 또한, 2001년 UNESCO 세계문화다양성선언에서는 한 사회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들의 총체를 아우르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지칭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문화를 우리의 일상 경험, 즉 음식, 옷, 예절, 언어, 선물 풍습, 주택 구조를 비롯한 우리 일상의 다양한 차원들과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 ○ 이렇듯, 문화는 광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누리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들의 총체로 정리할 수 있음.

□ 협의의 문화 개념

- ○ 협의적인 관점에서 문화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됨.
- ○ 정치·경제·사회 분야와 구분될 수 있는 문화는 정책수단과 도구로써 문화유산, 예술, 관광, 스포츠, 여가생활 등의 영역을 지칭함. 이때 문화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문화의 영역과 예술적이고 심미적인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조합한 창조행위와 예술적 창조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 삶의 제반 양식과, 이를 고양하는 수단으로서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지칭함.
- ○ 박광무(2013)는 협의적 관점에서 문화의 개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관광, 언어, 종교, 스포츠,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문화 ODA의 개념

□ 정정숙 외(2013)는 ‘문화 영역 ODA 사업’을 “개도국(협력국) 주민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문화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여 정신적·정서적·신체적 표현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공여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정의하였음.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차용하여 문화 영역 ODA의 해석을 광의적 측면, 협의적 측면에서 설명하였음.

[표 2-8] 문화 ODA 사업의 두 가지 측면

광의적 해석	크로스커팅(cross-cutting) 이슈로서의 문화를 고려한 ODA 사업
협의적 해석	문화재 등 특정 문화 행정 영역을 다루는 ODA 사업

출처: 정정숙 외 (2013) 내용을 저자 재정리

□ 한편, OECD DAC에서는 ODA의 범위에 대한 설명에서 문화 프로그램(cultural programmes)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화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문화 역량(cultural capacities)을 발달시키는 사업일 때 ODA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제시함(OECD DAC의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의 참고).

□ 이를 종합하면,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를 증진하며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ODA 사업이며, 수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나. 문화 ODA의 필요성

□ 문화와 경제발전의 연계성

- ○ 문화경제학, 문화산업론은 문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여 왔음. 강응선(2001)은 '문화경제학의 원류와 탄생'에서 보몰(Baumol)과 보웬(Bowen)의 연구(1966)[13]를 인용하며 문화 산업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 소개함. 보몰과 보웬은 공연예술이나 창조활동을 기반한 산업은 기술혁신 등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힘든 산업이기에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수요가 늘어나도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이에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기에 소비가격이 높아져 많은 소비자들이 문화분야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짐을 설명함.
-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화산업 또는 문화사업에 대해 Baumol 등은 영리조직보다는 비영리 조직으로 경영을 하며, 공적 지원(조세 지출, 보조금 등)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림. 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 산업 또는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Baumol 등은 공연예술 산업의 예술적 성과가 높고, 사회의 위신을 높이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를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문화예술 산업에 영리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라고 규정함.
- ○ 문화유산의 경우, UNESCO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1972년)을 살펴보면 기념물, 건조군물, 유적지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역사, 예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13) 보몰과 보웬은 1966년 <무대예술: 예술과 경제의 딜레마>라는 책을 통해 무대예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이와 함께 무대예술 이외의 창조활동에 대한 분석도 진행함.

민족, 인류학적으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매기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정기문(2001)은 문화적 가치의 의미를 "집단, 사회, 지역, 국가, 종족 등의 전통과 생활, 역사, 종교, 관습 등과 관련된 가치를 내포" 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 가치는 사회적·집단적으로 평가·형성되는 가치라고 제시함. 정기문은 물론 문화유산은 시장 밖에서 평가되지만 경제적 분석을 위해 문화유산을 축적된 자본으로써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인식함.

- ○ 예술은 경제에서 외부성(externality)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외부성은 한 경제활동(소비활동 또는 생산활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칠 때 그 효과를 지칭함. 소병희(2001)는 연구에서 예술의 긍정적 외부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 첫째로 예술의 세부 분야는 상호연관성이 높아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로, 예술은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음. 세 번째로, 예술 활동의 지리적 집중은 주변 지역의 숙박업, 요식업, 관광상품 관련 상업이 활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네 번째로, 예술의 확산은 시민의 정신적 만족감과 심미안, 여가라는 무형의 외부경제를 발생시킴. 또한 예술은 가치재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외부성 이외에도 예술적 성취가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예술이라는 문화자본을 통해 디자인 등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 정기문(2001)은 문화유산 가치 평가 방법의 하나로 "경제적 효과 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평가 기법은 문화유산이 직접·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임. 이것은 주관적 가치보다는 정책적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며 문화 유산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보존 등 문화 유산에 대한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의 합으로 추정함. 또한 문화유산의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문화 유산의 존재로서 이와 관련된 부문에서 소득일 발생하는 경우를 이르는데 측정이 복잡함. 예시로는 요식업 등이 있음.

○ 이와 같이, 시장과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문화 분야의 경제활동은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산업이기에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가치재로서 적절한 시장개입이 있지 않으면 시장의 바람직한 소비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문화에 대한 지원은 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상,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보아 주목할 만한 효과로는 다른 분야에의 긍정적 파급효과로 볼 수 있음. 세계유산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의 관광활성화 프로젝트는 관광산업을 확대하여 고용이 늘어나고, 인근 숙박 및 요식업의 매출이 늘어났다는 구체적 성과가 있었음(World Bank, 2001). 독일 등의 공여기관에서는 지역 문화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프랑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 중 하나로 문화유산 리노베이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함.

○ 뿐만 아니라 문헌조사 결과 아시아 중점협력국 중 다수가 문화 분야의 발전과 함께 문화 분야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교육, 고용 등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요컨대 문화 분야 지원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개발협력이 수원국의 수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문화 분야의 개발협력은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다차원적으로 의미가 지대함.

□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성

○ 문화 분야의 발전은 단지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화자본과 인적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함.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강응선(2001)이 인용한 보몰과 보웬(1966)은 공연 예술 산업에 문화를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이 있다고 제시함. 또한 정기문(2001)은 문화 유산 보존과 보호에 대한 투자가 그 편익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문화 유산에 대한 투자를 판단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으나,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 또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서 간과하지 말 것을 제시함. 그러므로 문화지원의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심미안, 정신적 만족감 이외에도 미래세대까지 문화가치를 축적한 문화유산과 예술의 경제적 활용 또한 포함될 것임.

○ 또한,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결됨. Baumol과 Bowen(1966), 그리고 강응선(2001)이 제시한 바와 같이 문화 시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투자 또는 지원에 의지하지 않으면 소비가격이 높아지므로 고소득자에게 소비되는 경향이 큼. 즉, 저소득층이 문화를 향유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띠게 되므로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소병희(2001) 또한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의 경제적 논거 중 하나로 예술에 접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거를 제시함. 소병희는 특정 예술 향유 수요는 획득된 취향으로부터 나온다고 제시하며, 일회성 광고만으로는 예술에 대한 취향과 수요가 예술 감상으로 변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에 수요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예술 장르에 대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예술에 대한 취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제언함. 또한, 저소득층의 예술 지망생, 학생, 예술가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제시함. 즉, 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가격을 낮추어 취향 개발 및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축적된 인적 자본이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의 가치를 보존하고 추구하는 인적 개발(human development)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음.

3. 문화 ODA 개념에 대한 주요 논의

가. 광의의 개념: 범분야 접근방법으로서 ‘문화적’ ODA

1) 국제 논의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 ‘문화적’ ODA는 넓은 의미로 수원국 주민의 고유문화 및 감성과 자긍심을 존중하면서 수행하는 가치규범적 ODA 사업을 의미함.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목표 4.7에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UN General Assembly, 2015)’고 제시하고 있음.
- ○ 모든 문화와 문명이 SDG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자(crucial enabler)
- ○ 평화의 문화(culture of peace)와 문화간 이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 ○ 목표 11.4에서도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UN General Assembly, 2015)’고 제시하고 있음.
- ○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8.9, 12.b)

□ UNESCO

- ○ UN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보호하고 진흥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다양한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함.

□ World Bank

- ○ World Bank은 모든 경제·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및 양자 기구 등 다양한 현지 참여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더불어 각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World Bank, 2001).

2) 국내 논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광의적 개념의 문화 ODA 논의는 주로 수원국 문화 존중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진행되어 왔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ODA사업에 있어 기본욕구이론에서 레저, 미학적 추구, 표현적 문화 양식, 창작의 자유 등의 욕구가 물질적 욕구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욕구는 결코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으며 발전에 있어 문화의 풍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문화가 ODA사업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한 사전교육 필요

- ○ 정정숙 외(2010)에서는 어떤 분야의 ODA사업에서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기 위해 사전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가 ODA 사업 수행의 바탕에 깔려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해당연구에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를 국제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관점과 태도에 따라 개발원조 활동과 수행 국가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서 찾고 있음.
- ○ 이태주(2013, 2014, 2015)는 개발협력이 현지문화 존중 뿐 아니라 현지 시스템, 지역지식(local knowledge)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맥락을 이해하여야 하며,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포용적 발전과 지속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협의의 개념: 문화 분야 ODA 사업

□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협의적 개념으로서 문화 ODA는 좁게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 콘텐츠를 활용한 ODA 사업을 뜻함. UN SDGs에서는 목표 8.9로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목표 12.b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하는 것을 제시하였음(UN, 2015).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문화ODA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음.

□ World Bank

○ 또한, World Bank에서는 수원국의 적절한 문화유산과 문화자원에 대한 보수와 관리가 총체적(경제, 문화, 종교, 교육)인 부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음(World Bank, 2001). 1990년대부터 World Bank에서는 유형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는데, 1992년 시작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의 관광자원화 개발 프로젝트는 완료 이후 사업지역 방문인구를 배가시켜 관광과 관련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유적 및 주변 관리 인력고용 증가 등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음.

4. 문화 ODA에 대한 인식

□ 설문조사 개요

○ 본 연구는 문화 ODA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인식과 현황, 그리고 문화ODA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ODA 관련 실무자와 문화 OD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2-9] 설문조사 개요

조사목적	▪ 문화 ODA에 대한 인식 조사 ▪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조사방법	▪ 조사도구: 구조화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조사형태: 표준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Monkey Survey)
조사기간	2017년 4월 28일 ~ 2017년 5월 11일 (2주)
조사대상	다음 집단 중 연락처를 확보한 인원 111명 대상 조사 ▪ 문화 ODA 및 한국 ODA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시행기관 담당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 실무자 ▪ 문화 분야 ODA 전문가
응답률	전체 111명 중 전체 응답 완료자 총 31명(28%)

구분	설문인원 (명)	응답인원 (명)	응답률
문체부 및 한예종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	23	6	26%
문체부 ODA 사업 시행기관 담당자	8	4	50%
KOICA 소속 실무자	29	7	24%
문화 분야 ODA 전문가	51	14	27%
합계	**111**	**31**	**28%**

[표 2-10] 조사 항목

구분	조사항목
문화 ODA에 대한 인식	▪ 문화 ODA에 대한 인지 여부 ▪ 한국의 문화 ODA 지원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사유
문화 ODA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한국의 강점·약점·기회요소·위협요소
문화ODA의 전략적 방향성	▪ 한국의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원칙 ▪ 한국 문화 ODA의 대표 사업아이템(안)
문화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정책·사업 수행체계·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에서 문화 ODA의 효과성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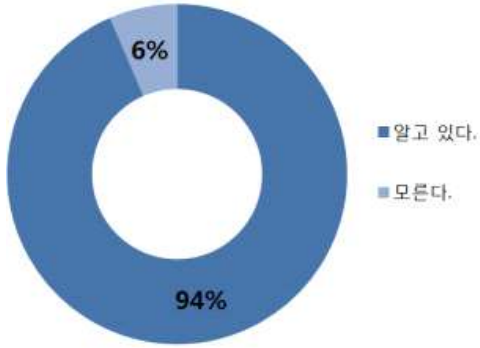
가. 문화 ODA 인지 정도

□ 문화 ODA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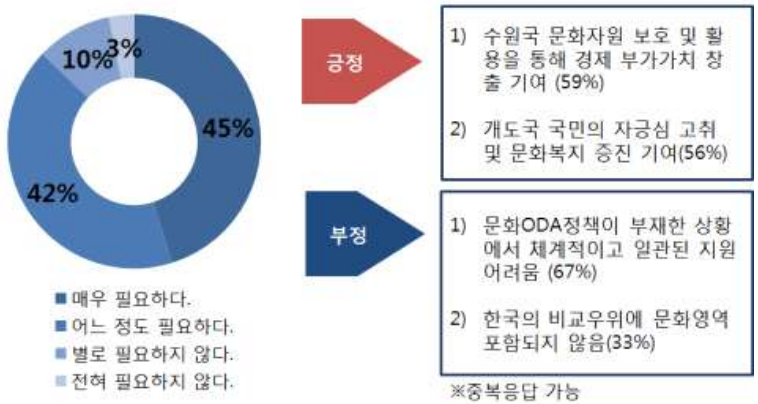
○ 문화 ODA에 대해서는 약 94%가 알고 있다고 답해 문화 ODA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문화 ODA 지원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87%로, 부정적으로 응답한(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3%보다 월등히 높았음. 긍정 응답자의 경우 다수의 응답자가 한국의 문화 ODA 지원 중요성의 이유를 '수원국 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통해 경제 부가가치 창출 기여'(59%)와 '개도국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복지 증진 기여'(56%)로 답하였음. 부정 응답자의 경우 '문화ODA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의 어려움'(67%)과 '한국의 비교우위에 문화영역이 포함되지 않음'(33%)을 이유로 선택함. (중요성 사유 문항 중복 응답 가능)

[그림 2-1] 문화 ODA 인식 여부 설문 결과



[그림 2-2]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의 문화 ODA 지원 중요성 설문 결과



나. 문화 ODA의 강점, 약점, 기회, 위기

□ 문화 ODA 강점

○ 문화 ODA 강점으로는 선행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기를 제시하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① 정부의 문화 ODA 관련 정책적 추진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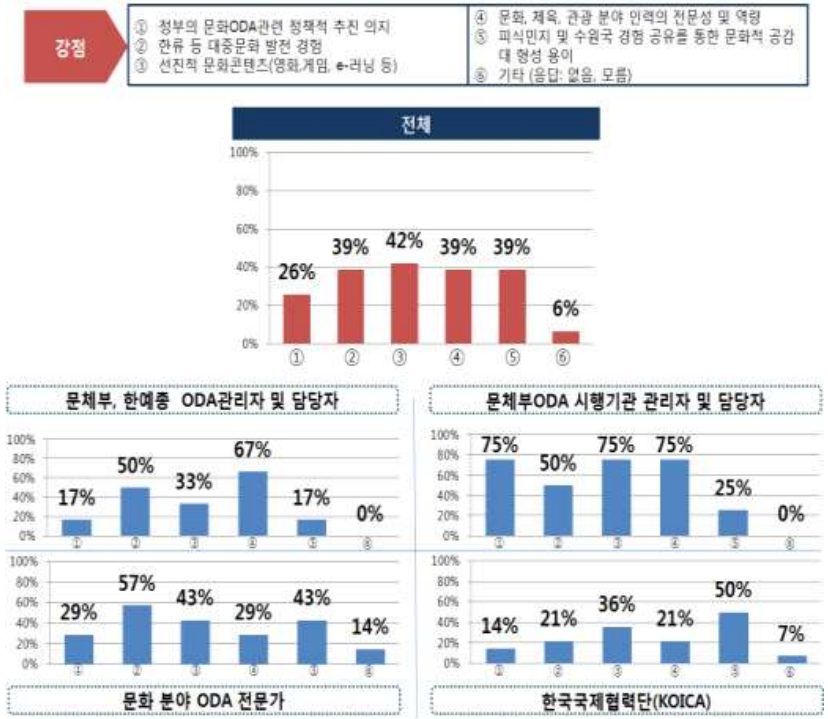
② 한류 등 대중문화 발전 경험

③ 선진적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e-러닝 등)
④ 문화, 체육, 관공 분야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⑤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⑥ 기타 (응답없음, 모름 등)

○ 설문조사 결과, '선진적 문화콘텐츠' (42%), '한류 등 대중문화 발전 경험' (39%),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39%),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39%)를 문화 ODA에 대한 한국의 강점으로 인식함을 확인함.

○ 강점에 대한 인식은 설문 대상 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의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과 '한류 등 대중문화 발전 경험' 을 한국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시행기관 담당자의 경우 '정부의 문화ODA 관련 정책적 추진 의지' 와 '선진적 문화콘텐츠' ,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을 주요 강점이라고 응답함. 문화 분야 정부기관에 소속된 ODA 관리자 및 실무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강점으로 보았으나, 외부 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인력의 전문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를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실무자들은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와 '선진적 문화콘텐츠' 를 한국의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음 . 문화 분야 ODA 전문가의 경우 또한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를 한국의 강점으로 보고 있었으나, '한류 등 대중문화 발전 경험' 을 더 중요한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선진적 문화콘텐츠' 또한 강점으로 제시하였음.

[그림 2-3] 한국의 문화 ODA 강점 설문조사 결과



□ 문화 ODA 약점

○ 선행연구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점을 제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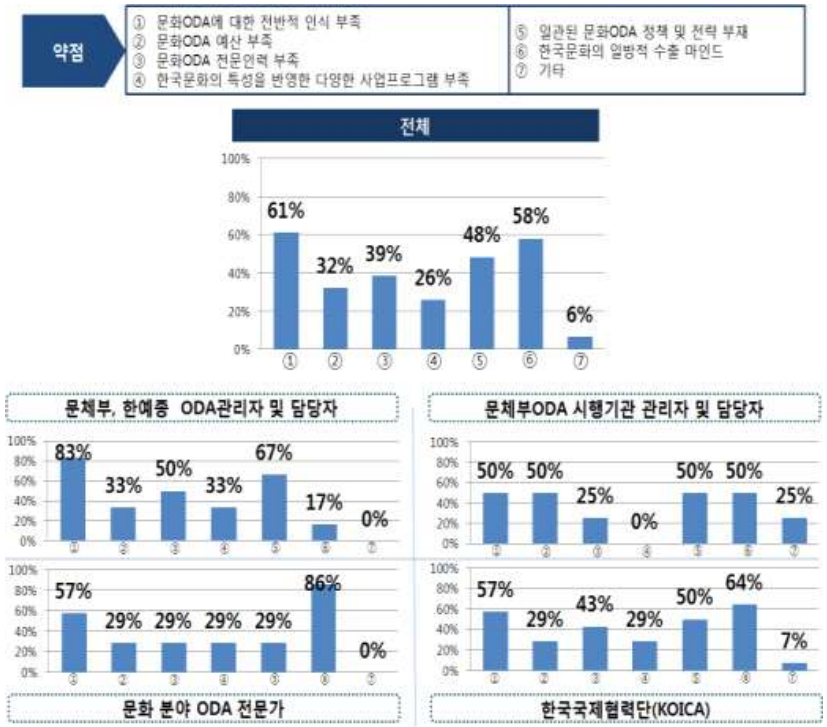
①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② 문화 ODA 예산 부족
③ 문화 ODA 전문인력 부족
④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부족
⑤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
⑥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
⑦ 기타

○ 응답자들은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61%)을 가장 큰 약점으로 나타나 인식 부족이 여전히 약점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58%)와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48%) 또한 약점으로 인식됨을 확인함.

○ 약점에 대한 인식 또한 설문

○ 대상 그룹에 따라 분석할 수 있었음. 문화 분야 정부기관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을 약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세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는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83%)을 가장 큰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순서대로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67%), 그리고 '문화 ODA 전문인력 부족'(50%)을 약점이라고 응답함.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 시행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는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문화 ODA 예산 부족',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동 50%)를 한국문화 ODA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 분야 ODA 전문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같이 문화 분야 정부기관 소속이 아닌 ODA 전문가는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를 가장 큰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문화 분야 ODA 전문가의 경우 순서대로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86%)와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57%)을 약점이라고 응답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무자의 경우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 마인드'(64%),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57%),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50%)가 약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음.

[그림 2-4] 한국의 문화 ODA 약점 설문조사 결과



□ 문화 ODA 기회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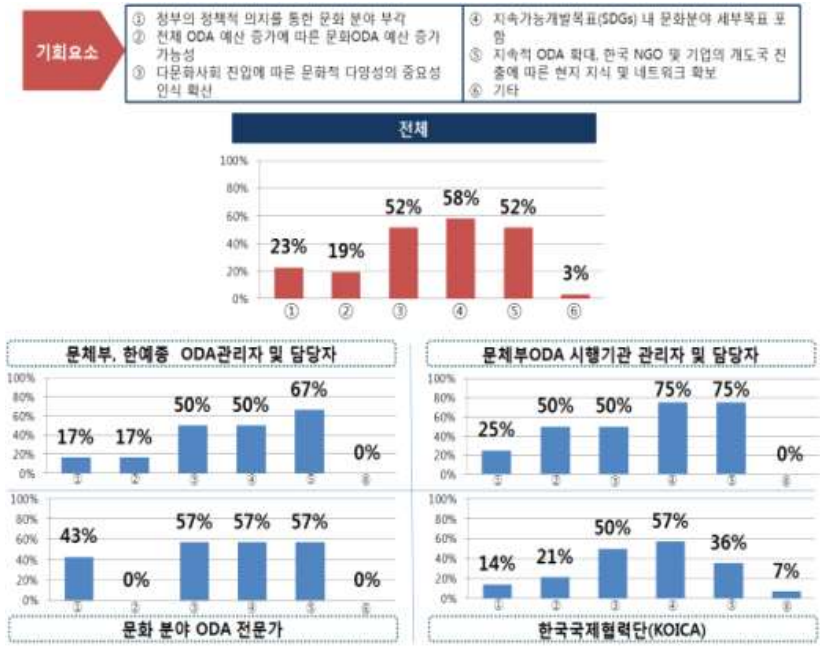
○ 문헌조사를 통해 기회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함.

①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통한 문화 분야 부각
② 전체 ODA 예산 증가에 따른 문화 ODA 예산 증가 가능성
③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
④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
⑤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따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
⑥ 기타

○ 외부 기회요소에 대하여 응답자의 58%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을 기회요소로 선택하였음. 더불어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따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동 52%)가 한국 문화 ODA의 기회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함.

○ 기회요소에 대한 인식을 설문 대상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지속가능개발목표 측면을 제외하면 문화 분야 정부기관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따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를 기회요소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외부 기관 소속 ODA 전문가의 경우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을 기회요소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의 ODA 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경우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따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67%)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고,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동 50%)이 기회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함.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의 시행기관 관리자와 담당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과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다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동 75%)를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문화 분야 ODA 전문가는 약 57%가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 그리고 ‘지속적 ODA 확대, 한국 NGO 및 기업의 개도국 진출에 따른 현지 지식 및 네트워크 확보’를 한국의 문화 ODA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꼽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무자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내 문화 분야 세부목표 포함’(57%),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50%)를 기회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2-5] 한국의 문화 ODA 기회요소 설문조사 결과



□ 문화 ODA 위협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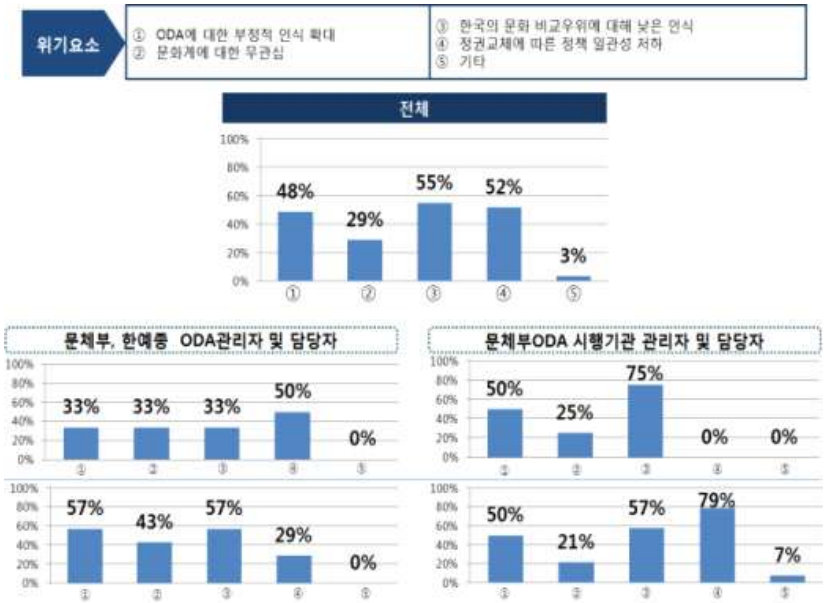
○ 위협요소는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①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② 문화계에 대한 무관심
③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한 낮은 인식
④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저하
⑤ 기타

○ 외부 위기요소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순서대로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한 낮은 인식’(55%)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저하’(52%),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48%)가 한국 문화 ODA의 위협요소로 인식됨을 확인함.

○ 위기요소에 대한 인식을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ODA 사업 관리자, 담당자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저하'(50%)를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ODA 사업 시행기관 관리자와 담당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한 낮은 인식'(75%)과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50%)가 위기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문화 분야 ODA 전문가의 경우 또한 시행기관 관리자와 담당자와 유사하게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한 낮은 인식'과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57%)가 높게 나타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무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의 ODA 사업 관리자와 담당자와 유사하게 '정책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저하'(79%)를 한국 문화 ODA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꼽았으며, '한국의 문화 비교우위에 대해 낮은 인식'(57%)과 'OD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50%) 또한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2-6] 한국의 문화 ODA 위기요소 설문조사 결과



다.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

□ 한국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원칙

○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순위를 매기도록 하여 어떤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확인함.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된 원칙은 '존중성'으로, 수원국 주민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ODA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또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은 원칙은 '포용성'으로, 소외되고 주변화 된 수원국 주민과 계층까지 모두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은 '정체성'으로,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유의미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나타냄.

[표 2-11] 한국 문화 ODA 수행 시 중요한 원칙

1	**[존중성]** 수원국 주민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포용성]** 소외되고 주변화된 수원국의 주민과 계층을 포섭하여 문화권 보장
3	**[정체성]**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 형성
4	**[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
5	**[창의성]** 수원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표현을 장려함으로써 창의력 증진

□ 한국 문화 ODA 대표 사업 아이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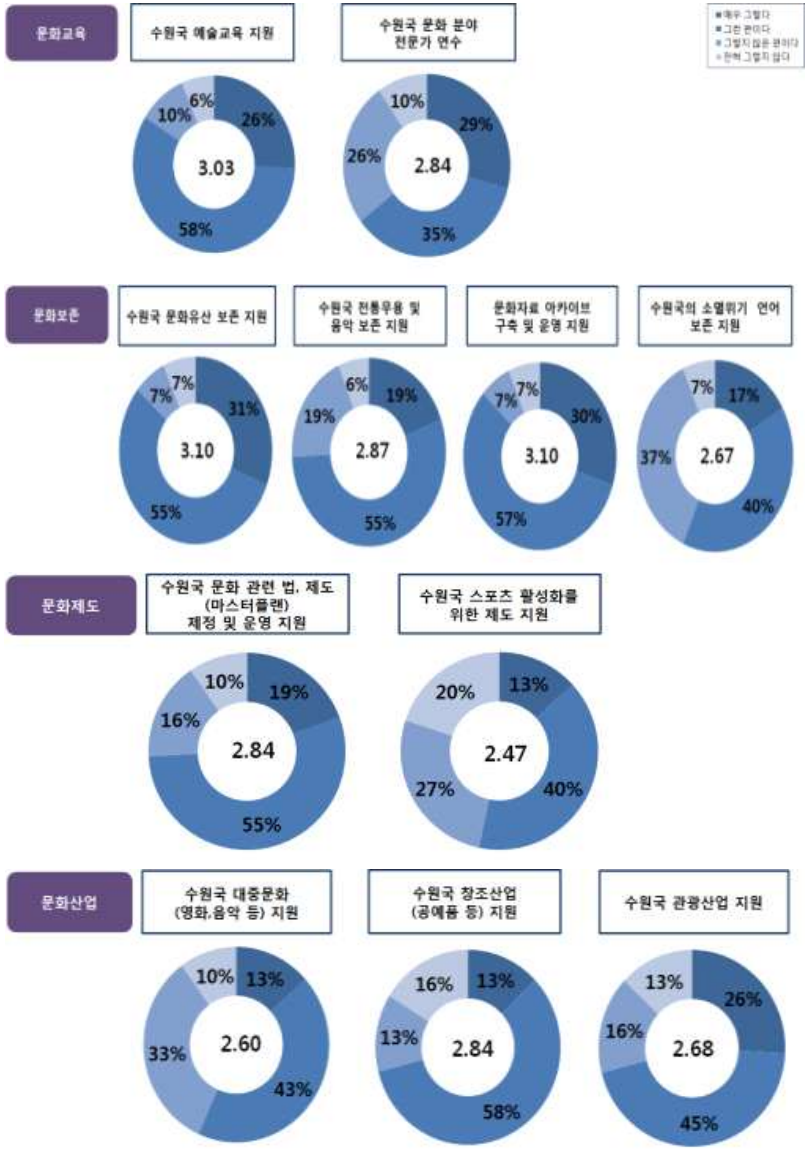
○ 기존 ODA 사업 유형을 문화교육, 문화보존, 문화제도, 문화산업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각각의 분류에서 한국 문화 ODA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함.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분류에 2~4개의 유형을 제시함.

○ 문화교육으로는 '수원국 예술교육 지원'과 '수원국 문화 분야 전문가 연수'를 제시하였으며, 각각 4점 만점에 3.03점, 2.84점을 얻

음. 문화보존으로는 '수원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수원국 전통 무용 및 음악 보존 지원', '문화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지원', '수원국의 소멸위기 언어 보존 지원'을 분류함. 조사 결과 각각 3.10점, 2.87점, 3.10점, 2.67점으로 나타남. 문화제도에서는 '수원국 문화 관련 법, 제도(마스터플랜) 제정 및 운영 지원'과 '수원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지원'을 제시하였고, 각각 2.84점, 2.47점으로 나타남. 문화산업 분류에서는 수원국 대중문화(영화, 음악 등) 지원, 수원국 창조산업(공예품 등) 지원, 수원국 관광산업 지원으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각각 2.60점, 2.84점, 2.68점을 얻음.

○ 종합적으로 4점 만점에서 3점 이상 점수를 얻은 사업아이템은 문화교육 분류의 '수원국 예술교육 지원'과 문화보존 분류 내 '수원국 문화유산 보존 지원', '문화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지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위의 세 유형을 한국의 문화 ODA의 대표 사업아이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2-7] 한국 문화 ODA 대표 사업아이템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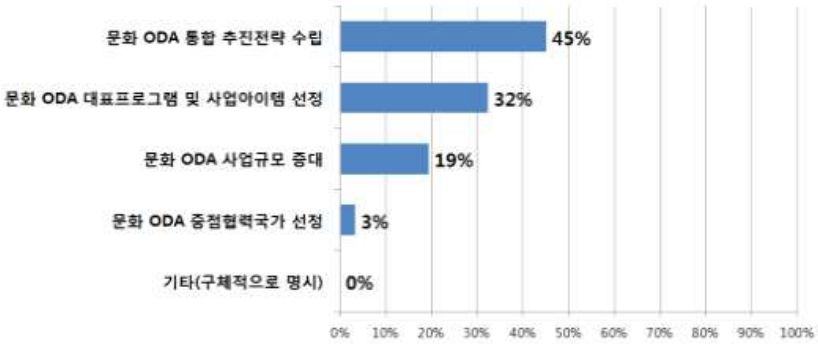


라.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정책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함. '문화 ODA 통합 추진전략 수립', '문화 ODA 대표프로그램 및 사업아이템 선정', '문화 ODA 사업규모 증대',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과 '기타'를 선택지로 제시하였으며, 단일응답만 할 수 있도록 함. 그 결과 '문화ODA 통합 추진전략 수립'(45%)과 '문화 ODA 대표프로그램 및 사업아이템 선정'(32%)이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요한 방안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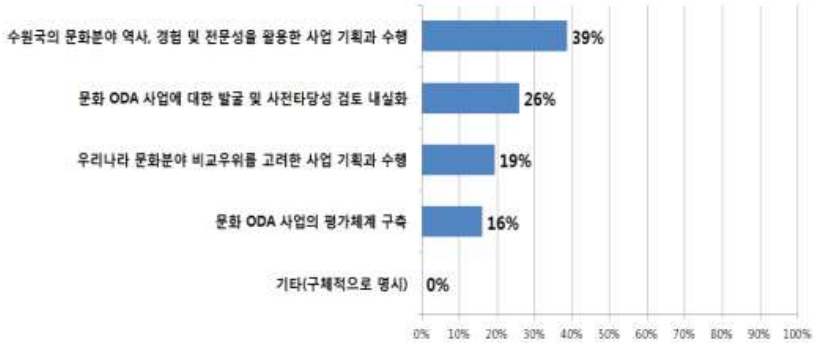
[그림 2-8] 정책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 수행체계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 한국의 문화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행체계 측면 필요사항에 대하여 단일응답 형식으로 의견을 조사함. '수원국의 문화분야 역사,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기획과 수행', '문화 ODA 사업에 대한 말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내실화', '우리나라 문화분야 비교우위를 고려한 사업 기획과 수행', '문화 ODA 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기타'를 선택지로 제시하였음.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수원국의 문화분야 역사,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기획과 수행'(39%)과 '문화 ODA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내실화'(26%)를 중요 방안으로 인식함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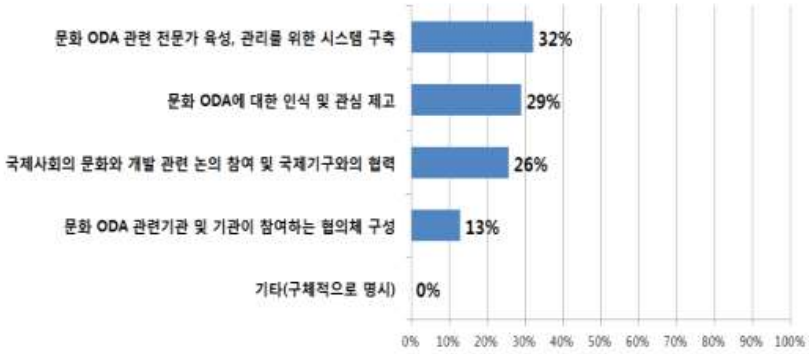
[그림 2-9] 수행체계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 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 사업 추진과 관련된 환경적 측면에서 문화 ODA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단일응답 방식으로 의견을 조사함. '문화 ODA 관련 전문가 육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문화 ODA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제고', '국제사회의 문화와 개발 관련 논의 참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문화 ODA 관련기관 및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기타'를 선택지로 제시하였음. 이에 응답자들은 '문화 ODA 관련 전문가 육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32%)과 '문화 ODA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제고'(29%)가 문화 ODA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그림 2-10] 사업 추진 제반환경 측면 문화 ODA 효과성 제고 방안 설문조사 결과



제 3 장 한국의 문화분야 비교우위 분석 및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제 1 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및 분석 프레임워크

□ 한국 문화분야의 비교우위 분석을 위해 공급자 측면에서 국내 문화산업계 각 분야의 정책 및 인적, 물적자원과 수요자 측면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부합성 및 수원국의 수요를 개괄적으로 분석함.

○ 국내 문화산업계 세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현황조사 결과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중장기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증거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며, 문화 ODA 전략과 연관성을 갖는 국내 문화정책 일반에 대한 조사 또한 분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 ODA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1. 분석영역

가. 분석기준

□ 한국의 문화분야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을 제시하기 위해 정우진(2010)의 연구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에서 한국형 ODA모델 선정을 위해 활용한 분석틀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 특히 동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특화된 원조를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세 가지 측면인 1)공급, 2)과정, 3)수요적 측면에서 한국 문화영역의 비교우위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공급 측면**: 공여국으로서 어떠한 ODA를 제공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공급 측면은 문화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문화ODA 지원 규모 상위 공여국의 지원이 미흡한 분야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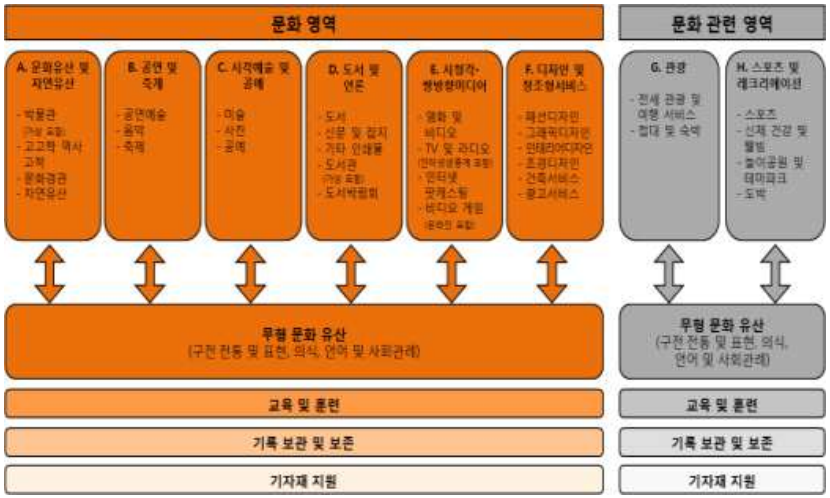
고려하며, 각 문화영역에 대한 성과가 입증된 ODA 지원 경험이 있어야 함(정우진, 2010).

- ○ **과정 측면**: 또한 어떠한 형태로 ODA를 지원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원조제공 방식은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 형태의 접근 방법을 따를 필요성이 있음.
- ○ **수요 측면**: 어디에 ODA를 지원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수요적 측면에서는 수원국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부합하여야 함.

□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타 공여국과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문화영역 전반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는 프로그램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음.

- ○ 한국의 문화산업계 전반에 대한 비교우위 분석은 문화영역을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함. 본 연구에서는 2009년 UNESCO가 문화 및 문화관련 영역에 대한 분류체계로서 제시한 문화지표 체계(FCS,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를 차용하였음.

[그림 3-1] UNESCO의 문화분류 체계



출처: UNESCO (2009); 정정숙 외 (2013)

□ 분석 프레임워크의 열은 공급적 측면의 선정기준으로 1)한국적 경험, 2)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3)기존 ODA사업 여부로 구성되었음. 이와 함께 수요적 측면의 선정기준으로 1)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부합성, 2)수원국 수요로 구성되었음. 분석 프레임워크의 행은 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음. 분석의 결과는 3점 척도 방법으로 계량화하여 점수화하였음(자세한 점수기준은 '나. 점수부여 기준' 참고 바람). 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부합성 부분은 2점 척도 방법을 활용하였음.

1) 공급자측면

□ 공급자 측면에서는 문화산업계 분야별 한국적 경험,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및 기존 ODA사업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 한국적 경험: 국내 문화산업계 각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을 정책, 인프라, 인적 역량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검토
- ○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타 공여국의 지원이 미흡하여 한국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영역 확인
- ○ 기존 ODA 사업 진행 여부: 기존의 ODA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보유한 문화영역 확인

가) 한국적 경험

□ UNESCO 문화영역 분류 체계에 따라 한국 문화산업계를 총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에 대한 발전경험 및 특징을 정책, 인프라, 인적 역량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음.

- ○ 주안점: 각 문화영역별 한국의 발전경험을 정책(법률/제도), 인프라(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인력양성 시스템) 세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였음.
- ○ 방법: 세 영역에 대한 한국적 경험은 각 문화영역에 대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문서, 각종 보도자료, 문화ODA 시행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표 3-1] 한국적 경험 분석의 예시

분류 기준 \ 분류 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문화재보호제도(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14] ○ 문화재보호제도: '61년 10월 문화재관리전담기구로서 문화재관리국을 발족시키고, '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음. 특히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왔음(문화재청, 2012). - 문화재보호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등록문화재제도 도입 - 문화재보호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국민신탁법 제정 -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재정 하에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반예산 외 별도 재원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 고도의 보존을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 - 문화재수리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제도의 별도 법률화 추진 등 ○ 특히,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등은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재 보호제도로 성장하며 발전되어 왔음. -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는 국가공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를 전담하는 제도로, 문화재수리공사 기술수준의 향상과 전통기술 보존에 이바지('70년 8월 도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는 국가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집중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이수자 양산 및 전수조교 확보하는 제도로 '82년 12월 도입 -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	□ 문화기반시설 지속 증가 ○ '15년 전국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각각 780관, 202관으로 '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박물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e-나라지표).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한 기관 설립[16] ○ 동래야주, 양주별산대놀이, 통영무형문화재 등의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보유자에게는 원형보존의 장으로, 전승자에게는 전승교육의 도장으로, 일반인에게는 사회교육관으로서 사용 ○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공식기관으로 지정받음.'05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발효 후 협약 당사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위한 국제기구로서 협약 이행을 증진하고 비협약 국가들의 협약 가입을 장려[17]. □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구축[18] ○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성 확대 목적 ○ 박물관 소장품 통합 DB구축을 위해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에 통합 서버와 스토리지 증설하고, 참여기관이 접속하여 소장품 DB 구축, 관리. 2016년 4월 기준, 총 278개 박물관이 표준관리 시스템 사용 중 □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센터 운영 ○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보존과학센터	□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70년 8월 도입)[19]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전담제도로, 표준화된 문화재수리 전문가 양산 ○ 동 제도 운영으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문화재수리지침) 및 문화재표준품셈(문화재수리공사비 산정기준) 발전 ○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을 위한 정규대학과정은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유일('00년 2월 개교) ○ '16년 기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은 각각 1,794명, 8,157명임.[20] □ 문화재 관리 실무인 현장관리 조직 및 인력 부족 ○ 문화재청 및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현장 관리 조직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부족 □ 매장문화재조사 교육과정 운영 ○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중인 전문인력 및 대학(원)생,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 관계자 등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문화재 발굴, 수리, 보존 등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한 인력 양성 ○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도모하는 민간협력활동 ○ 또한, 문화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5개년 기본계획인 '문화유산 2011'('07-'11),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12-'16)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5년에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17-'21)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문화재청, 2015).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 '62년 제정된「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정책을 담고 있음. □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를 고려한 관련 법률 제정 ○ '문화향수실태조사'('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55.2%로 '12년 45.3%와 비교하여 9.9% 증가 ○ 문화기본법('13.12 제정), 지역문화진흥법('14.1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5 제정) 등 국민의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률 제정	운영(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가능한 최첨단 장비 및 시설 활용)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정보화 정책 추진[15)] ○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06년부터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진행 ○ '국가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수립('00년) ○ '국가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을 근거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나)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 28개 OECD DAC 회원국 중 2015년 기준 문화여가 분야 ODA사업 규모 상위 5개국인 프랑스, 독일, 한국, 스페인, 일본 중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주안점: 8개 문화영역에 대해 4개 공여국이 수립한 정책(또는 전략)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례를 검토하였음.

○ 방법: 공여국의 정책(또는 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례는 각 국의 개도국 대상 문화분야 협력전략 계획과 각 국의 원조전담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14)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15) 안재홍, 김충식(2016). 디지털유산, 문화유산의 3차원 기록과 활용.
16)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17) 이선영(2013). 문화융성시대의 ODA 발전방향과 문화 ODA의 필요성. 문화ODA 개념 및 한국의 문화 ODA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1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4.26.)
19)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20) e-나라지표

[표 3-2]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분석 예시

분류기준 \ 분류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 (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정책일반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 7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룸. ○ 문화생활, 표현의 자유, 동등한 기회, 문화유산 및 저작권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관련 법률/집행 연구를 독려 ○ 문화적 권리 관련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을 강화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다음 사항에서 문화협력 지원. - (지중해 수질보존과 관련) 자연자원(수자원, 연해지역 중심)의 관리와 문화유적 보존 지원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를 통해 문화 관련 활동 기자재 제공 및 시설 건립/재건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5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1) 보존, 복원, 재평가 부문의 기존 프로세스 지원 2) 재난 및 갈등 영향지역의 긴급 문화자원 보존 지원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다음 사항에서 문화협력 지원. 1) 불어 교육 2) (지중해 수질보존과 관련) 대학 및 문화 협력, 순환이동을 통한 인적 개발 지원 <일본> • 일본에서는 펀드 하위 프로그램과 부처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문화자원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함. 1)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일본의 신탁 기금(UNESCO)를 통해 문화유산 복구 및 보존 분야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 2)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에서 청년 활동가 초청연수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1 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자주권(autonomy)를 존중하면서 문화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를 양성·발전시키는 프로세스 육성/추진
		사업사례	• (UNESCO-미얀마) 미얀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Capacity-building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2012/13) - 제도적 측면에서 보존, 관리 역량 강화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 파차카막(Pachacamac) 고고학 보존 시설 개선 사업 및 부지 내 박물관 교육 (1억5천만 엔) [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 (일본) 아태지역 문화유산보호 청년 전문가 초청 연수 (문부과학성) • (UNESCO-미얀마) 미얀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Capacity-building for

				Project] 몽골 국립 박물관 소장품 보존 장비 개선 사업 <UNESCO>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GIS 도입 <독일> □ 말리 Land of the Dogons Dogon 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어려우며, 관광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임. Dogon의 생활문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GIZ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지역 박물관 설립(set-up)과 고대 공예예술 및 직조기술 등의 복원을 지원함.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2012/13) - 보존, 관리 역량 육성

다) 기존 ODA사업 수행 여부

□ 문화 ODA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외교부(KOICA), 문화재청, 기획재정부(EDCF)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각 부처는 기관의 비전, 성격,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함. 한국 문화의 비교우위를 분석할 때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해당 문화영역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및 간접적으로 수원국의 수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써 중요함.

○ 주안점: 기존 ODA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8개의 세부 영역에 배치한 후 분석을 실시함.

○ 방법: 독립적인 외부평가 혹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현행 문화ODA 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개괄적으로 다룬 일부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여 기존 ODA사업을 검토하였음.

[표 3-3] 기존 ODA사업 예시

분류기준 \ 분류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 (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 측면	기존 ODA 사업 수행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의 문화재 보존·전시를 위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 (2013) ○ 유물 분류체계 마련 및 등록, 보존 처리 등 박물관내 유물관리 체계 구축 및 필요시 운영인력 교육 실시 □ KOICA '캄보디아 시에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2005-2006, 2008-2009, 2010-2012) [21] ○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여 훼손이 있는 바, 이를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 □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22] □ 문화재청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신탁기금' [23] □ 문화재청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의무분담금' [24] □ 문화재청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외교부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25] □ 외교부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역량강화사업' [26] □ KOICA '이집트 문화재청 유물전산화 사업' (2007-2009) [27] ○ 문화유물 등록, 보전 및 보호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센터 구축. □ KOICA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2010-2011) [28] ○ 문화 역사 자료에 대한 DB 기반 마련, 사료 보존 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2) 수요자측면

□ 수요자 측면에서는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완료 후 국제사회의 개발목표로 합의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부합성, 수원국의 관련 문화영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부합성

21) 박열한, 김상현(2015).
22) 이혜은, 최희수(2015).
23) 이혜은, 최희수(2015).
24) 이혜은, 최희수(2015).
25) 이혜은, 최희수(2015).
26) 이혜은, 최희수(2015).
27) 박열한, 김상현(2015).
28) 박열한, 김상현(2015).

□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완료에 따라 UN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2016년-2030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상위 규범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문화ODA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원조 목적에 일치되는 사업지원이 필요함.

○ 주안점: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서 문화 및 관광 분야를 직접적인 이행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방법: 넓게 보면 문화영역 관련 프로그램은 SDGs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다른 분석기준 항목과 달리 2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하였음.

[표 3-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문화 분야 이행목표

목표	내용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의 확대,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지역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정책을 수립·집행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강화
12.b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상품을 진흥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 관광의 지속가능한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

출처: 정보람 외(2016); UN (2015)

나) 수원국 수요

□ ODA사업은 수원국의 수요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를 적극 고려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주안점: 수원국의 수요는 한국의 아시아 중점협력국가 중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5개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 방법: 상기의 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 개도국 개발협력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의 문화영역 수요를 확인하고 수원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개발계획 및 문화분야 개발계획을 검토하였음. 또한 각 국의 문화관련 부처 홈페이지 및 UNESCO 등 국제기구 자료도 참고하였음.

[표 3-5] 수원국 수요 분석 예시

분류기준 \ 분류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 (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수요자 측면	수원국 수요 (발전계획)	<베트남>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전략 2011-2020의 전략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물질·문화 환경 구축을 언급하고 있음. 이 전략의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들의 공동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차세대를 위한 지식·물질·문화적 바탕을 축적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학습사회(learning society), 친환경적 생활모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고자 함. <미얀마> □ 2016년 7월 경제정책 기조연설에서 '고유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확대'를 제시하였음. □ 또한, 문화부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은 현재 수립 단계임. □ UNESCO World Heritage 등록과 관련되어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국가 지속발전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관련 문화분야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함. - 미얀마 문화 및 전통 보존/보호 - 문화유산 보존/보호	<베트남> □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면서 문화·문학·예술 활동에서의 창의성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문화유산과 베트남 공동체 가치의 보존 및 홍보, 인종·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책집행과 종교·신념의 자유 존중 <인도네시아>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개발 관련하여, 역사-고고학센터를 건립하여 유물 보전과 복원, 국립 및 사립 박물관의 지원으로 유물보관 상태 개선, 유물 구매 및 확보, 도서관 개발. □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특생을 띠는 문화 아이템 개발 및 지원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 다양한 문화를 평가, 발굴.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는 '사회조직 강화(enhancing the social fabric'가 주요 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 및 가치 진흥이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다양한 문화 존중(our diverse culture valued)	<인도네시아> □ 민족의 정체성과 기질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향상 2010-2014에서 다음 문화적 가치와, 예술·영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제시함. 다음은 세부활동내역임. - 문화·예술·영화 실무자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초교육 커리큘럼 개설 □ 또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국립·사립 박물관의 지원으로 인력교육을 실시함.

		□ 또한, 사회발전과 관광 부문 아래에서도 문화·자연유산 관련 정책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문화와 전통을 재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보호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는 '사회조직 강화(enhancing the social fabric)'가 주요 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 및 가치 진흥이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다양한 문화 존중(our diverse culture valued) - 유형문화유산 보존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서는 문화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비준 - 국가 문화유산 보전과 보호 강화 - 문화부 설립 - 필리핀 문화유산보존 연구소 설립 - 필리핀 국립박물관 법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불교, 토착문화 보존 및 장려' 는 불교사원을 통한 문화 강화 및 확대, 크메르 예술품 반환 요청 등 정책 부문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 자료 개발 (재외 국민 포함) - 전통 문화를 위한 지식개발센터 및 학교 설립 - 문화 인프라 및 시설 설립 (예: 박물관, 문화센터, 도서관, 갤러리 등) <캄보디아> □ 국가 전략적개발계획 2014-2018의 다음 항에서 문화 관련 개발계획을(Fifth Legislature 관련)을 찾을 수 있음. **4장: 2014-2018 중요 정책우선순위 및 사업** **4. 물리적 인프라 개발** **Ⅳ. 정보통신기술 향상** -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은 세계무대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긍지를 높이고자 문화와 전통을 보존·진흥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우선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세부사항 중 다음 두 사항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기록 및 목록화 - 문화센터 체계구축 및 활성화	

나. 점수부여 기준

□ 상기의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수집한 자료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점수부여 방법에 따라 계량화하여 점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단. 이와 같이 문화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결과를 점수로 제시하는 방법은, 정보의 부족 및 불균형으로 인한 오류와 더불어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한계사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영역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점수부여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표 3-6]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을 위한 점수기준표

구분	기준	점수
한국적 경험		
정책 수립	해당 문화영역에 법령 및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문화영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해당 문화영역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인프라 구축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경우	3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2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
인적 역량	국가수준의 자격제도가 있는 경우	3
	학위과정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2
	인력양성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정책 수립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사례가 없는 경우	3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관련 사업 사례가 없는 경우	2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 사례가 있는 경우	1
인프라 구축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사례가 없는 경우	3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관련 사업 사례가 없는 경우	2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 사례가 있는 경우	1

인적 역량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사례가 없는 경우	3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은 있으나, 관련 사업 사례가 없는 경우	2
	해당 영역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사업 사례가 있는 경우	1
기존 ODA사업		
정책 수립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제도 자문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3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제도 자문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1개인 경우	2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제도 자문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1
인프라 구축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3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1개인 경우	2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1
인적 역량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역량 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	3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역량 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한 기관의 수가 1개인 경우	2
	기존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역량 개발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1
SDG와의 부합성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SDG의 목표/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2
	SDG의 목표/세부목표와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	1
수원국 수요		
정책 수립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 수립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3개국(우선검토국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3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 수립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1~2개국인 경우	2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 등에서 해당 문화영역의 정책 수립 수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인프라 구축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3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3개국(우선검토국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프라 구축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1~2개국인 경우	2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 등에서 해당 문화영역의 인프라 구축 수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인적 역량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 역량 개발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3개국(우선검토국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3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에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 역량 개발 관련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가 1~2개국인 경우	2
	문화에 대한 수원국의 발전계획 등에서 해당 문화영역의 인적 역량 개발 수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

제 2 절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결과

1. 영역별 분석점수화 결과

□ 본 연구팀이 UNESCO 문화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1)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2)공연 및 축제, 3)시각예술 및 공예, 4)도서 및 언론, 5)시청각 쌍방향미디어, 6)디자인 및 창조형 서비스, 7)관광, 8)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단, 세부 분야별 자료의 유무에 따라서 분석 내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었음.

[표 3-7] 한국의 문화영역 비교우위 분석 결과

분류 기준 \ 분류 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공연 및 축제			시각예술/공예			도서/언론			시청각/쌍방향자료			디자인			관광			스포츠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공급자 측면	한국적 경험	3	3	3	3	3	3	3	2	3	3	3	3	3	3	3	3	2	3	3	2	3	3	3	3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1	1	1	3	1	1	3	1	1	3	2	2	3	1	2	3	3	3	1	1	2	3	1	2
	기존 ODA 사업 여부	2	3	3	1	2	3	2	2	3	1	3	2	2	2	2	2	1	1	3	3	3	1	3	3
수요자 측면	SDG와의 부합성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1	1	1
	수원국 수요	3	3	2	1	2	3	1	2	2	2	2	2	2	2	2	1	1	1	2	3	2	1	2	1
합계		11	12	11	9	9	11	10	8	10	10	11	10	11	9	10	10	8	9	11	11	12	9	10	10

□ 8개 문화영역의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부분의 총점 기준으로 상위 5개 영역은 문화/자연유산, 관광, 도서/언론, 공연/축제, 스포츠 분야인 것으로 확인됨.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연계형(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개발)의 문화 ODA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문화/자연유산 부문과 관광 부문 관련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표 3-8] 공급 및 수요측면 합계 기준 상위 5개 영역

문화영역	점수
문화 및 자연유산	34
관광	34
도서 및 언론	31
공연/축제	29
스포츠	29

□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부분을 공급적 측면에서만 확인한 결과 시각예술/공예, 시청각/쌍방향서비스, 디자인 분야의 정책 수립과 도서/언론 분야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광 및 스포츠 분야 인적 역량 강화 순으로 높은 점수가 도출되어 이에 대한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강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9] 지원 형태별 공급 측면 비교우위

문화영역	지원 형태	점수
시각예술/공예	정책 수립	8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정책 수립	8
디자인	정책 수립	8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8
관광	인적 역량 강화	8
스포츠	인적 역량 강화	8

□ 수원국의 수요가 높은 영역은 문화/자연유산 분야 정책수립, 문화/자연유산 및 관광 분야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연/축제 분야 인적 역량

강화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3-10] 수요 측면 비교우위(수원국 수요)

문화영역	지원 형태	점수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3
문화/자연유산	인프라 구축	3
관광	인프라 구축	3
공연/축제	인적 역량 강화	3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면서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자 측면을 총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문화/자연유산 및 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강화와 공연/축제 분야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3-11] 수요 측면 비교우위(SDGs 부합성 및 수원국 수요)

구분	내용	점수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5
문화/자연유산	인프라 구축	5
관광	정책 수립	5

2. 한국형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가.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 선정 기준

□ 한국의 문화영역을 공급, 과정, 수요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총점 기준으로 11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영역은 문화/자연유산, 공연/축제, 도서/언론, 시청각/쌍방향서비스, 및 관광 부문으로 확인됨. 아래에서는 한국 문화의 비교우위 영역으로 도출된 5개 영역별로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음.

나.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29]

[표 3-12]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

문화 영역		프로그램(안)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문화유산 보호제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인프라 구축	문화유적 보존 및 보수 지원 사업	①
		문화유적 주변 박물관 건립 사업	②
	인적역량	문화유산 기술자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보수 역량강화 사업	
공연/축제	인적역량	수원국 전통문화 예술인재 양성 사업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①
		국립도서관 디지털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사업	②
		문해교육을 위한 이동도서관 사업	③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정책 수립	수원국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인프라 구축	문화시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관광	정책 수립	수원국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인프라 구축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코 투어리즘, 도시재생, 전통마을 보존 등)	
	인적역량	관광분야 인력 양성 사업(문화해설사, 문화공무원 등)	

다.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 앞서 제시된 13개의 문화 ODA 대표 프로그램(안)의 세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제시함.

29) ODA는 정책 자문,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개발 등을 포괄하는 통합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 문화영역의 지원방식(정책 수립, 인프라 구축, 인적역량 개발)에 따른 한국의 비교우위를 도출하고자 개별 지원방식에 따른 ODA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음.

[표 3-1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정책 수립

사업명	문화유산 보호제도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대상국	• 풍부한 문화유산에 비해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필요성이 높은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사업유형	• 정책자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호제도 및 관리시스템(문화재 수리기술자제도, 문화재 전수교육제도 등) 구축 • 중장기 성과: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
주요 사업활동	• 문화유산 보호제도에 대한 수원국 공무원 대상 정책자문 활동(보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표 3-1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①

사업명	문화유적 보존 및 보수 지원 사업
대상국	• 대표적 문화유적지 보유 및 문화유적 보존/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 문화유적 보존 또는 보수, 수원국 문화유적 보존관리 관련 교육 진행, 수원국 내 문화유적 보존활동 진행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중장기 성과: 수원국 문화유적의 자생력 강화
주요 사업활동	• 수원국 내 문화유적 보존 또는 보수공사 진행을 위한 지반, 지층, 구조안정성 연구 • 수원국 내 문화유적 보존 또는 보수공사 • 수원국 내 문화유적 보존활동 진행기관과의 세미나 개최 등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의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제고

[표 3-1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프라구축 ②

사업명	문화유적 주변 박물관 건립 사업
대상국	• 대표적 문화유적지 주변 문화유산(Heritage Museum) 또는 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Histroy) 건립을 통해 해당 문화유적의 중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발전가능성(산업과의 연계 등)이 높은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 문화유적 주변 박물관 건립 • 중장기 성과: 수원국 문화유적의 보존, 보호 및 전시, 박물관의 교육적 효과 증진, 해당 문화유적에 대한 수원국 국민의식 향상
주요 사업활동	• 수원국 문화유적 주변 박물관 건립 • 박물관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및 기술전수(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의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제고

[표 3-16]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문화/자연유산 인적역량 개발

사업명	문화유산 기술자 양성을 위한 문화유산 보존보수 역량강화 사업
대상국	• 대표적 문화유적지 보유 및 문화유적 보존/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국가(인도네시아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국제기구 협력사업(UNESCO 등)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 문화유산 기술자의 문화유적 보존/보수 관련 기술 및 지식 습득 • 중장기 성과: 수원국 문화유산 기술자에 의한 보존/보수가 완료된 문화유적에 대한 지속적 유지 관리
주요 사업활동	• 수원국 내 문화유적 관리 현지인력 대상 보존/보수 교육 실시(학위과정,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의 문화유산의 경제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제고

[표 3-17]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공연/축제 인적역량 개발

사업명	수원국 전통문화 예술인재 양성사업
대상국	• 대표적 전통문화 또는 무형 문화유산이 존재하나 지원이 부족한 국가, 전통문화에 대한 발전가능성(산업과의 연계 등)이 높은 국가(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봉사단파견, 국제기구 협력사업(UNESCO 등)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 전통문화 예술인재 역량 배양, 수원국 전통문화 전수기회 확대 • 중장기 성과: 수원국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
주요 사업활동	• 현지 전통문화에 대한 DB화를 통한 자료아카이브 조성 • 현지 전통문화 기관과의 전통예술 공연 및 축제 기획/진행 • 수원국 전통문화 또는 무형 문화유산(구전전통, 공연예술, 사회적관습 및 의식,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기술)에 대한 전수 교육프로그램 지원(대표 전통문화 발굴, 현지전수자 선정 및 전수프로그램 기획, 관련 교육기관 내 전통문화 전수과정 개설 등)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 전통문화 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표 3-18]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①

사업명	고문서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대상국	• 고문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도서/서적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미얀마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수원국 고문서 인프라 구축, 수원국 고문서 보존기술 역량 강화 • 중장기 성과: 수원국 고문서 보존기회 확대
주요 사업활동	• 고문서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장소(센터, 사무실 등) 마련 • 고문서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고문서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기자재 지원 • 고문서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교육 제공(전문가 파견 등)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 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문화향유권 증진

[표 3-19]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②

사업명	국립도서관 디지털서비스 체계 구축 지원사업
대상국	• 소장가치가 뛰어나고 후속세대에 전달하여 보존이 필요한 자료를 다수 보유한 국가(캄보디아, 미얀마 등)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국립도서관 디지털서비스 체계 구축,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확대 • 중장기 성과: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체계적 관리 및 보존
주요 사업활동	• 국립도서관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국립도서관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기자재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운영인력 초청연수
우리측 기대효과	• 문화적 보존가치가 뛰어난 수원국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의 보존 • 문화다양성 보존 및 수원국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표 3-20]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도서/언론 인프라 구축 ③

사업명	문해교육을 위한 이동도서관 사업
대상국	• 도농간 문해율의 격차가 큰 국가로 정규 교육시설에의 접근성이 낮은 국가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한 문해교육 실시, 학교 밖 아동 및 여성에 문해교육 기회 제공, 문화여가 참여 기회 확대 • 중장기 성과: 아동 및 여성의 문해율 향상,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

주요 사업활동	• 국립도서관과 연계한 이동도서관 운영 • 차량, 도서, 컴퓨터 등 기자재 지원 • 전문가 파견을 통한 독서지도사 및 사서 교육 제공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 문해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문해율 향상에 기여 • 수원국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표 3-21]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정책 수립

사업명	수원국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자문
대상국	• 영상콘텐츠 산업 개발 수요가 높은 국가
사업유형	• 정책자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영상콘텐츠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 • 중장기 성과: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 및 관련 사업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발전
주요 사업활동	•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영상콘텐츠산업 마스터플랜 수립 • 영상콘텐츠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보고회,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한 정책자문 성과 공유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표 3-22]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시청각/쌍방향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업명	문화시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대상국	• 인터넷 환경 구축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시설 내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에 대한 수요가 있는 국가 • 문화관광 집중투자 국가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 중장기 성과: 독자적인 문화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주요 사업활동	• 수원국의 주요 문화시설에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구축 • 관련 기자재 및 기술 솔루션 제공
우리측 기대효과	• 수원국의 문화기술 활용 역량 제고

[표 3-23]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정책 수립

사업명	수원국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대상국	• 문화관광 집중 투자 국가 •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등의 부재로 비체계적으로 관광산업이 형성된 국가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관광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 중장기 성과: 관광분야 활성화 및 체계적 발전 도모
주요 사업활동	• 전문가 파견을 통한 관광정책, 관광개발 현황분석 등 공동 조사연구 •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 관광정책 담당공무원 초청연수

	• 공동세미나 개최
우리측 기대효과	• 관광개발을 통한 수원국 경제 발전에 기여

[표 3-24]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명	관광 클러스터 조성(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재생)
대상국	• 식민지 및 근대 문화유산 보존 필요성이 시급한 국가(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페루, 과테말라 등) • 문화관광 집중투자 국가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개도국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 문화기반시설 제공을 통한 개도국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중장기 성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
주요 사업활동	• 식민지 시대 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제공을 통한 문화예술거리 조성 • 문화예술인 zone 설치 • 건축물 리모델링(문화예술교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전문가 파견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파견
우리측 기대효과	• 도시 경쟁력 향상을 통한 관광 활성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향유권 향상

[표 3-25] 프로그램(안) 세부 계획 예시: 관광 인적역량 개발

사업명	관광분야 인력 양성 사업(문화해설사, 관광 공무원 등)
대상국	• 문화관광 집중투자 국가 • 관광 수입원이 전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사업유형	• 프로젝트
사업목적	• 산출물 층위 성과: 관광 전문인력 역량 강화

	• 중장기 성과: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확대를 통한 관광 활성화
주요 사업활동	• 관광분야 공무원 초청 단기 및 장기 연수프로그램 운영 • 초청연수 사후관리 및 문화해설사 양성을 위한 e-learning 프로그램 운영 • 사후관리(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웹기반 데이터 축적 및 관리, 현업적용 지원 확대, 소규모 네트워크 지원)
우리측 기대효과	• 관광분야 인력의 역량 강화에 따른 체계적인 관광수요 흡수 • 신규 관광모델 수립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제 4 장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및 전략

제 1 절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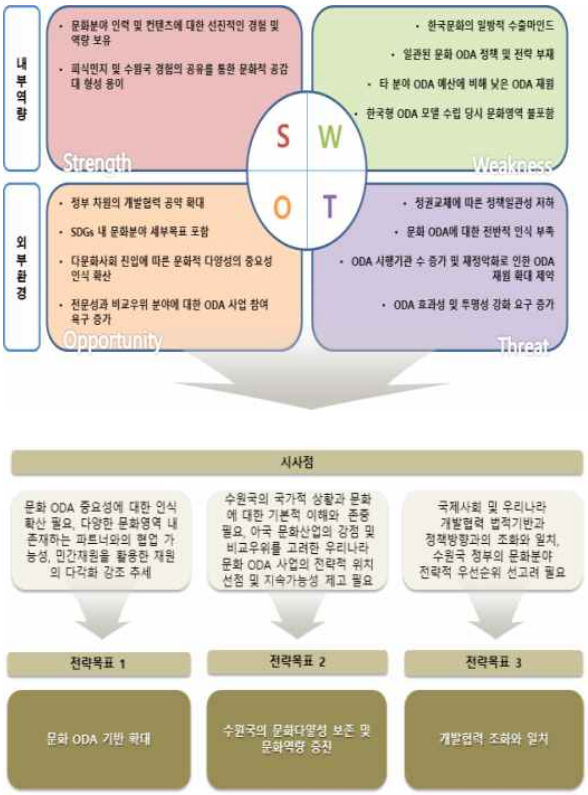
□ 문화 ODA의 전략적 방향성을 상정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문화 ODA 관련 주요 논의현황,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기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에 대한 환경적 상황을 SWOT을 통해 분석함.[30]

-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최고규범이면서 개발협력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SDGs는 한국형 문화 ODA의 근거이고 목표이며, 준거틀임. 문화영역이 포함됨에 따라 문화영역과 관련된 SDG 목표를 고려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SDG 4.7 목표는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의의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확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제시함.
- ○ (국제사회의 문화 ODA 주요 논의현황) 한국형 문화 ODA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먼저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발전에 있어서의 문화의 역할 및 속성을 통해 문화 ODA의 중요성 및 그 의의가 반영되어야 함. 2001년 UNESCO 세계문화다양성선언, 2005년 UNESCO 문화적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협약, 2013년 문화와 발전에 관한 UN회의 및 항저우선언은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의무임과 동시에 인류 공동의 유산이므로 각국의 고유한 문화에 존중을 강조하고 있음.
- ○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기조) 한국형 문화 ODA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ODA 정책목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의 기본정신은 개도국의 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2015년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또한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과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비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실현과 공공외교 강화,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증진, 문화격차해소와 문화균형발전,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문화 ODA 정책과 전략 수립

30) 분석 시 활용한 내용은 앞 장에서 제시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함.

[그림 4-1]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한국형 문화 ODA 전략적 방향

[그림 4-2] 한국형 문화 ODA SWOT 분석



[표 4-1] SWOT 분석에 의한 전략과제 도출

내부역량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 문화분야 인력 및 컨텐츠에 대한 선진적인 경험 및 역량 보유 • 피식민지 및 수원국 경험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	약점(Weakness) •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마인드 • 일관된 문화 ODA 정책 및 전략 부재 • 타 분야 ODA 예산에 비해 낮은 ODA 재원 •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당시 문화영역 불포함
기회(Opportunity) •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공약 확대 • SDGs 내 문화분야 세부목표 포함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 • 전문성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ODA 사업 참여 욕구 증가	SO 전략 [역량확대] □ 문화 ODA 중점지원분야 및 대표사업 발굴 [전략과제 2]	WO 전략 [기회포착] □ 문화 ODA 우수파트너 발굴 및 민관 협업 다각화 [전략과제 1-2]
위협(Threat) •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일관성 저하 • 문화 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 • ODA 시행기관 수 증가 및 재정악화로 인한 ODA 재원 확대 제약 • ODA 효과성 및 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	ST 전략 [선택집중] □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전략과제 3]	WT 전략 [약점보완] □ 문화ODA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 [전략과제 1-1]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1. 문화 ODA 사업의 비전 및 기본목표

□ 세부 추진전략 제시에 앞서 한국형 문화 ODA를 "한국 ODA 및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로 정의하고, 이러한 한국형 문화 ODA의 비전을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로 제시함.

[표 4-2] 문화 ODA 기본목표 체계

비전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전략 목표	문화 ODA 기반 확대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전략 과제	전략과제 1-1 문화 ODA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 전략과제 1-2 문화 ODA 우수파트너 발굴 및 민관협업 다각화	전략과제 2 문화 ODA 중점지원분야 및 사업 발굴	전략과제 3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2. 문화 ODA 사업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가. 전략목표 1: 문화 ODA 기반 확대

□ [전략과제 1-1] 문화 ODA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의 범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문화분야 중앙부처로서,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문화 ODA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외 기관과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음.

- ○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로 문화 ODA의 중요성과 공공외교의 전략적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 ○ 특히 재외공관, 해외문화원, 세종학당, KOICA 등 현지의 문화 ODA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 ODA수행 토대를 마련하고 통합과 조정을 강화함.

□ [전략과제 1-2] 문화 ODA 우수파트너 발굴 및 민관 협업 다각화: 문화계, 민간 등과의 시범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확산의 기반을 마련함.

[표 4-3]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문화 ODA 기반 확대

단계	기반 조성 (2017-2018)	기반 내실화 (2019-2020)	기반 확대 (2021)
주요활동	• 문화 ODA에 대한 인식 제고(정부, 문화계. 기업, 시민 차원) • 문화 ODA 예산 확대 • 타 공여기관, 문화계, 민간과의 파트너십 기반 마련 • 문화 ODA 사업 통합 및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논의/조율	• 신규사업 선정 확대 • 시범적 민간파트너 참여 사업 이행	• 성과가 검증된 사업의 프로젝트 연속성 확보

나. 전략목표 2: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 [전략과제 2] 문화 ODA 중점지원분야 및 사업 발굴: 문화 ODA 사업은 다수의 공여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 ODA를 한국의 ODA 사업의 대표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국 문화 ODA만의 특색과 강점을 갖춘 분야 및 형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사업 발굴 시 수원국 현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분석을 전제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ODA 사업을 발굴하고 형성해야 함.

□ 특히 문화다양성 보존이라는 목표는 ODA 사업의 목적 및 문화분야의 특성 고려 시 문화 ODA 정책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 여기서 다양성은 문화가 다양한 양상을 가진다는 진술적 요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각각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꽃 피우고 증진될 것이라는 발전적 의미의 요소임(정정숙 외, 2013). 따라서 문화 ODA를 통하여 각 수원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통합적 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문화 ODA 사업은 단순한 문화교류의 형태가 아닌 수원국 정부 또는 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4-4]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단계	사업 선정 및 착수 (2017-2019)	성과사업 홍보 (2020)	성과점검 (2021)
주요 활동	• 중점지원사업 선정 및 착수 • 사업계획 구체화	• 2년간의 성과사업 발굴 • 성과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언론매체, 포럼 등)	• 매년 사업 성과 점검 • 높은 성과의 사업 지속 발굴 및 추진

다. 전략목표 3: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 [전략과제 3] 문화 ODA 중점협력국 선정: 현재 문화 ODA는 중점협력국 없이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별협력전략(CPS)을 기본축으로 하되 수원국의 사회경제적 여건(발전단계, 문화자원, 관광산업, 문화코드 등)과 지역별 안배를 바탕으로 문화 ODA 중점협력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아시아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되, 아시아 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역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함.

[표 4-5] 세부 전략과제 추진단계: 개발협력 조화의 일치

단계	체계 준비 (2017-2018)	체계 구축 (2019)	체계 공고화 (2020-2021)
주요 활동	•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협력국 조사/연구 시행	• 중점협력국 선정 • 문화 ODA 사업 통합 및 조정체계 마련	• 중점협력국 중심의 사업 확대 • 문화 ODA 사업 통합 및 조정역할 수행

제 5 장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1. 선정목적

□ 문화분야는 특히 경제수준 및 발전단계의 차이 및 지역별·국가별 문화코드에 따라 수여국의 만족도 및 효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여대상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수원국 및 공여국에 상호 최적화 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양측 모두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 진행 된 인병택 외(2014)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제기되어왔으며, 이들 연구에서 '문화 ODA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으나, 한류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원, 문화홍보관, 동호회 등의 설치 여부로 지속적 협력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일부 한계를 보임.

- ○ 한류와 '한국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한류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 해서 '한국형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리라 단정할 수 없음.
- ○ 한국의 문화 ODA 사업은 일반적 문화 홍보 사업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함.
  - 우리 문화의 일방적 홍보와 행사위주 문화교류 요구는 수원국 발전에 무의미하므로, 수원국 저발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국적 경험에서 추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2. 선정방법

□ 기존 KOICA의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과정 및 결과를 참고하되, 문화 ODA의 특징을 살려 한국과 수원국간 문화 ODA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 ○ 기존 중점협력대상국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됨.
  - 1단계: 정량평가로 OECD-DAC의 상위 중소득국을 제외한 국가들로 수원필요성을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원조대상국가 선별
  - 2단계: 정량평가로 1차 후보국들을 선정하며, 국제사회 원조기준, 한국과의 관계, 원조의 효과적 수행을 평가요소로 설정하여 3분의 1 수준으로 대상국 축소
  - 3단계: 정량지표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가 정성평가를 통해 후보국 추가
  - 4단계: 종합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요소, 지역안배, 원조소외국 등이 참작되어 범정부적인 판단으로 최종선정

□ 문화 ODA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방법을 참고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3단계(Long, medium, short list)로 나누어 진행하되 한국형 문화 ODA 모델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소들을 추가로 설정함.

- ○ 1, 2단계(Long-list 및 medium-list): "한국형"문화 ODA이므로 한국과의 관계성 및 교류화 활성화, 지원규모 등을 기준으로 top-down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에 맞는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한국의 수요 반영
- ○ 3단계(Short-list): 선정된 국가들 내에서 수원국의 현황, 문화자산, 국가개발전략 내에서의 문화정책 수행여부 등을 bottom-up 접근으로 본 연구팀이 정성적으로 평가
- ○ 최종적으로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대상국가 선정

3. 선정기준

□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은 long list, medium list, short list의 단계를 걸쳐 선정하며, 각 단계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Long list: 한국 ODA 수원국(61개국)[31]으로서 관련 자료 및 정보 확보, ODA 사업경험, 협력적 관계 구축 등 사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기 존재하는 국가들로 1차 선정

[표 5-1]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Long List

아시아(15)	아프리카(20)	중남미(11)	중동·CIS(12)	오세아니아(3)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레바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예멘 요르단 이라크 공화국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팔레스타인	솔로몬군도 파푸아뉴기니 피지

○ Medium list: Long-list의 국가들 내에서 '한국과의 관계성 및 교류의 활성화 정도'를 아래와 같은 조건을 채택하여 순차적으로 선정함.

- 재외공관 존재여부: 한국 ODA 수원국일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을 통해 국가간/기관간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31) www.odakorea.go.kr 상 한국 ODA 수원국가

[표 5-2]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아시아(14)	아프리카(19)	중남미(10)	중동·CIS(10)	오세아니아(2)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튀니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레바논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예멘 요르단 이라크 공화국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파푸아뉴기니 피지

- 한국의 ODA 약정액 규모: 한국의 ODA 약정액 규모는 향후 협력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기준으로 10백만 불을 소기준으로 설정하고, 기준 이하로 ODA 약정액이 책정된 국가는 제외함.

[표 5-3]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1

아시아(10)	아프리카(10)	중남미(3)	중동·CIS(3)	오세아니아(2)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니카라과 파라과이 페루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라크 공화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 유학생 유입정도: 국내 유학생 유입정도의 파악으로 향후 양국 간 인적교류 및 이해도 증진을 통한 관계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춤.
  - 2015년을 기준으로 아시아의 경우 3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유입된 국가들만 선정되었으며,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준이 타 지역보다 높음.
  - 그 외 지역은 50명 이상의 유학생이 유입된 국가들로 선정하였음.

[표 5-4]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Medium List 조정 2

아시아(8)	아프리카(5)	중남미(1)	중동·CIS(1)	오세아니아 (-)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

□ Short list는 정량적 기준으로 분류된 Medium list 중 아래요소들을 정성적으로 조사·분석하되, 각각의 요소가 충분 또는 결여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연관관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 문화ODA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함.

○ '문화자원 및 정책': 유·무형문화유산 및 문화정책과 전략개발 여부

- 문화유산은 크게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되며,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 계승·보존될만한 가치를 지닌 고유의 문화재나 문화양식을 말함.
  - 유형문화유산은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뜻함.
  - 무형문화유산은 지식, 문화적·사회적 가치 또는 집단기억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문화를 살아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 따라서 문화유산 보호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문화와 자연유산 관리능력, 전통가치 전승 및 기록 등을 통해 문화에 대한 관심 및 대중의 인식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음.
- 문화정책 및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개발 (단기, 중·장기) 우선순위에 문화분야가 포함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OECD-DAC의 ODA 및 문화ODA 지원규모'

- OECD-DAC의 문화분야 ODA 유입액 확인을 통해 해당국의 문화관련 ODA 필요 정도와 관심도 등 수요에 대해 가시적으로 검토가능

○ '관광산업 (Asset 및 Revenue)'

- 최근 3개년의 관광 수입의 차이를 확인하여 문화자산과 이를 활용하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
- 유적지와 같은 문화유산은 장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관광자원화가 가능하고, 경제발전과 연계성을 지님으로써, 문화분야 ODA의 중요한 요소임에 선정기준에 부합함.
- 관광을 통한 ODA는 수원국의 역사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체계를 구축가능하게 함.

○ '문화분야 부처 또는 기관의 유무와 문화분야 활동의 적극성'

- 향후 문화 ODA 사업 추진 및 수행 시 문화분야 전담부처 또는 국립기관의 협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됨. 또한, 문화분야의 수요와 적극성이 사업의 효과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의 문화분야 정책 또는 프로그램 진행 등의 조사를 통해 적극성 파악이 필요

○ 그 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 한국문화와 관련된 기관이 존재할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친밀도 및 협력가능성에 가중치를 부여함.

4. 선정결과

□ Medium-list에서 선정된 15개국 및 피지[32]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성평가를 수행함.

□ 이하 표에 제시되는 조사 및 분석내역에는 Medium-list에서 제시되는 모든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시아 8개국 중 5개국, 아프리카 5개국 중 2개국,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각 1개국 등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로 최종 선정된 10개국에 대해서만 정성평가 분석내역을 작성함.

32) Medium list에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관련 문화정책, 관광산업 등 주요 평가요소 부합 및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추가됨.

가. 아시아

[표 5-5]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시아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한국문화원	유무	X			X			X			O			X			O			X			O		
기존 중점협력국	CPS	O			O			O			O			O			O			O			O		
발전단계	1인당 GNI	최빈개도국[33]			하위중소득국[34]			최빈개도국			하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최빈개도국			하위중소득국		
문화자원	유형문화유산	4개			3개			1개			8개			8개			8개			2개			6개		
	무형문화유산	-			273개			-			5개			-			5개			-			107개		
문화정책	문화정책 및 전략	국가 문화 정책, 2067			문화,예술, 체육을 위한 실천계획 2016-2020			신정부의 문화분야 정책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수립 중)			비전 2020: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			문화전략 2015-2019			문화와 예술을 위한 실천계획 2014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		
	OECD-DAC 문화 ODA 유입액/총 ODA (%)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13	'14	'15
		0.04	0.04	0.04	0.17	0.32	0.31	0.03	0.07	0.14	0.14	0.13	0.20	0.21	0.13	0.14	0.15	0.27	0.15	0.11	0.27	0.37	0.07	0.09	0.05

관광산업	관광 수입 변화 추이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388.90	472.20	544.10	236.00	257.00	279.00	926.00	1789.00	2122.00	870.64	911.12	943.35	2431.11	2980.65	3518.49	10054.15	11166.13	–	2547.00	2736.00	3012.00	4397.10	4838.37	5002.41
		–	+21.4%	+15.2%	–	+8.90%	+8.56%	–	+93.20%	+18.61%	–	+5.72%	+6.13%	–	22.60%	18.04%	–	+11.06%	–	–	+7.42%	+10.09%	–	+10.04%	+3.39%
문화 정부기관	문화 분야 부처/기관 및 적극 활동 여부	문화관광민간항공부			교육문화과학부			문화부			문화체육관광부			내무·와얌바개발·문화부			교육문화부			문화예술부			국립예술문화위원회		

33) OECD-DAC 수원국 중 1인당 GNI < $992 및 UN지정 인적자원지수, 경제적 취약성 지수 고려
34) OECD-DAC 수원국 중 ($1,046 ≤ 2013년 일인당 GNI ≤ $4,125)

1) 미얀마

가) 유・무형 문화유산

□ 미얀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는 2014년 등재된 퓨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가 있으며, 이 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없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2016년 국가 고문의 경제정책 기조연설에서 발표된 12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중에 문화분야는 문화유산 보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 단계에 있음.

다) 문화ODA 유입

□ 미얀마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08%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약 1/3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10%만을 차지해 미얀마의 문화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미얀마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16억 1,233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93.2%인 2배 증가,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미얀마는 2013년을 기점으로 관광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비해 문화・관광 관련 제도적 기반이 아직까지 미비함. 즉, 문화ODA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지원 비중이 크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판단되며, 향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선정함.

2) 베트남

가) 유・무형 문화유산

□ 베트남의 유형문화유산은 1993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에 기념물 복합지구, 1994년에 등재된 하롱베이, 1999년에 등재된 호이안 고대 도시, 미선유적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무형문화유산은 2003년에 등재된 베트남의 궁중음악인 나냑, 2005년에 등재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공 문화 공간, 그 외의 2009년 까쭈가창, 꽌호 박닌 민요, 2010년 푸동사원과 속사원의 종축제를 비롯하여 총 8개의 문화유산이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베트남은 2016년 최초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인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발전전략, 2030년 비전'을 발표하여 창조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

다) 문화ODA 유입

□ 베트남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15%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35%를 차지해 베트남의 문화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베트남의 관광산업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9억 837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4.7% 증가,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베트남은 관련 문화정책 및 전략이 자세히 마련되어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중 문화분야 ODA의 중요성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에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한국 대표 중점협력국으로 한국과의 협력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어 사업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종 선정함.

3) 인도네시아

가) 유・무형 문화유산

□ 인도네시아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91년에 등재된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프람바난 힌두사원, 산기란 초기 인류 유적지를 비롯하여 총 8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무형문화유산은 2005년에 등재된 크리스 단도, 2008년에 등재된 와양인형극, 그 외의 바틱, 앙클룽, 사만춤, 2015년 발리 전통춤의 3가지 장르까지 총 5개의 문화유산이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인도네시아는 '문화전략계획 2015-2019'를 통해 문화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음.

- ㅇ 특히, 전통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포함하는 2004-2009 정책과 민족의 정체성과 기질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향상 2010-2014 문화발전 정책을 실시함.

다) 문화 ODA 유입

□ 인도네시아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19%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21%를 차지해 인도네시아의 문화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높은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은 2012-2014년 기준 평균 약 101억 1,371만 불로, 2013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2년 대비 10.2% 증가,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11.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문화 ODA에 대한 공여국의 관심도가 큰 편으로 ODA를 선택적으로 받는 국가이나, 문화적 다양성, 정부의 높은 관심 등의 특징으로 ODA의 효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에서의 높은 관심도와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선정함.

4) 캄보디아

가) 유・무형 문화유산

□ 캄보디아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는 1992년에 등재된 씨엠립에 위치한 앙코르와트 사원(Angkor Wat Temple)과 2008년에 등재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Preah Vihear Temple)이 있음.

□ 무형문화유산으로 2003년에 등재된 캄보디아의 왕실무용, 2005년에 등재된 크메르 그림자 극인 스벡톰, 그 외의 2016년에 등재된 캄보디아 전통연주와 노래가 어우러진 짜뻬이 당 뱅이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캄보디아 문화정책은 2014년 7월 18일에 총회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을 토대로 총 7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잠재력 활용, 문화산업 진흥, 문화파트너 지원, 문화 분야 시장 창출, 교육 및 훈련, 기관 및 파트너와 협력에 관련된 정책을 실행

다) 문화 ODA 유입

□ 캄보디아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25%로, 동남아지역의 평균의 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10%를 차지해 캄보디아의 문화 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있음.

라) 관광산업

□ 캄보디아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4-2016년 기준 평균 약 29억 8,667만 불로,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10.1%, 2016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5년 대비 6.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캄보디아는 문화유산과 국가경제개발을 연계하여 국가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성을 지녔지만, 문화유산이 발달한 것에 비해 경제적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마련 및 실행이 미비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접점을 찾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함.

5) 필리핀

가) 유・무형 문화유산

□ 필리핀의 유형문화유산은 1993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투바타하 산호초 자연공원, 필리핀의 바로크 양식 교회, 1995년에 등재된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을 비롯하여 총 6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무형문화유산은 2005년에 등재된 크리스 단도, 2008년에 등재된 와양 인형극, 그 외의 바틱, 앙클롱, 사만춤, 2015년 발리 전통춤 등 총 107개가 유네스코에 등재됨.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필리핀은 2010년 제정된 필리핀 공공법 제10066호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는 문화분야의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을 제시함.

- ❍ 필리핀 문화와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의 다양성 가치인정, 공익의 가치 고취, 창의적 우수성 선진화, 문화에 민감한 거버넌스 개발의 전략목표를 가짐.
- ❍ 전략목표와 더불어 문화와 개발 프로그램, 문화 교육, 문화유산보존 및 문화외교 프로그램을 수립함.

다) 문화 ODA 유입

□ 필리핀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07%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약 1/3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7%만을 차지해 필리핀의 문화 분야 ODA는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필리핀의 관광산업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47억 4,596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10% 증가,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3.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필리핀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견고한 법적 토대 및 공공조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단기, 중·장기 국가개발계획에서 문화가 주요 요소로 포함되어 있어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관광산업이 발전되어 있어 해당국의 문화자원 활용도와 경제발전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함.

나. 아프리카

[표 5-6]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아프리카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한국문화원	유무	X			X			X			X			X		
사회경제적 여건	CPS	O			O			O			X			O		
발전단계	1인당 GNI	최빈개도국			최빈개도국			최빈개도국			기타저소득국[35]			최빈개도국		
문화자원	유형 문화유산	-			9개			3개			6개			7개		
	무형 문화유산	-			3개			6개			2개			-		
문화정책	문화정책 및 전략	문화유산정책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 (2015-2020) 내에 cross-cutting 이슈로서의 Culture and Tourism 포함			우간다 비전 2040 내 Social Transformation Pillar 내에 Culture 포함			2차 중기개발계획 내 Social Pillar 내에 Sports, Culture and Arts 포함			국가개발계획 2030 내에 Art and Cultural Industry로 포함		
	OECD-DAC 문화ODA 유입액 / 총 ODA (%)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0.05	0.11	0.05	0.03	0.06	0.1	0.05	0.04	0.04	0.07	0.11	0.05	0.15	0.13	0.17
관광산업	관광수입 변화추이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351.00	304.00	407.00	-	-	-	1355.00	810.00	1171.00	1829.00	1833.00	-	1939.00	2047.00	2253.00
		-	-13.39%	+33.88%	-	-	-	-	-40.22%	+44.57%	-	+0.22%	-	-	+5.57%	+10.06%
문화 정부기관	문화분야 부처/기관 및 적극 활동여부	체육문화부			문화관광부			젠더·노동·사회개발부			체육문화예술부			정보·청소년·문화·체육·관광부		

35) OECD-DAC 수원국 중 (2013년 일인당 GNI ≤ $1,045)

1) 에티오피아

가) 유・무형 문화유산

□ 에티오피아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80년에 등재된 악숨, 티야, 오모강 하류유역, 아와시 강 하류유역을 비롯하여 총 9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세계무형문화유산은 2013년에 등재된 그리스도의 참 십자가 발견 기념 축제, 2015년에 등재된 Sidama 사람들의 새해 축제인 Fichee-Chambalaalla, 오로모족의 토착 민주적인 사회-정치 체제인 가다제도까지 총 3개가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에티오피아는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Ⅱ (2015-2020) 내에 cross-cutting 이슈로서의 문화와 관광을 포함하며 문화 관련 목표와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정보자원이용 개선, 문화산업 및 시장 네트워크 발전 촉진, 문화유산 보전 및 발전, 관광부문 시장 시스템 개선 및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둠.

다) 문화ODA 유입

□ 에티오피아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06%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평균의 약 1/2수준을 상회하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4%를 차지해 에티오피아의 문화 분야 ODA는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에티오피아의 2013-2015년 기준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 관련 지표를 찾을 수 없음.

마) 종합

□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로마・페르시아・중국에 필적했던 고대 악숨 왕국, '시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의 전설 등의 오래되고 찬란한 역사를 지닌 국가로 문화・관광발전에 주력하고 있음. 타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차별적인 오래된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유사성과 한국의 비교우위 대표 프로그램 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정함.

2) 우간다

가) 유・무형 문화유산

□ 우간다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94년에 등재된 브윈디 천연 국립공원, 르웬조리 산지 국립공원, 2001년에 등재된 카수비 부간다 왕릉군까지 총 3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세계무형문화유산은 2005년에 등재된 나무껍질옷 만들기와 2015년에 등재된 바송고라, 바냐빈디, 바투로인의 Koogere 구전 두 가지가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우간다 비전 2040 내 Social Transformation Pillar 내에 Culture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다양한 문화의 수렴하고 단합하기 위한 가치체계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음.

다) 문화 ODA 유입

□ 우간다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04%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평균의 약 1/3수준을 상회하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1%만을 차지해 우간다의 문화 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라) 관광산업

□ 우간다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11억 1,200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40.22% 감소,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44.5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우간다는 각각의 문화 및 언어를 갖는 여러 종족이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 수렴 및 단합을 위한 체계를 개발하려고 노력중임. 이는 문화가 국가개발정책에 포함되어 장기적으로 문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지로 확인되어 충분한 문화수요가 있으며, CPS도 존재해 한국과의 관계형성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함.

다.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표 5-7] 한국형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기준(안) -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페루			우즈베키스탄			피지		
한국문화원	유무	X			X			X		
사회경제적 여건	CPS	O			O			X		
발전단계	1인당 GNI	상위중소득국[36]			하위중소득국			상위중소득국		
문화자원	유형 문화유산	12개			4개			1개		
	무형 문화유산	8개			4개			-		
문화정책	문화정책 및 전략	문화정책 가이드라인 2013-2016			개발전략 2017-2021			2014년 8월 문화산업 국가발전 워크숍에서 중장기 문화분야 정책 (Fiji's National Cultural Policy) 수립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문서화되지 않았음.		
	OECD-DAC 문화ODA 유입액 / 총 ODA (%)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0.43	0.42	0.34	0.27	0.27	0.09	0.35	0.49	0.29
관광산업	관광수입 변화추이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3925.19	3907.54	4150.54	-	-	-	966.00	1034.00	1037.00
		-	-0.45%	+6.22%	-	-	-	-	+7.04%	+0.29%
문화 정부기관	문화분야 부처/기관 및 적극 활동여부	문화부			문화체육부			교육·문화유산·예술부		

36) OECD-DAC 수원국 중 ($4,126 ≤ 2013년 일인당 GNI ≤ $12,745)

1) 페루

가) 유・무형 문화유산

□ 페루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83년에 등재된 쿠스코, 마추픽추 역사 보호 지구, 1985년에 등재된 차빈 유적 지대, 1987년에 등재된 마누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총 12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세계무형문화유산은 2001년에 등재된 자파라족 구전유산, 2005년에 등재된 타킬레섬의 직물공예, 2013년에 등재된 7년마다 열리는 리무쟁의 성유물 전시축제를 비롯하여 총 8개가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페루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부에서는 '문화정책 가이드라인 2013-2016'을 발표하여 총 7가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이문화 관점 촉진, 시민권 증진, 기관성 강화, 창의력 고취, 문화유산 보호 및 사회적 지출, 문화산업 지원, 예술홍보 및 보급 관련 정책을 실시함.

다) 문화 ODA 유입

□ 페루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40%임.

라) 관광산업

□ 페루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39억 9,442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0.45% 감소,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6.22%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페루는 고대잉카문명의 발상지로서 고고학적 유물의 보존가치가 큰 편으로 유네스코 세계유형・무형유산으로 지정 및 구체적인 문화정책

가이드라인 구축 등 수원국의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중점협력국 내 피지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상위중소득국으로서 문화기반과 수요가 존재하여 선정함.

2) 우즈베키스탄

가) 유・무형 문화유산

□ 우즈베키스탄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90년에 등재된 이찬칼라, 1993년에 등재된 부하라 역사지구를 비롯하여 총 4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 세계무형문화유산은 2001년에 등재된 보이선 지역문화, 2009년에 등재된 카타 아슐라 민요를 비롯하여 총 4개가 있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우즈베키스탄은 '개발전략 2017-2021'을 통해 문화의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극장, 박물관, 문화 및 교육기관의 발전, 기존의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음악, 예술시설 건립 및 재건축 활동에 초점을 둠.

다) 문화 ODA 유입

□ 우즈베키스탄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40%임.

라) 관광산업

□ 우즈베키스탄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 2013-2015년 기준의 관련 지표를 찾을 수 없음.

마) 종합

□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의 핵심지대이며, 역사적으로 유구한 문화가 존재하고 자연환경도 풍부해 높은 관광산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지로의 홍보부족, 인프라 부재 등으로 관광산업이 부진한

상황임.

□ 한국의 비교우위인 문화/자연유산 정책수립 및 인프라구축, 관광 정책 수립/인프라구축/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상호간 win-win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므로 선정함.

3) 피지

가) 유・무형 문화유산

□ 피지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으로는 2013년 등재된 레부카 역사적 항구 도시(Levuka Historical Port Town)가 있으며, 이 외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유산은 없음.

나) 문화정책 및 전략

□ 2014년 8월 문화산업 국가발전 워크숍에서 중장기 문화분야 정책(Fiji’s National Cultural Policy) 수립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문서화되지 않았음.

□ 그러나, 피지의 문화유산은 관광 상품으로써 가치가 높은 편으로, 피지정부는 문화유산 복원과 보존 및 관리를 국가정책의 중점사항으로 지정함.

다) 문화 ODA 유입

□ 피지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40%임.

라) 관광산업

□ 피지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10억 1,233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7.04% 증가,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0.2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마) 종합

□ 한국과의 현 관계성 측면에서 Medium list에서 배제되었으나, 관련 문화정책, 관광산업 등 주요 평가요소 부합 및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추가함.

□ 피지의 주요 소득원은 관광산업으로, 피지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시스템 체계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해당국이 필요로 하는 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국가로서, 오세아니아 지역 유일한 문화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함.

제 6 장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제 1 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1. 개요

가. 시범사업 발굴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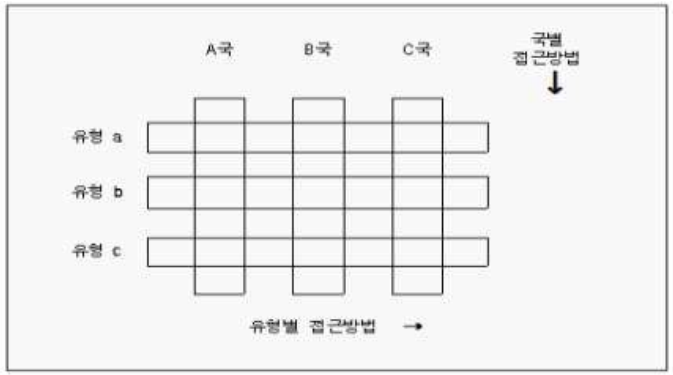
□ 3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이상에서 언급한 중점협력국가 선정기준 및 문화사업 발굴방법론을 통해 '한국형 문화 ODA'의 시범사업 발굴절차 및 방법을 제시

□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및 중장기 전략과의 부합성 외에도 최근 ODA관련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별·유형별 프로그램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우량 문화사업의 발굴 전략을 수립함.

□ 국별·유형별 프로그램 접근방법은 프로그램 접근법(Program-based Approach, PBA)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수원국이 주도하여 수립한 개발 프로그램을 공여국의 조율된 지원 원칙에 기반을 두고 이뤄지는 개발 협력 접근법 또는 과정을 지칭함.

- ○ 세부적인 프레임워크 구성을 위해 프로그램 접근법을 국별·유형별로 구분함.

[그림 6-1] 국별 접근방법과 유형별 접근방법



□ 공여국인 한국 측면에서 산업적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을 통해 구별되는 비교우위를 가지고 유형별로 접근 가능함.

□ 수원국 측면에서는 앞서 선정된 중점협력국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와의 부합성 및 국가별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국별 접근방법 사용

나. 시범사업 발굴절차 및 방법

□ 시범사업은 앞서 명시된 중점협력국가 short-list, 그리고 발굴전략을 활용하여 발굴 및 추진됨.

□ 사업대상국은 중점협력국가의 short-list에서 선정되며, 문헌조사를 통한 기본현황 분석, 문화분야 기본 수요조사, 한국의 비교우위 사업분야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실시

- ○ 각 유형별 기초조사를 통해 국가의 단기, 중장기 master plan을 분석하여 사회문화 발전계획, 국가개발 기본계획 등에 대한 현황파악
- ○ 향후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협력국과 사업유형, 기간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개요서 및 수원 요청서를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발굴된 사업에 대한 형성조사(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형성 및 사업추진 방안, 사업수행체계 및 사업환경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모니터링 및 평가, 그리고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OECD-DAC 5대 기준에 준하여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Project Design Matrix(PDM)에 기반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수행계획서 내에 포함

[표 6-1]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형성절차 세부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최종성과물(Outputs)
유형별 프로그램 전략 적성	○ 각 유형별 기초조사 - 국가 Master Plan : 사회·문화발전 계획, 국가개발 기본계획 등 분석 ○ **유형별 전략작성** - 성과관리를 위한 Results Framework 작성	○ 유형별 협력 프로그램
우량사업 발굴	○ 협력국 내 유형별 공여국 협의 - 문화분야 기술자문 및 협의 지원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국 정부 협의 - 해당분야 전문성에 근거한 기술자문 ○ **사업 발굴 및 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작성** ○ 발굴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개요서 (Project Concept Paper: PCP) ○ 수원요청서
사업 형성 (타당성 조사)	○ **형성조사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 우량사업 발굴을 위하여 후보사업 대상 형성조사(타당성조사) 실시 - 사업 구성요소별 세부 예산소요내역 산출 ○ **사업계획서 (Project Document) 작성** ○ 최종 선정한 우량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 정부 및 국내 관계자와 협의 및 결과 공유	○ 사업계획서 (Project Document: PD) - 타당성조서결과 - PDM
품질 및 성과관리	○ 성과중심관리(Results based Management: RBM) - 사업별 측정가능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고 - 용역과제에 대한 기초선(과 목표치를 설정(PDM수립) - PDM에 기반한 용역과제 성과 관리 ○ 사업목표 달성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지표 수립 및 관리 ○ 위기 및 사후관리 방안 수립	○ 성과관리 및 지표 설정(PDM) ○ 수행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및 관리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 출장계획서/보고서

다. 시범사업 대상국가 선정

□ 본 장의 제 1절 “중점협력국가 선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한국의 비교우위 및 용이성과 수원국 현황, 수요분석을 통해 총 10개국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10개국 가운데 본 용역의 시범사업 발굴 대상국가로는 발주처(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내용, 연구용역의 기간, 개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2개국을 시범사업 대상국가로 최종 선정함.

2.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가. 미얀마 일반현황

1) 국가개황

국명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동부는 태국, 라오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와 접경		
수도 (주요도서)	네피도(행정수도), 양곤(경제수도)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우기(5~10월), 건기 구별이 뚜렷) - 연평균기온 27.4℃, 연평균 강우량 2,513㎜		
종족	버마족(70%), 소수민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중국계(3%), 인도계(2%)		
면적	67만 6,563㎢ (한반도의 약 3.5배)	GDP	약 8,726억불 (2015)
인구	5,148만 명(2015.05 정부 발표), 양곤 740만명(2014년 기준)	1인당 GDP	1,268불 68센트(2015)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짜트(Kyat)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언어	미얀마어(공용어),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소수민족 고유어, 중국어 및 태국어 일부지역 사용

출처 : KOTRA (n.d.)

2) 국가현황[37)]

□ 정치

○ 2015년 11월 총선으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였으며, 연방의회 상하원 총 657석 중 NLD 390석(59%), 군부 166석(25%), 연방통합발전당(USDP) 41석, 여타 야당에서 60석을 확보함. 또한 2016년 3월 연방 상하원합동의회에서 틴쩌 대통령과 민스웨, 헨리 벤티유 2명의 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아웅산 수지 대표는 2016년 4월 국가고문(State Counsellor)에 취임하였음. 이로써 개발도상국가 중 민주적 선거로 군부를 종식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룬 첫 사례를 기록함(KOTRA, 2016).

□ 경제

○ 미얀마는 2011년 민선정부 출범 후 개혁·개방 기조 하에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매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미얀마 대상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개혁·개방 정책이 가시화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회

○ 미얀마는 영양결핍 인구 비율의 감소 등 빈곤감소 측면에서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가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25.6%(2014년 기준)로 심각한 수준이며,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도 188개국 중 148위(2014)로 여전히 매우 낮음. 또한 소득불평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중산층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며, 도시와 농촌간 개발 격차도 큼.

○ 교육 분야는 2010년 이후 초등교육 순등록률 및 수료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중등교육 지표는 초등교육 지표의 절반 수준에 그쳐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한편, 보건 분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모성사망비, 신규 결핵 발병률 등 보건지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37) 미얀마 국가협력전략(2016)을 참고하여 작성함.

□ 인프라

○ 미얀마의 인프라 경쟁력은 140개국 중 135위로 전력, 물류, 교통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교통은 포장도로 부족, 낙후된 철도시설, 항만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며, 특히 교통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단일 기관이 부재하여 종합적인 교통 분야 정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에너지 부문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바, 전력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큼.

○ 한편, 정보통신 부문은 낙후된 전화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의 3.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을 중심으로 보급대수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속도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범분야

○ 여성의 초중등 교육 및 노동참여율이 양성 평등 수준에 도달하였고 최근 여성의 정치 참여 및 보건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임. 한편, 미얀마는 최근 5년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산림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

3) 국가개발정책 및 국별지원계획

□ 미얀마 국가개발정책

○ 2015년 신정부에서는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기에 한국정부의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에서는 신정부 총선 공약과 7.29 미얀마 신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국가개발전략 방향을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6-2] 미얀마 신정부 총선 공약 및 경제정책방향

구분	주요 내용	
민주주의 민족동맹 선거공약	소수민족 무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소외지역 개발확대 및 지역 정부 협력 강화	
	정부부처 축소, 천연자원수익 특별기금 설립, 법의 지배 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농촌인구에 대한 토지, 금융접근성, 기자재, 교육지원 등 농축수산업의 역할, 수출주도형 발전 방향, 전 분야에 있어 민간 특허 중소기업의 역할 강조	
미얀마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 경제정책 성공의 핵심으로 민족 간 화합을 강조	
	금융 자원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재정관리를 통한 금융자원 확대
	기업 지원	▪ 국영기업 운영 개선, 필요시 민영화 추진, 중소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훈련	▪ 현대 경제 체제에 적합한 숙련 노동자 육성 및 직업교육 훈련 확대 및 질 향상
	경제 인프라	▪ 전력생산,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기초경제 인프라개발 우선지원 ▪ 신분증 체계, 디지털 정부 전략 및 전자정부 시스템 설립
	근로 기회	▪ 귀국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근로 기회 제공 ▪ 대규모 취업기회 제공 사업체에 우선권 제공
	균형 개발	▪ 농업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 모델 구축 ▪ 농업, 축산업 및 산업 부문의 균등한 발전 지원을 통한 균형개발, 식량 안보 및 수출 증대 달성
	시장 경제	▪ 시장경제 체제와 민간 부문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개인의 경제적 기회 촉진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정책 수립 ▪ 재산권 및 법에 의한 지배 강화
	농업 금융	▪ 가계, 농부 및 기업 대상 장기적·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금융 체계 설립을 통해 금융 안정성 달성
	공공 시설	▪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 공공 서비스 및 시설 개선 ▪ 공공장소 확대 ▪ 고유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확대
	조세 체계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체계 수립을 통한 정부 수익 증대 ▪ 법령 및 규정 제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 재산권	▪ 혁신 및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체계와 절차 수립
	사업 환경	▪ ASEAN 및 그 외 국가들 내에서 발생한 기업 환경 변화·발전 양상을 인지하고, 국내기업의 잠재적 기회 활용 지원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d) 참고하여 재정리

□ 미얀마 수원 체계

○ (범정부 원조관리기구) 미얀마 정부는 범정부 원조관리기구인 대외원조관리중앙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Central Committee)와 대외원조관리실무위원회(Foreign Aid Management Working Committee)에서 공여기관과의 협정 및 양해각서, 각 공여기관의 전략과 사업 등을 최종 승인함.

○ (수원총괄기관) 개발협력 관련 행정 총괄 및 협력을 관할하는 수원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대외경제협력국으로, 양자간경제협력팀, 다자간경제협력팀, UN기구팀, ASEAN팀, 법무팀 등 주요 팀 4개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6d).

□ 미얀마 협업 체계

○ (연간 협의 포럼) 2013년 제1차 미얀마 개발협력 포럼(Myanmar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MDCF) 이후 매년 포럼을 개최하여 미얀마 정부와 개발파트너 간 협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 (실무 협의회) 실무 협의회로는 정부-개발파트너그룹 간 회의, 네피도 협약 수행 중간 점검회의(Mid-Term Review Meeting), 대외경제관계부서-개발파트너 실무위원회 협의회(FERD-DPWC Meeting)가 있음.

○ (분야별 협업) 분야별 협업을 위해서 분야별 공여국 작업반(Sector Working Group, SWG)을 총 16개 분야로 구성하여 정부 부처와 개발파트너 간 협의체로 활용하고 있음.

○ (공여국 협의체) 미얀마 내 공여기관들은 개발파트너그룹

(Development Partners Group, DPG)을 구성하여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원조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9개 회원국과 정부간 개발파트너실무위원회(Development Partners Working Committee, DPWC)를 구성하여 원조 및 정치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고 있음. 2013년부터 한국도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6d).

□ 미얀마 수원 현황

○ 2012년 개방 이후 주요 공여국의 ODA 지원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민간정부 출범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관계부처 합동, 2016d).

[표 6-3]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2010-2014)

(백만 불, 총지출, 명목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금액	399	408	529	7,641	2,142	11,119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d)

[표 6-4] 2010-2014 주요 공여기관별 對미얀마 지원규모 추이

(백만 불, 총지출, 명목가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일 본	47	47	93	5,332	214	5,732
독 일	18	11	13	18	1,036	1,095
프랑스	5	6	7	592	6	616
ADB	0	0	0	513	2	515
World Bank(IDA)	0	0	0	421	32	453
영 국	44	62	48	156	121	431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d)

□ 한국의 對 미얀마 원조 성과

○ 한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서울특별시 등 약 22개

이상의 부처 및 기관에서 원조사업을 추진하였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원조로 약 1억 1,697만 불을 지원하였고, 유상원조로는 국제사회 완화에 따라 2013년부터 사업을 신규 승인하여 현재까지 5억 불 규모의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1,473만 불이 지원되었음.

○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농업(19.81%)분야를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교육(18.10%), 기타(17.45%), 통신(15.28%), 다부문(14.13%)분야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음(관계부처 합동, 2016d; ODA KOREA).

[표 6-5] 한국의 對미얀마 지원 추이(2010-2016)

(백만 불, 명목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무상	집행	5.46	7.86	9.04	14.80	25.48	22.82	31.51	116.97
	약정	6.50	14.65	7.57	23.33	65.71	39.33	23.59	180.68
유상	집행	0	0	0	0	0	1.10	13.63	14.73
	약정	0	0	0	155.87	182.83	61.30	100.00	500.00
계 (집행)		5.46	7.86	9.04	14.80	25.48	23.92	45.14	131.70

출처: ODA KOREA 참고하여 정리

[표 6-6] 한국의 對미얀마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6)

(백만 불, 명목가격)

구분	농업	교육	기타 38)	통신	다부문	보건	기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금액	26.09	23.83	22.98	20.13	18.61	8.75	6.30	5.00
비율(%)	19.81	18.10	17.45	15.28	14.13	6.64	4.79	3.79

출처: ODA KOREA 참고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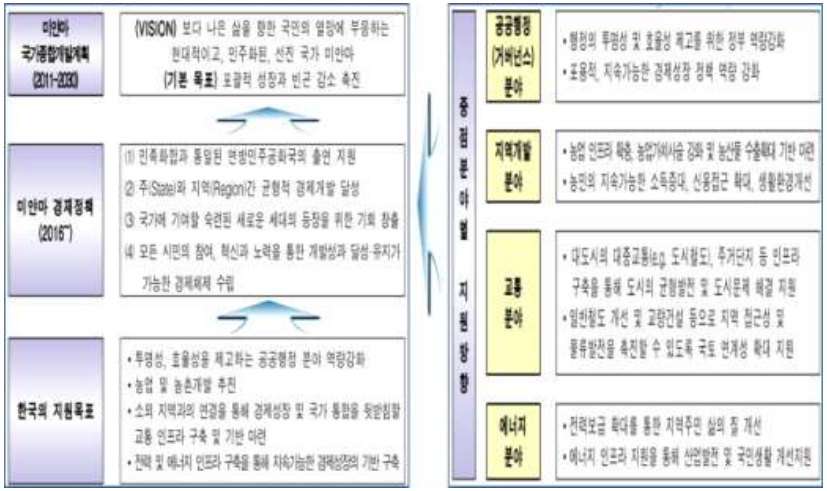
38) 공업, 운송 및 저장, 통상정책 및 규정, 어업, 식수공급 및 위생, 인도적 지원 등 15개 분야

□ 한국의 국별지원계획

○ 2016년 수립된 미얀마 국가협력전략에서는 공공행정(거버넌스),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對미얀마 개발협력 지원에서는 (1)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행정 분야 역량강화, (2) 농업 및 농촌개발, (3) 교통 인프라 구축에 따른 소외 지역과의 연결을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 통합, (4)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분야별 지원방향과 종합적인 지원목표를 통한 미얀마 개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도식화한 도표임(미얀마 국가협력전략, 2016).

[그림 6-2] 한국의 對미얀마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d)

나. 미얀마 문화 분야 현황

1) 현지문화 현황

□ 미얀마 문화

○ 미얀마 문화는 미얀마 토속 문화와 불교문화가 혼합되어 발전해왔으며(미얀마 호텔관광부[39] 홈페이지), 특히 불교가 문화의 중심이 되어 오랜 역사동안 번성하였음. 고대부터 교류가 많았던 인도문화권으로부터 전파된 불교의 영향력은 현재도 인구의 89%(KOTRA 해외시장뉴스 미얀마 국가정보 참고) 정도가 불교신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얀마 문화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음. 많은 문화유산들이 불교와 관련되어 있으며, 미얀마인의 전 생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이의 작명을 위해 승려와 상의하거나, 승려 공경 등의 생활윤리를 지키는 등 미얀마인의 생활 깊숙이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자료 참고).

□ 문화유산

○ 미얀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는 2014년 등재된 퓨 고대도시(Pyu Ancient Cities)가 있음. 퓨 고대도시 유산은 할린(Halin)시, 베익타노(Beikthano)시, 스리크세트라(Sri Ksetra)시 세 도시에 남아있는 벽돌 성벽, 해자 등의 유물을 포함하는 유산임. 세 도시는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0세기까지 퓨족이 건설한 퓨 왕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음. 부분적으로 발굴이 진행된 유적지로, 현재 불교문화를 보여주는 웅장한 불교 사리전탑, 조직적이고 집약적인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주는 물 관리 체계 등이 확인되었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이외에도 1955년부터 2006년까지 미얀마의 공식 수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던 양곤 지역에도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 대표적으로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 카바 아예 파고다

39) 1993년 관련법인 'Myanmar Hotel and Tourism Law'에 해당 기관의 책무를 정함.(Ministry of Hotels & Tourism, 2017년 4월 25일 확인)

(Kaba Aye Pagoda) 등의 불탑을 많이 볼 수 있으며, Koehtat Gyi 사원과 그 내부에 안치된 와불상 등 많은 문화유산이 양곤에 소재해있음(KOTRA, n.d.;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2008).

○ 만달레이 지역은 현재 미얀마 제2의 도시이며, 과거 Konbaung 왕조의 수도로 미얀마 문화의 발상지임. 19세기 중반에 건립된 Kyauk Tawgyi Pagoda 및 Kouthodo 대리석탑 등 많은 미얀마 문화유산이 산재해있음(주미얀마 한국대사관, 2008).

○ 바간 지역 또한 미얀마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역이며,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발전하였던 바간왕조의 유산들이 남아있음. 특히 이 지역에는 불교 전성기였던 11세기, 13세기에 건립된 파고다들이 많이 있으며, 약 4백만 개의 파고다가 위치해있음(주미얀마 한국대사관, 2008).

□ 미얀마 축제

○ 미얀마는 지역, 시기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미얀마에서 전국적으로 열리는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음.

[표 6-7] 미얀마 주요 축제 (전국 단위)

축제	시기	내용
Htamane (Glutinous Rice Festival)	2월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로, 남자로 구성된 팀들이 찹쌀로 음식을 만드는 경합을 벌여 부처에게 바치는 축제. 찹쌀음식을 친지, 이웃과 나누어 먹음.
Tabaung	2-3월	Taboung의 보름이 차오를 시기에 전국의 사원에서 열리는 축제. 사원별로 다양한 행사 진행.
Thingyan (Water Festival and Myanmar New Year)	4월	미얀마 신년 축제로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 가정마다 부처상의 얼굴을 향기 나는 물로 닦고, 심신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물 축제.
Kason (Ritual of Pouring Water on the Bodhi Tree)	5월	석가의 득도를 기념하는 축제로, 순례자들이 파고다의 보리수에 물을 주는 축제.
Waso (Waso Full Moon Festival)	7월	부처의 설교와 열반을 기리는 축제로, 우기가 시작하는 시기와 비슷함. 이 시기에 승려들은 먼 외출을 기피하며, 승려들이 시주를 받기 위해 다닐 때 입을 수 있는 승려복 여분을 시주하는 행사도 있음.
Festival of Light	10월	부처가 열반 후 돌아온 것을 기리는 축제. 석가 강림 시 등불로 맞이한 것과 같이 집을 초와 등으로 장식함.
Tazaungmon Full Moon Festival	11월	우기가 끝나고 승려에게 새로운 의복과 우산, 음식 등의 생필품 등을 시주하는 축제. 밤에는 전국의 사원에서 승려의 예복을 짓는 경합이 열리며, 다음날 새벽에 부처에게 바침. 쉐다곤 파고다의 행사가 유명함.

출처: 미얀마 숙박관광 홈페이지(n.d.); 주미얀마연방공화국 한국대사관 자료(2008)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2) 문화 분야 정책 동향

□ 미얀마 신정부의 문화분야 정책

○ 2016년 7월 29일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경제정책 기조연설에서 발표된 12개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중 문화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책은 '고유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확대' 이며, 미얀마 문화부는 문화유산 보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다만, 현재까지 세부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2017년 2월 현재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수립 단계에 있음[40].

□ 미얀마 문화협력 및 ODA 동향[41]

○ 미얀마 문화분야 주요 협력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국, 호주 등이며, 현재 독일, 프랑스, 중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한 상태임. 아래 내용은 미얀마가 프랑스, 일본, 및 UNESCO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사항임.

- (프랑스) 프랑스 개발원조청(AFD)의 지원으로 영국 식민지시대에 건

40) 사전타당성조사 시 미얀마 문화부 Nanda Hmun 차관(Permanent Secretary) 면담 결과(2017.2.14.).

41) 사전타당성조사 시 미얀마 문화부, 양곤 국립도서관, UNESCO 면담 결과(2017.2.15.,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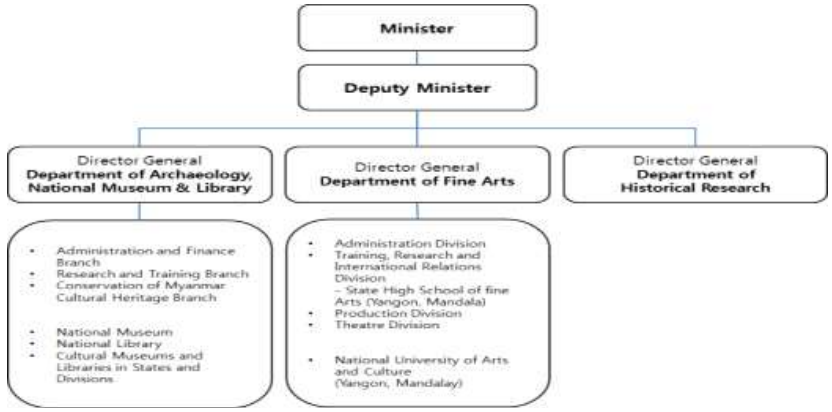
축되어 정유·가스 회사로 사용되었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양곤 국립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임. 동 건물은 양곤항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독립 이후 정부 소유(Ministry of Oil and Gas) 건물로 사용되었으나 부처가 이전하여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임. 사업의 주요 내용은 1)양곤항과의 커넥션(City to River) 수립, 2)판소단(Pansodan) 거리를 지식과 책의 거리로 조성, 3)신(新) 양곤 국립도서관 건립이며 2017년 3월에 사업이 착수되었음.

- (일본) 일본의 對미얀마 지원 규모는 급속도고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 중 Nippon Foundation과 Japan Foundation의 지원규모가 다수를 차지고하고 있으며, 현재 MAZA(Myanmar and Japan Alumni)에서 일본문화를 전파하는 일본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UNESCO) UNESCO 미얀마 사무소에서는 바간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퓨 고대도시 보존관리 계획 수립, 지진발생 이후 바간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3) 행정조직

□ 미얀마 문화부는 1)고고학·국립박물관·도서관국, 2)순수예술국, 3)역사연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

[그림 6-3] 미얀마 문화부 조직도



출처: 미얀마 문화부 홈페이지[42] 참고 재구성

(고고학·국립박물관·도서관국)

- 미얀마 문화유산 수집 및 조사, 보호
- 미얀마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 역사 유적지와 고대 도시 발굴
- 고고학, 문화 박물관과 도서관 건립
- 미얀마 문화 및 관련 정보 보급 및 전파

(순수예술국)

- 미얀마 전통 공연예술과 음악 연구 및 보존, 보급
- 미얀마 전통 예술 및 공예품 보존 및 보급
- 범국가적 문화교류
- 미얀마 순수예술과 규범, 관습 연구
- 예술대학교, 회화·조각·공연학교 등을 통한 순수예술 후속세대 양성

42) www.culture.gov.mm

(역사연구국)

- 미얀마 관련 국내외 역사 사료 수집
- 미얀마 역사 연구 및 연구보고서 등 발간
- 역사학 장학사업 증진 및 미얀마 역사 관련 기관 지원

○ 미얀마 문화부는 국가의 도덕의식과 명성, 국가적 통합성(integrity)을 고취하고, 문화유산과 국가적 특성을 보존·보호함으로써 미얀마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음. 미얀마 문화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미얀마 문화·스타일의 발현과 보급을 위하여 문화유산 보존
- 국가와 대중의 발전을 위하여 미술작품 제작
- 통합, 애국심 등의 발전 지원
- 데카당스 문화 제거 지원
- 대중의 사기와 도덕성 제고 지원
- 문화에서 연방(union)의 정신 개발 지원
- 문화의 수준 향상과 발전 도모 등

다. 미얀마 문화 ODA 수요조사

1) 수요조사 개요

□ 조사기간 및 지역

○ 조사기간: 2017년 2월 13일(월) ~ 2017년 2월 18일(토) (총 4박 6일)

○ 조사지역: 미얀마(양곤, 바간)

□ 조사목적

○ (문화 ODA사업 기획) 신규사업 발굴 대상국가로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가능한 문화 ODA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지역 조사

○ (발굴된 ODA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사업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분석, 무상원조 ODA사업으로서의 사업타당성 점검 및 효과적인 사업성과 달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 (향후 문화 ODA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문화 ODA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미얀마 문화부, KOICA, 해외 공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핵심 자료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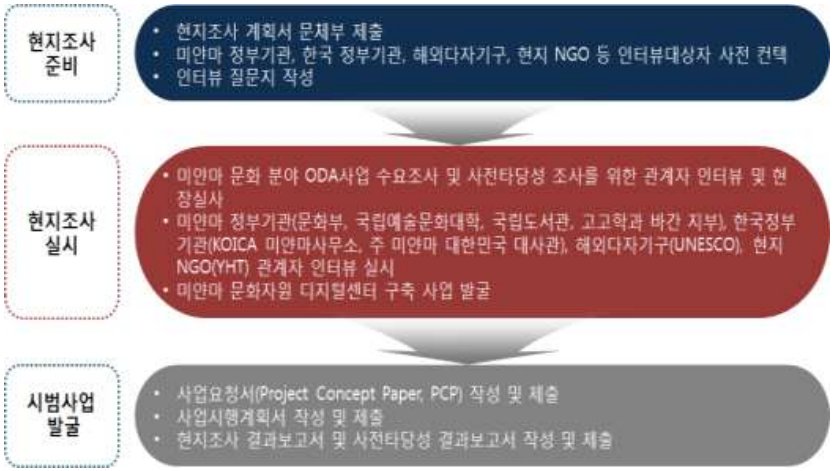
□ 조사방법

○ (현지 관계자 면담) 미얀마 문화부, 문화분야 사업수행 비정부기구, 국제기구(UNESCO),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KOICA 미얀마 사무소 관계자 면담 수행

○ (현장실사) 양곤 국립예술문화대학(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ulture),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및 만달레이구 바간 유적지 및 바간고고학박물관 방문 및 사업 수요 파악

○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미얀마 문화부 ODA 사업 요청 리스트(long-list), 국제기구가 기 수행한 미얀마 문화 ODA 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림 6-4] 사업발굴 절차



□ 면담기관별 주요 면담내용

[표 6-8] 면담기관별 주요 면담내용

구분	면담기관	주요 면담내용
미얀마 정부기관	미얀마 문화부	▪ 미얀마 문화부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문화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①미얀마 문화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②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③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ODA 수요를 확인함. ▪ 미얀마 문화부측에 아국 공관을 통한 공식적인 사업제안요청서(Project Concept Paper, PCP)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부분은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가 지원하도록 협의함.
	미얀마 국립예술문화대학	▪ 미얀마 국립예술문화대학은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원하며, 교수, 학생, 커리큘럼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함.
	미얀마 국립도서관	▪ 미얀마 국립도서관은 고문서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에 대한 수요를 밝힘. 현재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형태로 보관하는 단순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스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파일형태로 보관중인 자료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함.
	미얀마 문화부 고고학과 바간 지부	▪ 지진 피해로 인해 훼손된 건축물에 대한 복구, 재건 및 보존(physical restoration and conservation)도 매우 중요하나, 이와 동시에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 작업,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현지 인력 교육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설파함.
한국 정부기관	KOICA 미얀마 사무소	▪ 지금까지 KOICA가 파악한 미얀마 정부의 문화분야 요청사업은 봉사단 파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바간지역 수공업 관련 봉사단파견 요청, 양곤 국립예술문화대학에서 영화분야 봉사단 요청 등이 있었음. ▪ 3월 경 미얀마 문화부가 공식 요청 예정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KOICA 간 협업체계 마련 중요성을 공유함.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은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미얀마 문화협력 및 지속가능한 문화 ODA 사업 추진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공감함. 또한 현재 미얀마가 문화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중국 3국으로 한-미얀마 문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함. ▪ 조사단이 미얀마 문화부를 통해 파악한 ODA 사업 수요(①미얀마 문화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②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③기록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모두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해외다자기관	UNESCO 미얀마 사무소	▪ UNESCO가 현재 미얀마에서 수행 중인 사업은 바간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 및 바간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퓨 고대도시 보존관리 계획 수립, 표현의 자유를 위한 방송 및 정보 관련 법률 재개정 작업 등임. ▪ UNESCO 사무소가 인지하고 있는 미얀마 문화분야 정책적 우선순위로, 문화유산 보존을 가장 첫 번째로 손꼽았으며, 특히 작년 지진 후 바간지역 문화유산 복원,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함.
NGO	Yangon Heritage Trust	▪ Yangon Heritage Trust는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도시유산 보존 및 개발'을 기관의 비전으로 수립하여 도시유산 기획 및 보존사업,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Yangon Heritage Trust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유산 보존을 위한 법제정, 도보여행 프로그램, 주요 역사적 건출물에 대한 현판 설치 프로젝트, 건축물 보존관리 교육훈련임.

2) 수원국측 문화 ODA 제안과제

□ 미얀마는 유·무형 문화유산 등 문화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기술,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임. 한편, 미얀마 정부는 유구한 문화자원 정보를 후속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문화자원의 지속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및 문화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 기록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미얀마 문화부는 양곤 소재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을 요청함. 양곤 국립도서관은 200년 이상의 고문서 등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 정부 예산으로 일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스캔 후 파일형태로 보관)에 착수하였으나 예산,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문화자원의 효과적인 보존과 관리 역량 제고

○ 또한 미얀마 문화부는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파트너십 프로그램, 장학제도 및 한국 초청연수 등을 통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언급함. 특히 한국의 문화분야 전문가와의 활발한 네트워킹 및 교육훈련을 통해 현지 문화분야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를 기대함.

□ 바간 문화유산 보존 및 기록화

○ 2016년 8월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불교유적 도시인 바간에 있는 3,000여개 이상의 불탑, 사원, 사원 내 벽화 등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고대 건축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 특히 문화부는 바간은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훼손된 건축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복원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문화자원에 대한 기록화가 시급함을 언급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을 요청함.

□ 이상의 문화 ODA 제안과제 중 미얀마 문화부는 기록자료 및 건축물에 대한 보존, 관리 사업 수요를 접목하여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센터 구축' 사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

라. 미얀마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결과

1) 사업 개요

□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은 2018-2019년 총 2년간 2,300백만원 규모로 진행 될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6-9]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Establishment of Digital Information Center for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대상 국가	▣ 미얀마 양곤 및 바간
사업 기간/ 총 사업 예산	▣ 구분 : 신규 ▣ 기간 : 2018-2019년 ▣ 총 사업예산 : 2,000천불
사업 유형	▣ 프로젝트
사업 분야	▣ 기타
사업 목적	▣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향유권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주요 사업 활동	▣ 문화자원 디지털 센터 구축 ▣ 기자재 지원 ▣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 전문가 파견 ▣ 국내 초청연수
우리 측 기대 효과	▣ 문화자원 보존 및 창조적 활용 지원 등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문화 선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동반자 관계 구축

2) 사업 세부내용

[표 6-10]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세부내용

구분	예산(천불)	내 용
센터 구축 및 기자재 지원	650	▪ 문화자원 디지털 센터 설계 및 시공 감리 ▪ 2개 기관 문화자원 디지털 장비 지원 ▪ 디지털 센터 운영 기자재 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650	▪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수집 ▪ 2개 기관 국가문화유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원
전문가파견	350	▪ 문화자원 및 ICT 분야 전문가 파견 및 기술자문
초청연수	150	▪ 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초청연수 실시 ▪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기타사업 관리	200	▪ 기본설계조사 ▪ 실시협의 ▪ 중간평가
총계	2,000	

□ 문화자원 디지털센터 건립 및 기자재 지원

○ 문화자원 디지털 센터 설계 및 시공 감리

○ 2개 기관 문화자원 디지털 장비 지원

○ 디지털 센터 운영 기자재 지원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수집

○ 2개 기관 국가문화유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원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 디지털 등록을 통해 교육, 연구, 경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2개 기관 문화자원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된 문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전문가 파견

○ 문화자원 및 ICT 분야 전문가 파견 및 기술자문

- 장비운영, 데이터관리, 아카이브, 보존처리, ICT, 문화연구 전문가 파견 및 현지교육 실시

○ 기관 담당자 역량 강화 초청연수 실시

□ 초청연수

○ 문화자원 디지털 센터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실시

[표 6-11]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 구축 사업 내용 및 예산(안)

사업내용		세부내역	소요예산	비고
센터 구축 및 기자재 지원	센터 구축	- 건축공사비	- 160천불(양곤 국립도서관) - 128천불(바간 고고학박물관)	-
		- 설계비(건축공사비의 5%)	- 17천불	
		- CM(감리비): 현지인 상주감리(건축 1인/경력 10년 이상)	- 10천불	
		- 예비비(건축공사비의 10%)	- 35천불	
	합계		350천불	
	기자재 지원	- 스캐너	- 5천불 X 6기	- Type: Overhead Type Scanner - CCD: 36bit line CCD - Scan mode: color, grayscale, black & white - Scan size: A2, A3, book size
		- 디지털카메라 및 복사대	- 2천불 X 6기	-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의 복사를 위한 장비
		- 디지털 복원장비	- 150천불	- 3D 스캐너, 디지털 실체현미경, 적외선 분석기, 자외선 분석기 등
		- PC	- 1.5천불 X 4기	-
		- DB서버	- 100천불	-
		- 보존처리 비품	- 2천불	-
	합계		300천불	
	합계		650천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수집	- 정보수집 인력 단기고용	- 30명 X 3개월(100일) X 50불	-
	합계		150천불	
	문화자원 DB 개발	- 2개 기관 문화자원 정보 연계를 위한 통합된 문화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웹 개발, 자료보관 저장소 구축 등: 300천불 - 수집된 문화자원 정보 업데이트: 200천불	-
	합계		500천불	
	합계		650천불	
전문가 파견		- 사업책임자(PM)	- 5천불 X 12개월 X 2회	-
		- 문화자원 보존/관리 전문가(고서 전산화 관련)	- 5천불 X 11개월	-
		- 문화자원 보존/관리 전문가(문화자원 전산화 관련)	- 5천불 X 11개월	

	- ICT 분야 전문가	- 5천불 X 6개월 X 2회 X 2명	-
	합계	350천불	
초청연수	-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 인력	- 15천불 X 10명(3주)	-
	합계	150천불	
행정비/기타	- 기본설계조사	- 60천불 X 사업별 전문가 2명(2주)	-
	- 실시협의	- 25천불 X 전문가 2명(1주)	-
	- 중간평가	- 30천불 X 전문가 1명	-
	합계	200천불	
총 예산		2,000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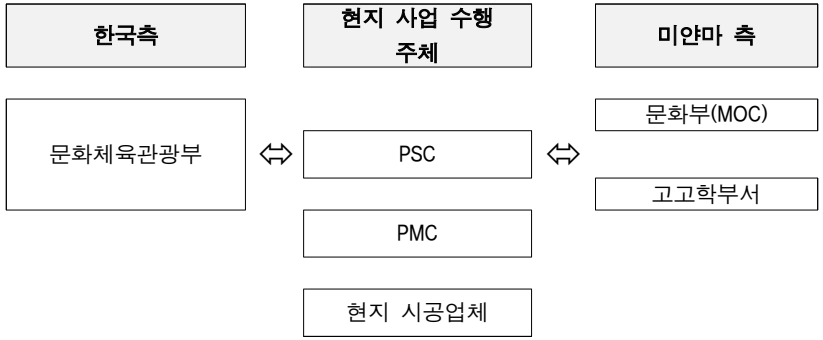
3) 사업 수행체계 및 관리계획

□ 사업 수행체계

○ 사업 수행체계는 공여국과 수원국, 그리고 사업수행주체로 이루어짐. 한국측은 본 사업의 총괄관리를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현지에서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가 본 사업을 총괄관리하며, 미얀마 측에서 중앙정부의 문화부 고고학부서가 카운터 파트가 되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사업협의기구로서 한국과 미얀마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PSC)를 구성하고 현장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한국 또는 미얀마의 설계 및 시공업체가 PMC의 관리 하에 사업을 수행함.

[그림 6-5] 사업수행체계



□ 사업 관리계획

○ (사업관리수행자(PMC)) PMC는 본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본 사업을 대표하여 PM과 PC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PMC의 업무는 주로 양곤에서 중앙정부인 미얀마 문화부와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하는 것임. 주요 업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문화부의 고고학부서와 업무 협의 및 사업 추진
- 사업운영위원회(PSC) 참석 및 보고
- 사업평가(중간평가, 종료평가) 실시
-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센터 건립
- 전문가 파견을 통한 사업수행
- 역량강화(초청연수, 현지교육)
- 기자재 지원(스캐너, 영상 촬영 장비, DB 서버, 보존처리 비품 등)
- 성과관리(Baseline 및 Endline 조사 포함) 및 모니터링
- 필요시 사후관리 방향 제시

○ (사업운영위원회(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미얀마 사업관리팀과 미얀마 문화부를 중심으로 PSC를 구성함. 각 기관에서 동수의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정책

자문을 구함. 사업운영위원회는 5-7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함. PMC는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정책자문을 받음. 공동위원장은 공여국에서 지정하는 대표 1인과 수원국에서는 문화부 차관(보)급으로 함. PMC가 지명하는 현장책임자는 PSC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정책규정 논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검토 등의 사항을 협의함.

○ (양국간 분담사항) 공여국인 한국과 수원국인 미얀마 측의 사업수행 분담사항은 아래와 같음. 한국측은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 양질의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함. 미얀마 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곤 국립도서관 및 바간 고고학박물관 내 센터가 구축될 장소를 제공하고, 양곤 및 바간에서 PMC가 활용할 사무공간을 제공함. 또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 행정편의와 기자재 등의 면세통관을 지원함.

[표 6-12] 양국 간 분담사항

구 분	한국 측	미얀마 측
사무실 운영	- 전문가 파견 및 사업관리 - 사무 기자재 및 자동차 배치 - 필요시 현지직원/통역 고용	- PMC 사무실 공간(미얀마 문화부 건물 내부) - 행정관리 직원 지원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센터 건립	- 센터 설계 및 시공 감리 - 국내초청 및 현지연수 - 센터 조성 - 센터 운영자 훈련 및 운영 지원	- 센터 부지 제공 - 센터 운영인력 선정 - 건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지원 - 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
데이터시스템 구축	- DB 개발팀 구성 - DB 시스템 수요분석 - DB 시스템 세부내용 개발	- DB 시스템 개발팀 구성 지원 - DB 시스템 수요분석 지원 - DB 시스템 세부내용 개발 지원
초청연수	- 초청연수 비용 제공 - 초청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초청연수 대상자 선발 - 초청연수 파견에 대한 편의 제공
기자재 지원	- 센터 사무용품 지원 - 관련 기자재 구매 및 기술 훈련지원	- 센터 사무용품 배치 및 활용 - 센터 직원용 운송수단 배치 및 활용 - 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

4) 사업 수행일정

○ 사업 착수를 위해 해당연도 상반기에는 국내외 실시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를 목표로 모니터링 및 평가 일정 수립

[표 6-13] 사업수행 일정

구분	n				n+1년	
	1/4	2/4	3/4	4/4	1/4	2/4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협의	■					
문화자원 정보 수집		■	■			
센터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	■		
문화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전문가 파견			■	■	■	■
초청연수				■		
중간평가					■	

5)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의 성과모형

○ (산출물) 미얀마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센터 구축, 운영 및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 (성과)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데이터에 대한 자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문화자원 정보데이터 보존을 통한 미얀마 문화자원 관리역량 강화

[그림 6-6] 성과모형

□ 성과지표(KPI)

[표 6-14] 성과지표(KPI)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디지털화 비율	n년 70%	n+1년 90%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중 디지털화 완료 비율 /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중 디지털화 필요 비율 X 100	미얀마 문화부 자체 분기별, 연간 모니터링 자료

□ 평가계획

○ 평가시점 : 사업 착수 후 반기별 중간평가, 사업종료 6개월 이내(종료평가), 사업종료 후 3-5년 후(사후평가)

○ 평가주체 : 양국정부(중간평가), ODA 사업평가 전문외부기관(종료평가)

□ 사후관리 계획

○ 미얀마 문화부의 사후관리 예산배정을 통한 센터 내 기자재 유지관리

○ 국립도서관 및 바간고고학부서의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 관리 인력에 대한 지속적 훈련프로그램 진행

6) 사업추진 타당성 분석

가) 정책적 타당성

□ 미얀마 정부의 문화분야 정책과의 부합성

○ (미얀마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타당성) 2016년 7월 29일 발표된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의 경제정책 기조연설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 중, 공공시설 부문과 관련하여 "고유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노력을 확대"한다는 측면을 명시하는 등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데이터 보존을 통한 미얀마의 문화자원 관리역량을 강화한다는 동 사업의 목표와 부합함.

○ (미얀마 문화정책과의 부합성) 미얀마는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전략(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olicies in Myanmar)을 수립하여, 미얀마의 고대 파고다 및 기념물, 석재 비문 등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분야에 대한 지원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대 미얀마 지원전략과의 부합성

○ (아국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본 사업은 아국의 최근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도 부합함.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은 "다양한 ODA 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개도국 내 발전분야 다각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자부심 및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문화적 특수성, 관광 자원 등에 대한 잠재성이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

시하고 있음.

○ (기타 유관정책과의 부합성)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후 2017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 문화예술 포함 콘텐츠 산업 부문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문화 및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부합함.

□ 국제사회 개발협력 방향과의 부합성

○ (SDGs와의 부합성) 본 사업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들과도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SDGs 시대에 적합한 사업임. SDGs 목표 11번의 하위목표 4번은 세계의 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 문화자원 정보화 사업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을 강화하는 동 사업과 그 연계가 높음.

나) 기술적 타당성

□ 사업대상지역 입지여건의 적절성

○ 센터가 구축될 곳은 양곤 국립도서관과 바간 고고학박물관으로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지 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양곤 국립도서관) 첫 번째로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가 구축될 장소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으로서 2018년 경 시내 중심지로 이전할 예정으로 정보센터로서의 접근성이 확보된 위치에 적절히 자리잡고 있음. 또한 프랑스 개발원조청(AFD)의 지원[43]으로 새롭게 조성될 시설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센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바간 고고학박물관) 또 다른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 센터가 구축될

43) 2017년 3월부터 AFD에 의해 1)양곤항과의 커넥션(city to river) 수립, 2)판소단 거리를 지식과 책의 거리로 조성, 3) 신 국립도서관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사전타당성조사 시 미얀마 국립도서관장과의 면담 결과)

장소는 바간 고고학박물관으로, 바간 유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현지 주민, 관광객 등의 접근성이 용이함.

[그림 6-7] 사업대상지역

양곤 국립도서관 위치	바간 고고학박물관 위치
양곤 국립도서관 자료 전산화 작업실	바간 고고학박물관

□ 투입요소별 기술적 적절성

○ 본 사업의 투입요소는 센터 건립,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으로 이루어짐.

○ (센터 건립 측면) 문화자원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및 관리절차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함. 또한 문화자원 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장비, 운영 기자재(스캐너, 영상 촬영 장비, DB 서버, 보존처리 비품 등)를 함께 제공하여 실제 현지 인력들이 문화자원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함.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측면) 양곤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바간 문화유산 정보 기록화를 통한 DB 시스템 구축작업은 귀중한 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측면) 단순한 하드웨어 구축 사업을 넘어, 실제 지원된 하드웨어 관리 현지인력 대상 교육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초청연수는 본 사업의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6-15] 전문가 파견 상세내역(안)

전문가	전문가등급	자격요건	인원	총투입기간
사업책임자 (PM)	2급	ODA 분야 10년 이상 경력	1	12개월 X 2회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전문가 (고서 전산화, 문화자원 전산화)	2급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1	11개월
ICT 분야 전문가	2급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1	6개월 X 2회

[표 6-16] 초청연수 파견 상세내역(안)

명칭	지역	총인원	횟수	교육기간	주요산출물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	대한민국	10명	1회	3주	효과적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

□ 수원국 수행기관 역량의 적절성

○ 수원국측 수행기관인 미얀마 문화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 Culture)는 미얀마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 증진, 보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 본 사업의 수원국측 수행기관으로서 주인의식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임. 현재 미얀마 문화부는 세 부서(Department of Fine Arts, Department of Archaeology, National Museum and Library, Department of Historical Research)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문화자원의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고고학 및 국립박물관/도서관 부서(Department of Archaeology, National Museum and Library)가 본 사업의 직접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표 6-17] 미얀마 문화부 및 고고학 부서의 책임과 역할

미얀마 문화부 (Ministry of Religious Affairs & Culture)	미얀마 문화부 고고학 부서 (Department of Archaeology, National Museum and Library)
• 미얀마 문화유산 보존 • 국가/국민의 진보를 지원하는 순수예술 장려 • 문화의 발전 및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 수행 • 국민 대상 통일성, 국가적 정신, 애국심 장려	• 역사적 장소 및 고대도시 발굴 • 미얀마 문화적 유산 및 기념물 보존 • 미얀마 문화적 자산 보존 및 증진 •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고고학 박물관 설립과 전시 • 문화자원 수집 및 고대 벽화, 출판물 등 보존 • 수집한 문화자원의 역사에 대한 연구 • 관광 및 박물관/도서관 방문을 통한 전 세계에 대한 미얀마 문화 공유

다) 경제적 타당성

□ 경제적 타당성

○ 본 사업은 미얀마 GDP의 4.2%(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여 관광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미얀마의 주요 관광자원은 쉐다곤 파고다, 바간 등의 불교 유적지이며, 이와 같은 관광산업은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기준 2백만명에 달함(수출입은행 양곤사무소, 2014). 또한 문화자원 디지털 정보센터 구축사업은 향후 문화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문화자원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경우 향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사회문화적 타당성

□ 사회문화적 타당성

○ 본 사업은 미얀마의 유구한 문화자원 정보를 후속세대에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높음. 특히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향후 미얀마 문화분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또 다른 측면에서 2016년 경 아웅산 수지의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컴퓨터, IT 등을 활용한 고부가 기술집약적 산업화를 추구하는 현 정책방향상(KOTRA, 2016) 미얀마의 테크놀로지와 인터넷 보급의 급격한 확대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전례가 없는 경제적·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와 발맞추어 문화자원의 디지털화 작업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3.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가. 인도네시아 일반현황

1) 국가개황

국명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남동부에 위치(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와 접경)		
수도 (주요 도서)	자카르타(수도: 1200만 명), 자바(1억 3,500만 명), 수마트라(5000만 명), 술라웨시(1,600만 명), 칼리만탄(1,200만 명), 약 18,108개의 섬		
기후	연 평균기온 25~28℃		
종족	자바족(45%), 순다족(13.6%) 등 300여 종족		
면적	190만㎢(한반도의 약 9배)	GDP	약 8,726억 불(2015)
인구	2억 5,600만 명 (2015)	1인당 GDP	3,415 불(2015)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 단위	루피아 Rupia(IDR)
종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카톨릭, 힌두교, 불교, 공자교	언어	인도네시아어 (공용어)

2) 국가현황[44)]

□ (정치) 2014년 7월 민주당의 조코 위도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나,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전체의 19%에 불과하여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 정도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빈곤감소) 경제성장과 함께 빈곤 감소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나

44)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 (2016)과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Indonesia 2016-2019 (2016)를 참고하여 작성함.

빈곤인구는 여전히 많음.

○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비율은 2005년 16%에서 2014년 11.3%로 5% 가량 감소

○ 1인당 수입은 3,415 불로 중산층 국가(MIC)에 속함. 절대 빈곤은 1980 년대 중반 22 %에서 2015년 11 %로 하락함.

□ (자원) 석탄채광, 야자유, 구리, 금 채취산업 및 발리관광 등 풍부한 자원에 의존하여 좁은 기반을 형성함.

□ (MDG 달성) 빈곤감소, 보편적 초등교육, 결핵퇴치 및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 감소 달성하였음.

□ 경제

○ (거시경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로 최근 성장세가 감소하였지만, 8차례 경제 활성화 정책 패키지 시행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가격 호황이 끝난 후, 인플레이션 낮추고, 경상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긴축의 결과이며, 미 불 대비 루피아 환율 악화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됨.

- 경제 성장률은 2006 ~ 2010 년 평균 5.7 %에서 2015 년 4.8 %로 하락함. 성장 둔화로 경제의 구조적 약점과 취약성이 드러나 인프라 및 인적 자본 개발에 대한 투자와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 등이 요구됨.

○ (산업구조)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제조업이 발달함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를 이룩함. 최근에는 전자, 자동차, 항공산업 등으로 산업이 다양화됨.

○ (금융)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기간 동안 대규모 해외시장 진출로 자본유출에 취약해짐. 저소득 가구 및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이 필요

□ 사회

○ (인간개발) 지난 10년간 1인당 GNI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는 188개국 중 110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 (균형발전) 특정지역의 자원집중으로 지역 간 불균형, 개인 소득불균형이 심화됨.

-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수 : 0.38%(2010) → 0.40%(2015)

- 명목 소득 : 자카르타(14,816불) > 동부 누사 뎅 가라 (1,414불)

○ (교육)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9년간)까지 보편적 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교육 등록률 100%, 중등교육 등록률 85%를 달성함.

- 초중등교육에서의 남학생대비 여학생 총 등록 비율이 1.0으로 교육부문에서 남녀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보건) 산모사망률이 출생 10만 명당 220명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5세 이하 어린이 중 약 1/3이 기절한 것으로 보고됨. 보건인프라 및 의료시설, 인적자원이 요구됨.

□ 인프라

○ (전체)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GDP의 7%가 넘었던 1990년대 중반에 비해, 금융위기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는 4%로 하락함. 전체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임.

○ 취약한 요인으로는 공공 및 민간 투자율이 낮고, 복잡한 토지 습득 과정, 프로젝트 준비 미흡, 조달 시스템의 복잡성 및 부실한 협조조정 등이 있음.

○ (교통) 누적된 과소 투자로 인해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도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도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임.

○ (농촌) 농촌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식량수입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인구증가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식량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기술) 고급기술에 대한 수요가 기존 교육시스템의 제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 지속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범분야

○ (양성평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고용부문에서 여성 노동력 참여율은 낮고, 근로 여성은 저임금 및 저 숙련 비공식 직무에 편중됨.

○ (환경) 급속한 성장으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곧 홍수, 가뭄, 산불, 폭풍 등의 형태로 재난위험을 야기함.

3) 국가개발계획

□ 2015-2019 중기개발계획(PRJMN)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장기국가개발계획(PRJPN 2005-2025)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5개년 중기개발계획(PRJMN)를 4번 수립, 매년 연간 정부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상호협력을 통한 주권, 자립 및 힘을 비전으로 두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및 기술 개발 개선, 경쟁력 및 서비스 제공 개선을 위한 정책 개혁을 우선시함.

□ 2011-2025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MP3EI)

○ 2025년까지 선진국 경제구조로 전환 및 2050년 GDP 약 26.7조불,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을 목표로 함.

○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 해 국토를 6개 경제회랑으로 구분하고 8대 중점산업과 22개의 세부업종을 선정함.

[표 6-18] 인도네시아 경제회랑 별 중점산업 분야

회랑	중점분야
수마트라(Sumatera)	천연자원 및 에너지 생산
자바(Java)	제조업 및 서비스업
칼리만탄(Kalimantan)	광물 및 에너지 생산
술라웨시-북 말루쿠(Sulawesi-North Maluku)	농수산물 생산 및 가공
발리-누사 텐가라(Bali-Nusa Tenggara)	관광업 및 식량산업
파부아-말루쿠(Papua-Maluku)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 개발

출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aster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and Economic Development)

[표 6-19]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의 8대 중점산업 및 세부업종

분야	세부업종(회랑)
제조업	철강(칼리만탄), 식음료(자바·발리·술라웨시), 섬유·수송기계·기계(자바), 식량(파푸아), 조선(수마트라·자바)
광업	니켈(술라웨시·파푸아), 알루미늄(수마트라·칼리만탄), 구리(파푸아)
농업	팜유(수마트라·칼리만탄), 고무(수마트라)
수산업	어업(술라웨시·발리·파푸아)
관광업	관광업(발리)
IT산업	정보통신기술(자바)
에너지	석탄(수마트라·칼리만탄), 석유·가스(칼리만탄·자바·파푸아)
지역개발	Jabodetabek Metropolitan(자바), 순다대교(수마트라)

출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asterplan o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and Economic Development)

4) 한국의 대 인니 ODA 지원현황

□ 2012-2015년의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추이는 아래와 같음.

○ 무상원조 사업으로 약 28개의 부처 및 기관에서 총 1억 7,318만 불 지원

○ 유상원조 사업으로 총 6,524만 불 지원

□ 2010-2014년간 대 인도네시아 지원은 보건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보호, 교육, 통신, 운송 및 저장분야가 상위를 차지함.

[표 6-20]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분야별 지원현황 2010-2014

(단위 : 백만 불, 총지출, 집행액, 명목가격)

구분	보건	환경 보호	교육	운송 /저장	통신	농림 수산업	에너지	식수공급 및 위생	기타
금액	50.88	17.01	16.05	15.63	14.69	10.62	9.61	9.32	27.66
비율	29	10	9	9	8	6	6	5	16

출처: OECD 통계

5) 선진공여국의 對 인니 ODA 지원현황

□ 국가별로는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이 주요 공여국이며, 일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6억 불을 지원하여, 인도네시아 수원액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음.

○ 호주, 미국, 독일은 무상 중심의 원조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원조의 대부분이 무상 지원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2010년까지 82.7% 이상을 유상으로 지원하다 2011년부터 무상 지원액과 비슷한 유상 지원을 시작하였음.

[표 6-2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인도네시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단위 : 백만 불, 총지출 기준)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일 본	565.4	4	독 일	282.2
2	호 주	386.8	5	프 랑 스	158.9
3	미 국	310.4		한 국	42.7

출처 : OECD/DAC

□ 분야별 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다부문, 생산분야 순임.

○ 2011-2015년 기간 중 對 인도네시아 ODA의 분야별 평균 지원현황은 경제인프라 분야 35%, 사회인프라 분야 33%, 다부문 20%, 기타부문(채무조치, 인도주의 원조) 7%, 생산부문 5%임.

[표 6-22] 對인도네시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단위 : 백만 불)

분 야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사회 인프라	교 육	200	221.1	227.3	178.8	192.5	203.94
	보 건	102.7	203.1	141.7	100	98.3	129.16
	수자원.위생	80.2	69.8	126.2	105.3	47.2	85.74
	기 타	317.8	211.4	439.8	305.7	183.9	291.72
	소 계	**700.7**	**705.4**	**935**	**689.8**	**521.9**	**710.56**
경제 인프라	에 너 지	367.4	42.4	95.5	32.3	1435.2	394.56
	교 통	110.4	80.6	387.3	353.4	675	321.34
	기 타	34.1	22.6	23.3	34.8	30.7	29.10
	소 계	**511.9**	**145.6**	**506.1**	**420.5**	**2,140.9**	**745.00**
생 산 분 야	농림수산	61.6	65.9	114.7	92.7	25.3	72.04
	산업.광업.건설	23.7	19.8	21.2	53.6	23.3	28.32
	무역.관광	9.2	18.1	8.2	24	2.3	12.36
	소 계	**94.5**	**103.8**	**144.1**	**170.3**	**50.9**	**112.72**
다 부 분		240.2	256.7	719.6	582.1	301.7	420.06
기 타		59.7	53.4	464.4	57.8	38.3	134.72
합 계		**1607**	**1264.9**	**2769.2**	**1921.5**	**3053.8**	**2,123.28**

출처 : OECD/DAC

나. 인도네시아 문화분야 현황

1) 현지문화 현황

가) 유・무형문화유산

□ 인도네시아의 자연,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은 사원 및 국립공원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인형극, 춤, 수공예 및 공연예술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유형문화유산은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뜻함.
- ○ 무형문화유산은 지식, 문화적・사회적 가치 또는 집단기억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며, 문화를 살아있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 아래는 UNESCO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주요 유형문화유산임.

[표 6-23] 인도네시아 유형문화유산

구분	유네스코 등재연도	문화유산 명	위치	특징
유형	1991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자바섬, Yogyakarta	세계최대규모의 불교사원
	1991	프람바난 힌두사원	자바섬, Jawa Tengah	대표적인 힌두교사원
	1996	산기란 초기 인류 유적지	자바섬, Jawa Tengah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인류유적지 중 하나
	1991	우중쿨론 국립공원	자바섬, 극서남부	화산섬 연구 등 지리학적 관심이 큰 자연유산
	1991	코모도 국립공원	발리섬, 동부	'코모도 드래곤' 서식지
	1999	로렌츠 국립공원	파푸아	동남아 최대 크기의 국립공원
	2004	수마트라의 열대 우림 지역	수마트라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2011년 '세계 위기유산' 등재
	2012	발리의 문화경관 : 트리 히타 카라나 철학을 보여주는 수박 관개시스템	발리섬	다섯 곳의 계단식 논과 수상사원

□ 아래는 UNESCO에 등재된 주요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임.

[표 6-24] 인도네시아 무형문화유산

구분	유네스코 등재연도	문화유산 명	위치	특징
무형	2008	와양 인형극	자바섬	story-telling 양식의 전통 인형극
	2009	바틱	자바섬	인도네시아 전통 수공예 직물염색
	2005	크리스 단도	자바섬	독특한 비대칭 모양의 단도, 무기와 신앙적 용도로 사용
	2010	앙클롱	서부자바, Banten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2011	사만 춤	수마트라, Aceh	가요족의 전통 공연예술
	2015	발리 전통춤의 3가지 장르	발리섬	왈리/베발리/발리-발리안으로 구분

나) 공연/축제

□ 인도네시아는 다인종, 다언어 국가로써 각 인종마다 유구한 전통문화와 가치를 보유함. 매년 모든 주요 도시마다 지역 색이 짙은 전통공연 및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 공연예술분야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화산업의 융합, 연구개발, 투자,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하는 16개 분야 중 하나로서 창조경제청,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공연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공연예술분야 진흥은 국가 문화정책 다양성의 통일; unity in diversity 과도 일맥상통함.

□ 주요 공연예술 축제 및 단체는 아래와 같음.[45)]

○ 아트 서밋 인도네시아, Art Summit Indonesia: 공연, 전시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 국제현대공연 예술축제

○ 인도네시아 공연예술 마켓,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ket:인도네시아 전역의 기성 및 신진 공연예술단체가 참여하는 공연예술 마켓이며 주로 동부자바의 전통음악, 현대무용, 연극을 선별한 쇼케이스를 선보임.

○ 수라바야 아트 페스티벌, Surabaya Art Festival: 시각예술, 예술마켓, 아동청소년 페스티벌, 도서전, 독립영화 상영 및 전통공연을 포괄하는 다장르 예술행사

○ 가라시 극단, Theater Garasi: 예술가들의 지식공유 및 보급, 공연제작, 출판활동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창조환경을 조성 및 장려하는 커뮤니티이자 연구단체

○ 쿤치 문화연구 센터, Kunci Cultural Studies Centre: 젊은 세대의 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언어 및 시스템 문제로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

○ 케롤라 재단, Yayasan Kelola: 무용, 영화 및 음악 산업 세 분야의 활동으로 구분되며, 문화관련 단체, 축제 및 무대 운영 워크숍을 운영

2) 문화분야 정책동향

□ 1945년 헌법 32조에 "국가는 세계 문명 속의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더욱 증진시켜야 하며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듯이, 인도네시아는 국가문화유산을 보호・보전하고 발전시키고자 함.

○ 1992년 법률 5조는 문화유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45) 동남아시아·중남미 공연예술 현황과 특징 (2007)을 참고하여 작성함.

○ 2007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령 78조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수용을 언급함.

○ 2007년 인도네시아 국민의 전통문화 표현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발 및 활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와 정의인권부서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 헌법 외의 구체적인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정책의 시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윤광석 외, 2012).

□ 2004-2009년 전통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포함하는 두 가지 문화 발전 정책이 실행되었음(ICHCAP, 2013).

○ 문화 발전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전역에 발전되어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해와 인식 증진을 목표로 함.

- 기질(character)개발과 국가의 인도주의적 활동 증진
- 공동체 관습과 전통의 발전
-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문화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실행
- 지역 문화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 문화적 가치 발전을 위한 조직화와 기술적・행정적 서비스의 실행

○ 문화 다양성 관리 프로그램: 예술 및 영화의 보호・발전・활용에 관한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 증진을 목표로 함.

- 예술의 발전 및 보존
- 영화 발전
- 국립미술관의 발전
- 지역축제와 기타 문화적 행사(Pendukungan) 개최 지원
- 지역문화의 다양성 개발 지원
- 문화다양성 관리를 위한 조직화와 기술적・행정적 서비스의 실행

□ 2010-2014년에는 "민족의 정체성과 기질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향상" 을 목표로 문화발전정책이 실행됨.

○ 문화적 가치, 예술 및 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문화예술의 발전, 심층연구 및 공연 촉진
-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관심 및 참여 증진,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촉진
- 미술, 문화 및 영화 작품 감상 증가
- 문화, 예술 및 영화 실무자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 국립미술관 경영의 질적 향상
- Film Censor Institute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
- 역사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 증가
- 기초교육에 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한 커리큘럼 개설
- 인간문화재에 대한 지원 '문화기금' 개발 장려

□ 유형문화유산 중심으로 하는 테마별 정책은 역사-고고학 및 박물관 지원 설립, 도서관 개발, 문화 시설 건립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 (역사-고고학센터 건립) 5개의 지역에 고고학 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역사적 또는 전통적 가치의 보존 및 복원과 전국에 산재한 역사적 고고학적 유물의 보전 및 복원하고자 함.

- 중부자바(총 150개 지역 관할)
- 족자카르타(총 56개 지역 관할)
- 동부 자바(총 92개 지역 관할)
- 발리(총 70개 지역 관할)
- 남 슬라웨시(총 101개 지역 관할)

○ 또한, 장기 및 단기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실행함. 장기프로젝트는 족자카르타의 보로부두르 사원 복원, 중부 자바의 쁘람바난 사원, 동부 자바의 마자빠힛 왕조의 수도 유적지, 서부 자바의 반뜬 항구 도시 연구가 있음.

○ (박물관 설립) 각 지방 정부의 주도아래 건설하며, 국립박물관뿐 아니라 사립박물관도 지원함으로써 박물관 인력교육, 유물보관 상태 개선, 유물구매 및 확보를 추진함.

○ (도서관 개발) 수많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 특성상 원거리 거주 학습자를 위해 도서관 및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문맹률을 낮추고자 함.

○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반둥 단기 교육대학교가 담당함.

○ (문화시설 건립) 전국 각 주에 문화센터를 설치하며, 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전시회, 공연, 작품 전시를 행함. 총 13개의 센터가 건립되어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 개발 아이템 및 지원을 실시함. 또한, 국립예술학교 및 전통극장을 설립하며 예술 활동을 고취 및 재정 지원함.

□ 무형문화유산 중심으로 하는 테마별 정책은 크게 문화개괄사업, 전통문화지원 활동, 언어-문학 개발활동 세 가지로 이루어짐.

○ (문화개괄사업) 인도네시아의 각 종족 별, 시기별 다양한 문화를 총괄하고 연구하는 작업으로, 로컬 문화에 대한 조사 작업을 실시한 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문서화, 평가 및 발굴 작업을 실시함. 이로써,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서로 간에 이해 수준을 높이고, 여러 종교를 가진 인도네시아 국민적 합의 상태를 높이고자 함.

- 영상화 작업, 녹음작업, 잡지, 서적 발간 작업이 동반됨.
- 족자카르타의 소노부도요 박물관 등지의 자바섬의 풍습과 문화에 대한 기록이 좋은 선례가 되고 있음.

○ (전통문화지원) 각 종족의 다양한 소수문화를 인정 및 보존하면서도 그것이 인도네시아의 큰 문화적 틀에 속하도록 함. 국가 문화자원들을 세시풍속, 민속, 전통문화 등으로 목록화하고, 도서발간 및 논문 작성을 추진함. 또한, 전통음악, 작곡, 전통 만담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문화트렌드를 만들어냄.

- 인도네시아 문화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화에 대한 보존정책을 적극 추진함.

[표 6-25] 교육문화부에서 추진하는 설화관련 정책

교육, 문화서비스 관련 지역 혹은 관련 기관이 주도로 설화의 목록 작성함.
전설 글쓰기 경연대회: 전설을 이야기하면 청중이 들었던 전설에 삽화를 더하여 이야기를 작성하는 대회임.
설화와 관련된 서적을 편찬함.
설화에 관한 아동용 도해 경연대회: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가 주도로 설화 관련 책자를 발간할 때, 삽화를 넣는데, 이와 관련한 경연대회임. 삽화가 아동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이 대회를 통해 책 보급을 할 수 있다고 봄. 또한 삽화가들의 기술을 설화 관련 책자에 명시하기도 함.

출처: 윤광석 외 (2012)

○ 또한, 전통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계승하고자함.

○ (언어-문학 개발) 국가 통합을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별 종족 사회의 문화보전을 위해 각 지방의 언어 또한 지원활동을 함. 인도네시아 문학 개발은 말레이시아의 문학 발전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표기된 말레이어를 분석하고 이슬람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함.

3) 행정조직

가) 문화관련 정부부서

□ 인도네시아의 문화정책은 4개의 부처와 1개의 청에서 관할함.

○ 문화 관련 업무는 교육문화부 및 관광부, 조코위 정부에서 새로 신설된 청급 부서인 창조경제청에서 주로 담당함.

- 교육문화부: 전반적인 문화유산 보존 및 진행, 문화관련 정책수립
- 창조경제청: 현대문화산업 융합

- 관광부: 국내 관광지 및 관광시장 개발, 관련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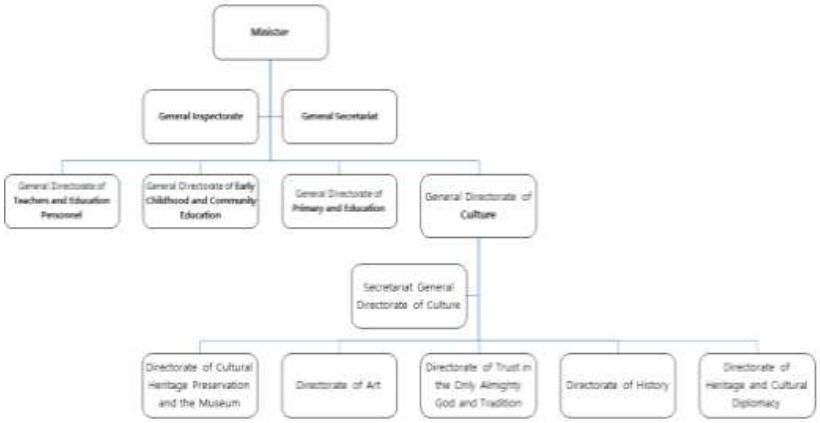
[표 6-26] 인도네시아 문화정책 담당부처

부처	장관	담당
교육문화부	Muhadjir Effendy	문화, 영화, 예술, 전통, 역사, 문화유산, 박물관 및 문화재 관할
관광부	Arief Yahya	관광지 및 관광시장 개발, 정책마련
정보통신부	Rudiantara	국정홍보, 언론총괄
체육청소년부	Imam Nahrawi	스포츠문화 및 스포츠 인재 육성
창조경제청	Triawan Munaf	창조경제관련 융합산업 (건축, 디자인, 패션, 영화, 음식, 음악, 공연 등) 16개 분야 관할

나) 교육문화부

□ 교육문화부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지역 교육업무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문화조직을 관리함.

[그림 6-8]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조직도



출처: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 교육문화부 장관령 [제2015-11호]에 따라 3개의 교육정책 총국과 1개의 문화정책 총국으로 구성됨(문화체육관광부, 2017).

○ 문화담당 총국은 업무에 따라 사무과, 문화유산·박물관 보존과, 예술과, 문화재 및 문화 외교과, 영화진흥원으로 구분함.

- 사무과: 정책, 기획, 사업, 활동, 예산 시행 평가 및 감독
- 문화유산·박물관 보존과: 문화유산 등록, 문화유산 및 박물관 인력 육성
- 예술과: 공연, 미술, 미디어 아트, 문서기록, 예술인 부문의 정책마련 및 조정
- 문화재 및 문화외교과: 지역 및 국가간 문화교류 및 홍보 시행, 세계문화유산 관리, 문화부문 지적재산권 보호 마련, 무형·유형문화제, 국내외 문화외교, 기록문서 부문 정책마련
- 영화진흥원: 영화사업 및 활동 관리 및 감독,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문화 발전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의 미션을 가짐.

○ 교육 및 문화적 주체 강화 실현
○ 교육 및 문화에 대한 접근, 공정성 확장 실현
○ 학습 품질을 실현
○ 문화 및 언어 보존을 실현
○ 거버넌스와 공공 참여의 효과성 향상 및 강화 실현

□ 교육 및 문화 발전에 대해 크게 네 가지의 전략목표를 실시함.

○ 학생, 교사, 직원, 학부모 및 교육 기관 개혁을 통한 역할 강화
○ 문화 및 문화 공연 보존에 대한 권한 부여
○ 유아 교육, 초등 교육에 대한 접근 향상
○ 보존 및 문화 외교를 통해 국가 정체성 개선

다) 창조경제청[46]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창조경제 분야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초석이라고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개발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창조경제청을 설립함.

□ 2015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2015-6호]에 따라 발족됨.

○ 인도네시아의 창조산업을 위한 정책 틀을 개발함에 있어 영국 정부의 문화 통신 및 창조산업부와 2012년 양해각서 체결함

□ 창조경제 개발에 크게 다섯 가지의 미션을 가짐.

○ 자립적 창조경제의 달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 모든 창조적 잠재성 및 자산 단일화
○ 창조 산업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46)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도네시아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갖춘 창조부문 혁신 촉진
○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구축
○ 세계창조경제 속 인도네시아가 포함되도록 특정 전략 수립 및 시행

□ 어플리케이션·게임 개발,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시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산업디자인, 패션,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 사진, 음식, 수공업, 음악, 출판, 광고, 공연, 미술, TV&라디오 16개 분야를 다룸.

다. 인도네시아 문화 ODA 문제 및 목적 분석

1) 문제분석

□ 200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유형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 및 프람바난 힌두사원이 최근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 재해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함.
○ UNESCO에서는 보로부두르 사원 복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전략이 수립되는 등 유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지는 편임.

□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문화 보호와 진흥을 위한 발전 정책을 2004년, 2010년 시행한 바 있으나 1) 문화적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예술 및 영화의 발전 등 포괄적인 범위로 설정되었으며; 2) 중장기적 목표가 아닌 5개년 단위의 단기적 목표만이 수립됨.

□ 인도네시아 내에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무형유산 중에서도 특히 전통음악(국악)은 전담부처, 협회 등이 존재하지 않고 않으며, 국가문화정책 상에서 전통음악이 언급되어 그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관광/축제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임.[47]

○ 전담부처가 없어 교육문화부, 관광부 등 여건에 맞게 관련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책/제도 담당자들의 전문교육 또는 역량강화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임.

□ 공연, 축제 등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의 일차원적 활용뿐만 아니라 전통음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통음악 지도자/정책·제도담당자의 인적 역량개발이 필요함.

2) 목적분석

□ 인도네시아 전통음악진흥과 관련된 핵심문제점인 "제도 및 인적역량 부족"의 해결을 위한 목적은 "마스터플랜 구축 및 인적역량 강화"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구성요소 및 활동은 아래와 같음.

[표 6-27] 사업구성 요소 및 활동

문제	목적	활동
제도적 문제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조직역량개발	• 전통음악진흥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국악 정책 담당자 교육
인적역량 문제점	인적역량 개발	• 전통음악 지도자, 전통음악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자의 인적역량 개발 (전통음악교육, 전통음악센터 운영 등)

라. 인도네시아 문화 ODA 시범사업 발굴 결과

1) 사업 개요

□ 인도네시아 전통문화보존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목적 분석을

47) Republic of Indonesia,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Strategic Plan of Culture 2015-2019 참고

통해 발굴된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진흥을 위한 한-인니 지식공유사업”의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표 6-28]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사업명(국문)	▣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진흥을 위한 한-인니 지식공유사업
	사업명(영문)	▣ Promotion of Traditional Indonesian Music through Korea-Indonesia Knowledge Sharing
	대상국가 (대상국내 지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사업기간/ 총 사업예산	▣ 구분 : 신규 ▣ 기간 : 2018-2019년 ▣ 총 사업예산 : 805천불 ('18년 : 690천불)
	사업유형	▣ ③ 개발컨설팅
	사업분야	▣ 기타 (문화)
	사업 목적	▣ 인도네시아 “다양성의 통일” 문화정책에 기반한 전통문화 및 전통음악의 보존 ▣ 양국 음악인을 위한 협력기회 제공 및 협력대상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 문화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증진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해결(SDGs 11)에 대한 기여

2) 사업 세부내용

[표 6-29] 사업 세부내용

구분	예산(천불)	내 용
전문가 파견	115	▪ 전통음악 진흥에 대한 한국의 경험 전수, 국악 지도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기본 교육 ▪ 현지 상황파악
초청연수	230	▪ 20여명의 전통음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인력을 초청하여 3주간 서울 및 전주에서 연수 진행
마스터플랜 수립	345	▪전통음악 진흥정책의 방향성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 플랜수립 - 전통음악 진흥정책의 방향성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 플랜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안)로 작성 1. 환경변화와 국악 2. 현황 및 문제점 3.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 전통음악 보전을 위한 법제도 구축안 - 국립국악원 설립안 - 국립국악오케스트라 설립안 - 사이버 전통음악종합자료아카이브 설립안 - 서적 및 음반 발간 계획 - 미디어 및 SNS 활용 방안 등 4. 재원동원 계획
기타사업 관리	115	▪ 기본설계조사 ▪ 실시협의 ▪ 중간평가
총계	**805**	

가) 전문가 파견

□ 전통음악 진흥에 대한 한국의 경험 전수, 전통음악 지도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기본 교육, 또한 현지 상황파악을 목적으로 함.

□ 전문가파견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6-30] 전문가파견 세부내용

전문가	전문가등급	자격요건	인원	국외투입기간	총투입기간	비고
사업책임자 (PM)	2급	ODA 분야 15년 이상 경력	1	2개월 X 1회	2MM	
전통음악 정책 전문가	2급	전통음악 정책 분야 경력 15년 이상	1	2개월 X 1회	3MM	

나) 초청연수

□ 국악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자의 인적역량개발을 목표로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6-31] 초청연수 세부내용

명칭	지역	총인원	횟수	교육기간	주요산출물	비고
전통음악 진흥 교육	대한민국 (서울 및 전주)	20명	1회	3주	전통음악 정책, 전통음악 교육, 국립국악원 운영 등 전통음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인력 양성	

다) 마스터플랜 수립

□ 인도네시아에 전통음악 진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 플랜 수립을 목표로 하며, 세부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6-32] 마스터플랜 수립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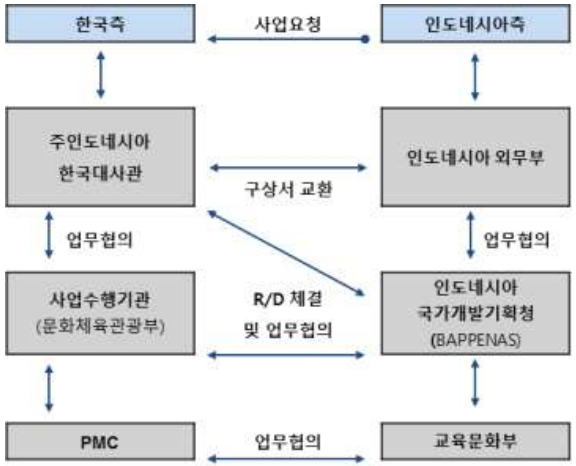
전문가	전문가등급	자격요건	인원	국내투입기간	총투입기간	비고
사업책임자 (PM)	2급	ODA 분야 15년 이상 경력	1	3개월 X 1회	3MM	
전통음악 정책 전문가	2급	전통음악 정책 분야 경력 15년 이상	1	2개월 X 1회	2MM	
전통음악 교육 전문가	2급	전통음악 교육 분야 경력 15년 이상	1	2개월 X 1회	3MM	
연구보조원 (PAO)	5급	-	1	12개월 X 1회	12MM	

3) 사업 수행체계 및 관리계획

가) 사업수행체계

□ 동 사업 총괄기관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이며, 사업수행기관 간 협의의사록 체결 후 정부 간 구상서를 교환함.

[그림 6-9] 사업수행체계



□ 사업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이며, PMC업체 선정 후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실무책임자와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수행주체별 분담업무는 아래와 같음.

[그림 6-10] 수행주체별 분담업무

구 분	사업내용
[한국측]	
프로젝트 수행기관(PMC)	□ 전문가 파견 □ 마스터플랜수립 □ 국내 초청연수(인원 : 약 20명) □ 각 단계별 보고서 작성 등
[인도네시아측]	
국가개발기획청 (BAPPENAS)/ 교육문화부	□ 인도네시아측 지원사항 총괄 지원 - 카운터파트 지정 및 사무실 제공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 -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지원 등

나) 관리계획

□ (사업부문별 관리) 사업 확정 및 협의의사록(ROD) 체결 시 ROD 상에 제시된 전문가 파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강화 및 국내초청연수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하며, 양국 간의 부문별 관리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6-33] 양국 간 분담사항

구 분	한국 측	미얀마 측
사무실 운영	- 사업관리 - 사무 기자재 및 자동차 배치 - 필요시 현지직원 고용	- 사무 공간, 행정적 지원
전문가 파견	- 분야별 적정 전문가 선발 및 파견 -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교육실시 관리	- 전문가 파견 전, 입국 비자 및 거주 허가 제공
국내 초청연수	- 적정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시계획 수립 - 연수기관 선정 및 연수 실시 - 연수결과 평가 및 Feedback	- 적격 연수 후보자 추천 및 통보
마스터플랜 수립	- 마스터플랜 수립 관리	- 관련보고서, 설문자료, 지도 등 - 필요자료 제공
사업관리	- 사업협의 및 평가 - (중간, 종료, 사후평가) 등	- 중간, 종료 및 사후평가 협조

4) 사업 수행일정

□ PMC 선정 후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시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사업일정관리

□ 사업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고서 작성계획, 전문가 파견계획, 실무자 초청계획,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수립

[표 6-34] 사업 수행일정

구분	n년				n+1년	
	1/4	2/4	3/4	4/4	1/4	2/4
현지 교육 및 현황조사		■	■			
초청연수				■		
마스터플랜 수립				■	■	
기본설계조사 및 실시협의	■					
중간평가				■		
평가 및 후속사업 준비						■

5)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 프로젝트를 통한 성과 목표는 아래와 같음.

- ○ 인도네시아 문화정책에 기반한 전통문화 및 전통음악의 보존
- ○ 양국 음악인을 위한 협력기회 제공 및 협력대상국과의 협력관계 증진
- ○ 문화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 장기 성과목표는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진흥임.

□ 단기, 장기 성과목표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설정한 사업 구성요소별 목표치(측정지표, 목표, 달성도), 산출 근거, 자료출처는 아래와 같음.

[표 6-35]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년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자료출처
	측정지표	목표	달성도			
현지 교육 및 컨설팅	M/M	5	100	현지에 전문가 파견	현지에 전문가 파견	전문가 보고서
초청연수	교육횟수	20명	100	연수횟수	연수인원 측정	연수결과 보고서
마스터플랜 수립	갯수	1	100	수립된 마스터플랜	수립된 마스터플랜	마스터 플랜
기타사항 (기본설계조사, 실시협의, 중간평가)	계획안 및 보고서	최소 3개	100	현지에 전문가 및 사업책임자 파견	작성된 계획안, 보고서	기본설계조사 보고서,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중간평가보고서

6) 사업추진 타당성분석

가) 정책적 타당성

□ 국무총리실의 개발협력위원회에서 수립한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ODA 지원 기본전략인 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지원은 「“풍요롭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인도네시아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다양한 종족과 언어,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를 국악을 통해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의 목표인 “자주적이며 선진적인, 공정하고 민주적인, 평화롭고 통합된 국가 설립”에 기여할 수 있음.

나) 경제적 타당성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화에 대한 연구, 교육, 투자, 정책개발, 국내·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고자 함.

□ 이미 문화산업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을 통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간의 협업가능성이 많아 한국의 경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다) 기술적 타당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과에서는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추진, 문화분야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문화교류에 대한 문화 ODA 사업 수행이 가능함.

□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진흥, 민족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대한 관련 노하우 이전 시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보존 및 세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인도네시아 측에서도 현재까지는 민간 기관에서 주도하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축제, 워크샵,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왔음.

- ○ 축제: 지역특징적 축제, 국제문화교류 축제 등 다수
- ○ 워크샵 및 세미나: 디지털시대에서의 음악산업, 글로벌 시작에서의 세계음악,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서 자바의 과거, 현재와 미래 등

□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라) 사회문화적 타당성

□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SDGs의 4번 '양질의 교육 제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형·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해 17번 '파트너십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 양질의 교육제공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유구한 문화유산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하는 기회로 활용
- ○ 또한, 다문화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및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여 문화강국이라는 국가이미지 제고 및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사회통합 촉진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1. 문화분야 협력전략 수립방안

□ 사업대상국 선정

○ 어떤 사업대상국을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 ODA 시행의 첫 단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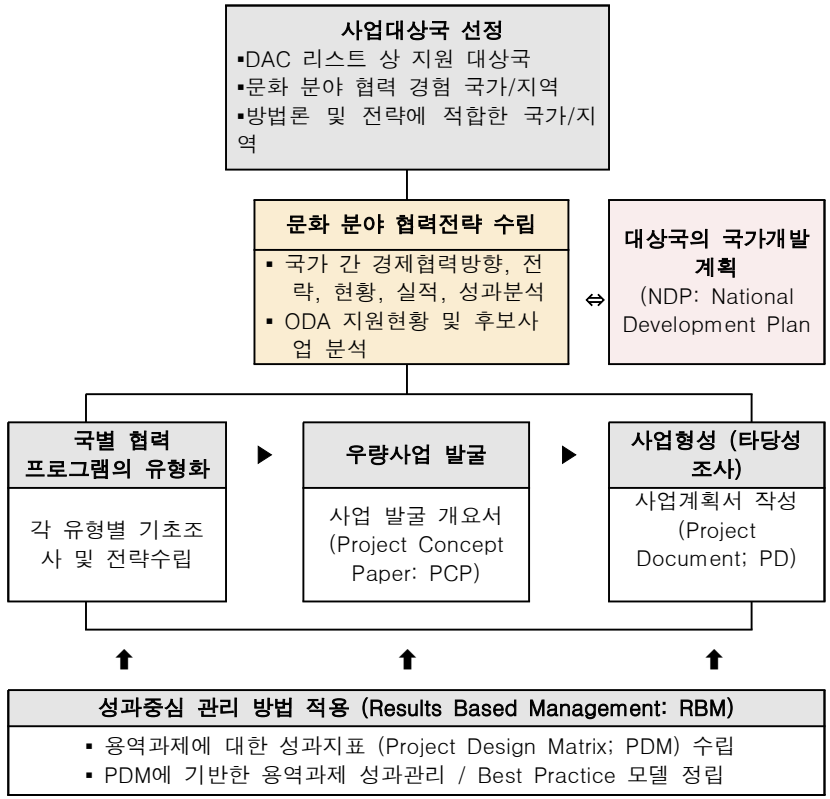
- 통상 일반적인 ODA 분야(sector)인 보건, 지역개발, 교육 등의 경우 ODA 중점협력 대상국과의 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이미 정의되어 있음.

○ 분야(sector)로 정의되지 않은 문화의 경우 별도의 사업대상국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중기적) 협력대상국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① DAC 리스트 상 지원 대상국 >> ② 문화 분야 협력 경험 국가/지역 >> ③ 방법론 및 전략에 적합한 국가/지역 으로 범위를 점차 좁혀 주요 협력국 선정할 것을 제안함.

○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중기적(3-4년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중기적 협력대상국을 선정함.

[표 6-36] 문화 ODA 사업 추진 프로세스



□ 국별 문화분야협력전략 수립

○ 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각국별 문화 ODA 협력절차의 기본 연구를 수행하며 이는 기존의 국별분석프레임(Country Analysis Framework, CAF)을 문화협력 분야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 ([표 6-37])

○ CAF는 1. 국별진단(Country Assessment), 2. 개발협력현황(IDC status), 3. 분야협력디자인(Sector Cooperation Design) 으로 구성됨.

- <1.국별진단>의 기본틀은 국가의 기본적인 현황(context), 동향(performance), 발전전략(strategy)을 조사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문화 ODA의 경우 적절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

[표 6-37] 국별분석프레임 - 국별진단

	개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Country Assessment	Context	National	Resources	Geography
				Human Resources
				Capital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Stakeholders	Governmental actors
				Companies
				Non-state organizations (Unions, Associations, Religious groups, political parties)
			Rules of the Game	Formal rules (property rights, contract law)
				Informal rules (conventions, culture, religious beliefs, ideologies)
		International	Location	Geopolitics
				Geoeconomics
			Foreign Aid Harmonization	Major donors: sectors and modal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formance	Economic	GNP	
			National Income	
			Prices (wages, interest rates)	
			Inflation	
			Unemployment	
		Social	Income distribution	

			Fertility
			Mortality
			Literacy
		Political	Political Stability
			Political Freedom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Tariffs, Quotas
	Strategy	Goals	Economic Growth
			Income Equality
			Macroeconomic Stability
			National Autonomy
		Policies	Fiscal, monetary policies
			Exchange rate policies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Sectoral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Social policies

- <2. 개발협력현황>의 경우 국가발전전략과 이해관계자(기존 공여자, 관료조직 현황, 시민사회, 민간 등)에 대한 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관련 분야(문화)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 현황을 파악함

[표 6-38] 국별분석프레임 - 개발협력현황

2.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atus	Existing Plan	National Development Plan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Stakeholder Analysis	Harmonization	Bilateral Donors
			Multilateral Donors
		Bureaucracy and PA	Gate Keepers
			Executing Agencies
		Civil Society	
		Private Sector (Business)	
	Cooperation with Korea	Cooperation in Culture Sector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 <3 분야협력디자인(Sector Cooperation Design)> 은 양국간 문화 ODA 분야에서의 중기적 협력 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위해 문화분야에 대한 현황, 중점영역 파악, 그리고 프로그램상 PDM 작성 등의 작업을 수행함.

[표 6-39] 국별분석프레임 - 분야협력 디자인

3. Sector Cooperation Design	Sector Overview	Priority Issues
		Specific Areas of Work
		Cross Cutting Issues
	Program Design Matrix, Logical Model Develop ment	Inputs, Budgeting
		Outputs
		Outcomes
		Impacts
		Risks, Assumptions, Critical success Factors

2. 프로젝트 발굴 전략 및 방법

□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가?

○ 문화 ODA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수원국 수요에 입각한 사업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사업 실행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수원국 수요의 경우 협력국의 문화 여건에 맞는 사업
- 문화분야에 대한 개발효과성이 뛰어난 사업
- 사업 실행가능성의 경우 형성-개발-시행-실행으로 이어지는 사업 싸이클에서 제반 여건이 우수한 사업

□ 사업발굴을 위한 전략 또는 안전장치(safeguard)로서 문화접근 가이드라인 수립

○ Throsby (2000)가 제시한 여섯 가지의 문화정책 기준을 문화 ODA 사업발굴에 있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① 물질적 및 비물질적 웰빙 - 경제적 및 문화적 가치원천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유용성 형태의 이익 창출

② 세대 간 형평성과 역동적 효율성 - 문화 자본에 대한 접근은 기타 자본의 세대 간 이익 분배의 형평성과 같이 취급

③ 동일 세대 간 형평성 - 모든 사회 계급, 소득 그룹, 지역성을 걸쳐 현재 세대의 문화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확보

④ 다양성 유지 - 다양한 자원을 통해 더욱 다채롭고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미래 문화유산 창출

⑤ 사전 예방 원칙 - 돌이키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은 각별한 주의와 위험회피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함.

⑥ 문화 시스템의 유지 및 상호 의존성 인정 - 어떤 시스템의 어떤 부분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

○ 본 가이드라인은 문화 자본의 지속적 개발 평가를 위해 정책에 이용되었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화ODA사업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혜자들에게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함.

□ 이상과 같은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발굴 리뷰 보드(Review Board)를 사업발굴에 활용

[표 6-40] 사업발굴 리뷰 보드 (Review Board)

분야	체크 포인트	리커드 스케일
수원국 수요	협력국의 문화정책과 일치하는가?	5-4-3-2-1
문화접근	문화접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가?	5-4-3-2-1
개발효과성	문화 분야 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5-4-3-2-1
사업실행가능성	협력국 시행기관(EA)의 열의와 역량은 충분한가?	5-4-3-2-1

□ 어떻게 사업을 형성-개발 할 것인가?

○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에 기반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사업개발을 위해선 전문적인 사업 개발자의 투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사업 컨셉의 구체화를 통한 PCP 작성 컨설팅

- 수혜그룹 – 시행기관 – 수원총괄기관 등의 동향 파악 및 현지 유통 채널 확인
- 공여주체(문체부)와 협력국간의 이해 관계 조정
- 한국 및 협력국에서 잠재적 사업수행자, 컨설턴트 등 발굴

○ 무상원조 사업으로 승인된 이후 개발자는 PM으로서 사업 시행을 관장할 수 있음.
- 문체부는 PM(Project Manager)을 고용하여 사업의 시행(execution)을 위탁
- PM 기관은 문체부를 지원하여 수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R&D 체결, 타당성조사 시행, 제안요청서 작성, 조달 시행, 성과관리 등 제반 단계 사업시행을 지원

□ 어떻게 사업을 수행(implementation) 할 것인가?
○ 사업의 조달을 거쳐 수행 기관(PC)을 선정
○ PM 기관은 사업의 진행관리 및 성과관리를 담당
- 기초선, 중간선, 종료선 등 데이터 관리
- PDM에 입각한 사업 성과관리 및 종료평가

제 7 장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 1 절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 국제사회에서 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 논의가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형 ODA 모델'에서 문화분야가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도국 발전에서 문화가 기여하는 바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문화 ODA의 인지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단기적 비연계성 개별사업의 추진과 문화교류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국의 ODA 정책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문화 ODA의 비전과 정책 및 중장기 추진전략과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수립을 위해 문화 ODA의 개념을 정립하고, 비전과 전략목표,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 **(문화 ODA의 개념)**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원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를 증진하며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ODA 사업이며, 수원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형 문화 ODA)** '한국형 문화 ODA'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의 토대로서 한국형 문화 ODA는 "한국 ODA 및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로 정의함.
○ **(비전)** 한국 문화 ODA의 중장기적 비전으로 "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제시
○ **(전략목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3가지로 수립하여 각 목표

아래 세부 전략과제를 구성

- 목표 1: 문화 ODA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범정부적 인식 제고와 예산 확대, 수원국의 우수 파트너를 발굴하고 협업을 다각화하는 **'문화 ODA 기반 확대'**
- 목표 2: 적정한 문화 ODA 중점지원 분야 및 사업의 발굴을 위한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 목표 3: 정부 ODA 체계 안에서 중점협력국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문화 ODA 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 **(추진계획)**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각 전략목표별로 3단계로 나누어 추진계획 수립

- 목표 1 **'문화 ODA 기반 확대'** 달성을 위해,
  - 기반조성기(2017-2018): △문화 ODA에 대한 정부, 문화계, 기업, 시민 차원의 인식제고 △관련 예산 확대 △타 공여기관 및 문화계, 민간과의 파트너십 기반 마련
  - 기반내실화기(2019-2020): △신규사업을 확대 선정, △민간파트너 참여사업 시범적으로 이행
  - 기반확대기(2021-): 성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연속성 확보에 주력
- 목표 2 **'수원국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문화역량 증진'** 지원을 위해,
  - 사업 선정 및 착수기(2017-2018): △중점지원 사업 선정, 사업계획 구체화
  - 성과사업 홍보기(2020): △기 수행한 성과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성과점검기(2021-): △규칙적으로 사업성과 점검 △고성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 목표 3 **'개발협력 조화와 일치'** 제고를 위해,
  - 체계준비기(2017-2018): △중점협력국 선정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시행 △아국 정부 내 관계부처와의 문화 ODA 사업 통합과 조정을 위한 논의 개시

  - 체계구축기(2019): △중점협력국 선정 △정부 내 문화 ODA 사업의 통합, 조정체계 마련
  - 체계공고화기(2020-):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사업확대 △아국 정부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ODA 사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제 2 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수행체계

□ 한국의 ODA 분절화 및 협업부재 문제를 고려할 때, 문화 ODA의 통합적, 전략적 추진체계와 사업 수행체계 구축이 중요함.

□ 문화 ODA 사업 수행체계는 '공여국/기관-수원국/기관-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는 일반적인 ODA 사업 수행체계와 동일하나 문화분야는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관계기관과 부처, 협력기관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의 체계화가 필요함.

○ 특히 정보유통, 의사결정, 예산사용, 평가 및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체계가 복잡하므로 협업 시스템 마련이 매우 중요함.

□ (문화 ODA 수행체계 강화) 현재 한국의 문화 ODA 수행체계는 의사결정기관인 △무상원조 전담부처인 외교부와 △문화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평 양분된 것에 더해, △수행전담기관인 각종 산하기관으로 수직 양분되어 있음. 문화분야 의사결정기관, 수행전담기관 모두 ODA사업 경험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는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 문화 ODA 수행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분담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괄조정), 외교부(무상원조 주관), 기획재정부(유상원조 주관) 및 문화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업과 조정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산하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관리 ODA 역량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한국의 문화 ODA를 수행하는 핵심기관들(한국국제협력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간의 효과적 협력을 위한 역할조정과 통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혹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에서 '문화 ODA' 의제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략과 사업의 사전조정과 조율이 필요함.

□ 타 ODA 분야 사업과 달리, 문화 ODA는 '수원국의 문화 ODA 역량강화'와 '의도적인 현지역량 활용'이 결정적 사업수행 성공요인이므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현지역량의 양성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함.[48]

○ (현지역량 활용) 문화 ODA의 특성상 공여국의 자원만을 가지고 수원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수행의 전 단계에서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지지식과 기술 및 현지 시스템과 전통을 활용하는 것이 긴요함.

○ (사전조사 강화) 문화 ODA는 현지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우량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발굴과 디자인 단계에 비교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적 특성이 있음. 따라서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자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사전타당성 검토 시 현지 전문가의 참여와 현지 관계기관의 역량평가, 활용방안을 토대로 모색하여야 함.

□ 민관협력 다각화

○ 문화 ODA는 현지 수원국에 진출한 아국 기업과 민간단체들을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정부의 ODA 재원 뿐 아니라 공공외교 및 한류확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원과 현지 지출기업과 단체들의 자발적 기부와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원확대도 도모할 수 있음.

48) 본 연구보고서 제 2장 제 2절의 설문조사 결과 참고

제 3 절 한국형 문화 ODA 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문화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 ODA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과 '문화 ODA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관심증진' 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판단됨.[49]

○ (문화 ODA 전문인력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서 ODA 전문가를 신규 채용함과 아울러, 기존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가동 필요

- 교육, 보건, 농촌개발 등 전통적인 다른 ODA 분야에 비하여 문화 ODA는 후발주자라 할 수 있으므로, 문화 ODA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책운영과 사업에 투입 될 수 있어야 함.

○ 개도국 파견전문가, 봉사자의 활용 뿐 아니라 문화동반자사업 등의 사업경험을 통해 양성된 문화 ODA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문화 ODA 추진 인력을 보강하고 지원해야 함.

○ (문화 ODA 인식 및 관심 증진) 정부 내 또는 시민을 상대로 문화 ODA 인식 제고를 위한 별도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 고려(문화와 발전에 대한 교육사업 등)

- 지금까지 펼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ODA의 인지도는 높아졌으나, 경제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ODA 공여규모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증가(박복영 외, 2014),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ODA 사업의 전반적인 인식의 위기가 있어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문화 ODA의 다자협력 기반 확대

○ UNESCO, UNDP, World Bank, WTO 등 문화분야 ODA 수행을 위해 협력이 긴요한 다자기구에 대한 신탁기금(Trust Fund) 확대와 효과적 사업관리로 전문인력 양성과 경험 축적이 필요함.

□ 문화 ODA 브랜드사업 발굴

○ 본 연구에서 제시한 13개의 대표 사업을 각각 브랜드화하고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문화 ODA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을 발굴함. 특히, 개발도상국 인재를 초청하여 관련 학위연수 과정(가칭 글로벌브레인코리아(GBK)[50])을 진행하거나 현재 문화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동반자사업(CPI)과 같은 쌍방향의 장기적 인적 네트워크 기반 확충사업이 필요함.

49) ibid.

50) 가칭 '글로벌브레인코리아(Global Brain Korea)'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봉사단 및 전문가 파견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인재를 초청하여 '글로벌브레인코리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고등교육 시장을 키우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팀이 제안한 사항임.

제 4 절 한국형 문화 ODA사업 성과제고 방안

1.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 지원

□ 한국은 피식민지 경험과 ODA 수원 경험을 가진 공여국이며, 전쟁과 민족국가 수립,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후발 공여국으로서 이런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십분 활용하여 여타 공여국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 가운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무형문화유산지원, 디지털 미디어랩, 도시재생 사업 등).

- ○ 이를 통해 선진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ODA 지원규모와 짧은 지원 경험을 극복하는 한편, 수원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호혜적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발 단계부터 성과관리 주력

□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성과관리를 계획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여야 함. 다른 분야 ODA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사업기간을 가진 문화 ODA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적용하여 긴 사업기간 동안 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여 나가야 함.

□ 문화 ODA는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공동체적, 사회적 가치와 무형의 문화자본 축적에 기여하므로 양적지표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문화 영향력(Impact) 측정이 중요함. 이를 위해 '문화영향평가(CIA)' 제도를 개도국과 협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문화교류를 통한 쌍방향 ODA 사업 지향

□ 다른 분야 ODA와 달리 수원국 - 공여국 사이에 수평적 교류와 문화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호혜적 이익 증진이 가능한 문화 ODA의 특성을 십분 살려, 폭넓은 문화경험을 시민에게 선사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ODA 사업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음.

- ○ 정부의 일방적 공여가 아니라 공여국과 수원국의 시민사회(NGO)와 대학, 지역공동체, 시민까지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교류 ODA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함.

[부록 1] OECD 국가의 관광 분야 사업 총액 변화

원조금액	구분: 총 지출 (Gross disbursements), 단위: 백만 불(current USD millions)					
해당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순위
기부국						
한국	0.43	1.21	1.08	2.61	1.60	10
호주	0.02	-	-	-	-	-
오스트리아	2.17	1.49	1.95	1.10	0.72	14
벨기에	0.48	0.46	0.40	0.30	0.01	22
캐나다	0.64	0.59	4.30	5.01	2.11	8
체코	0.08	0.05	0.04	0.04	0.02	21
덴마크	0.82	2.23	-	0.56	5.88	4
핀란드	2.65	1.96	0.22	0.73	5.96	3
프랑스	31.35	6.10	16.54	3.84	1.57	11
독일	7.85	2.59	3.62	2.72	0.69	15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0.01	-	-	-	-	-
이탈리아	2.77	1.69	0.94	0.57	2.38	7
일본	25.87	96.30	52.78	71.48	41.83	1
룩셈부르크	2.03	2.08	1.36	1.88	2.87	6
네덜란드	1.71	0.61	-	-	-	-
뉴질랜드	13.85	10.10	8.23	7.03	16.39	2
노르웨이	12.77	3.32	2.96	0.48	0.24	18
폴란드	-	-	-	0.17	0.19	19
포루투갈	0.05	0.01	0.00	-	0.50	16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0.03	0.14	0.10	-	0.08	20
스페인	4.11	1.39	0.57	2.41	0.97	13
스웨덴	-	-	-	-	0.42	17
스위스	4.37	-	3.80	4.40	4.39	5
영국	2.90	2.76	1.57	0.02	1.79	9
미국	5.67	8.36	14.72	34.61	1.16	12
총계	122.63	143.44	115.18	139.96	91.77	

출처:OECD 통계홈페이지 재구성 (검색일: 2017.06.29.)

[부록 2] 한국의 문화분야 분석

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류 기준 \ 분류 영역		문화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 측면	한국적 경험	□ 문화재보호 및 관리제도 구축 □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체계 마련 □ 문화정보화 정책 추진	□ 문화기반시설 지속 증가 □ 문화정보화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문화유산 온라인 통합 관리를 위한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한 기관 설립 □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센터 운영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양성)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매장문화재조사교육과정 운영)
		□ 문화재보호제도(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51] ○ 문화재보호제도: '61년 10월 문화재관리전담기구로서 문화재관리국을 발족시키고, '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였음. 특히 한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제도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애호사상을 고취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왔음(문화재청, 2012). - 문화재보호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등록문화재제도 도입	□ 문화기반시설 지속 증가 ○ '15년 전국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각각 780관, 202관으로 '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박물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e-나라지표).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한 기관 설립[53] ○ 동래야주, 양주별산대놀이, 통영무형문화재 등의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보유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70년 8월 도입)[56]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를 전담제도로, 표준화된 문화재수리 전문가 양산 ○ 동 제도 운영으로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문화재수리지침) 및 문화재표준품셈(문화재수리공사비 산정기준) 발전 ○ 문화재수리기술자 양성을 위한 정규대학과정은 문화재청이 설립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유일('00년 2월 개교)

		- 문화재보호주체의 다원화를 위한 국민신탁법 제정 -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재정 하에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반예산 외 별도 재원으로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 고도의 보존을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제정 - 문화재수리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제도의 별도 법률화 추진 등 ○ 특히,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등은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재보호제도로 성장하며 발전되어 왔음. - 문화재수리기술자제도는 국가공인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를 전담하는 제도로, 문화재수리공사 기술수준의 향상과 전통기술 보존에 이바지('70년 8월 도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는 국가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집중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이수자 양산 및 전수조교 확보하는 제도로 '82년 12월 도입 -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을 도모하는 민간협력활동 ○ 또한, 문화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	에게는 원형보존의 장으로, 전승자에게는 전승교육의 도장으로, 일반인에게는 사회교육관으로서 사용 ○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공식기관으로 지정 받음.'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효 후 협약 당사국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협약 이행을 증진하고 비협약 국가들의 협약 가입을 장려[54]. □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구축[55] ○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국민 공공정보 개방성 확대 목적 ○ 박물관 소장품 통합 DB구축을 위해 박물관 소장품 정보를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에 통합 서버와 스토리지 증설하고, 참여기관이 접속하여 소장품 DB 구축, 관리. 2016년 4월 기준, 총 278개 박물관이 표준관리시스템 사용 중 □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한 센터 운영 ○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내 보존과학센터 운영	○ '16년 기준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력은 각각 1,794명, 8,157명임.[57] □ 문화재 관리 실무인 현장 관리 조직 및 인력 부족 ○ 문화재청 및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현장 관리 조직이 아닌 행정기관으로, 문화재 관리 전문인력 부족 □ 매장문화재조사 교육과정 운영 ○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연구소 등에 재직중인 전문인력 및 대학(원)생, 매장문화재조사 의뢰기관 관계자 등 대상 교육과정 운영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문화재 발굴, 수리, 보존 등 관련 학과 개설을 통한 인력 양성 ○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록 의무화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5개년 기본계획인 '문화유산 2011'('07-'11),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12-'16)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5년에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17-'21)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를 진행하는 등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기틀을 마련(문화재청, 2015).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 '62년 제정된「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分法)되는 무형문화재법은 ▲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범위 확대 ▲ 세대 간 전승과정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형유지'에 대응하는 '전형(典型)유지' 원칙 도입 ▲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 ▲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 이수증 심사와 발급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여 이수자의 기량 강화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등 각종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문화재 연구 및 보존처리 가능한 최첨단 장비 및 시설 활용)	

		정책을 담고 있음. □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를 고려한 관련 법률 제정 ○ '문화향수실태조사'('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55.2%로 '12년 45.3%와 비교하여 9.9% 증가 ○ 문화기본법('13.12 제정), 지역문화진흥법('14.1 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5.5 제정) 등 국민의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률 제정 □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정보화 정책 추진[52] ○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06년부터 '중요동산 문화재 기록화사업'진행 ○ '국가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수립('00년) ○ '국가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을 근거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행.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타공여국과의차별성	정책(일반)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 7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룸. ○ 문화생활, 표현의 자유, 동등한 기회, 문화유산 및 저작권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관련 법률/집행 연구를 독려 ○ 문화적 권리 관련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적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전체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을 강화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다음 사항에서 문화협력 지원. - (지중해 수질보존과 관련) 자연자원(수자원, 연해지역 중심)의 관리와 문화유적 보존 지원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를 통해 문화 관련 활동 기자재 제공 및 시설 건립/재건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5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1) 보존, 복원, 재평가 부문의 기존 프로세스 지원 2) 재난 및 갈등 영향지역의 긴급 문화자원 보존 지원	<프랑스> • 프랑스에서는 다음 사항에서 문화협력 지원. 1) 불어 교육 2) (지중해 수질보존과 관련) 대학 및 문화 협력, 순환이동을 통한 인적 개발 지원 <일본> • 일본에서는 펀드 하위 프로그램과 부처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문화자원 인력 역량 강화를 지원함. 1)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일본의 신탁 기금(UNESCO)를 통해 문화유산 복구 및 보존 분야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 2)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에서 청년 활동가 초청연수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의 전략1 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자주권(autonomy)를 존중하면서 문화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를 양성·발전시키는 프로세스 육성/추진
			• (UNESCO-미얀마) 미얀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Capacity-building for safeguarding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 파차카막(Pachacamac) 고고학 보존	<일본> • 아태지역 문화유산보호 청년 전문가 초청 연수 (문부과학성)

		사업사례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2012/13) - 제도적 측면에서 보존, 관리 역량 강화	시설 개선 사업 및 부지 내 박물관 교육 (1억5천만 엔) [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 몽골 국립 박물관 소장품 보존 장비 개선 사업 <UNESCO>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GIS 도입 <독일> □ 말리 Land of the Dogons Dogon 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어려우며, 관광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임. Dogon의 생활문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GIZ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지역 박물관 설립(set-up)과 고대 공예예술 및 직조기술 등의 복원을 지원함.	<UNESCO-미얀마> • 미얀마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Capacity-building for safeguarding cultural heritage in Myanmar, 2012/13) - 보존, 관리 역량 육성
	기존 ODA 사업 수행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의 문화재 보존·전시를 위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 (2013) ○ 유물 분류체계 마련 및 등록, 보존 처리 등 박물관내 유물관리 체계 구축 및 필요시 운영인력 교육 실시 □ KOICA '캄보디아 시에립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사업' (2005-2006, 2008-2009, 2010-2012) 58) ○ 도로가 유적지를 관통하여 훼손이 있는 바, 이를 대체할 우회도로 건설, 포장, 연장. □ 문화재청 '세계유산 보존관리지원' 59) □ 문화재청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신탁기금' 60) □ 문화재청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의무분담금' 61)			

		□ 문화재청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 외교부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62) □ KOICA '이집트 문화재청 유물전산화 사업' (2007-2009) 63) ○ 문화유물 등록, 보전 및 보호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센터 구축. □ KOICA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2010-2011) 64) ○ 문화 역사 자료에 대한 DB 기반 마련, 사료 보존 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 개도국의 문화재 보존·전시를 위한 박물관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박물관 시스템 구축 지원(문체부, '13년) ○ 유물 분류체계 마련 및 등록, 보존 처리 등 박물관내 유물관리 체계 구축 및 필요시 운영인력 교육 실시		
수요자측면	SDG 와의 부합성	□ SDG 11.4		
	수원국 수요 (발전계획)	<베트남> □ 베트남 지속가능개발전략 2011-2020의 전략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식·물질·문화 환경 구축을 언급하고 있음. 이 전략의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들의 공동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차세대를 위한 지식·물질·문화적 바탕을 축적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학습사회(learning society), 친환경적 생활모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고자 함.	<베트남> □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면서 문화·문학·예술 활동에서의 창의성의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 문화유산과 베트남 공동체 가치의 보존 및 홍보, 인종·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책집행과 종교·신념의 자유 존중 <인도네시아> □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개발 관련하여, 역사-고고학센터를 건립하여	<인도네시아> □ 민족의 정체성과 기질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 향상 2010-2014에서 다음 문화적 가치와, 예술·영화의 다양성 및 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제시함. 다음은 세부활동 내역임. - 문화·예술·영화 실무자의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초교육 커리큘럼 개설

		<미얀마> □ 2016년 7월 경제정책 기조연설에서 '고유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노력 확대'를 제시하였음. □ 또한, 문화부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은 현재 수립 단계임. □ UNESCO World Heritage 등록과 관련되어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 미얀마 국가 지속발전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관련 문화분야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함. - 미얀마 문화 및 전통 보존/보호 - 문화유산 보존/보호 □ 또한, 사회발전과 관광 부문 아래에서도 문화·자연유산 관련 정책 예시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음. - 문화와 전통을 재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보호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는 '사회조직 강화(enhancing the social fabric)'가 주요 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 및 가치 진흥이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다양한 문화 존중(our diverse culture valued) - 유형문화유산 보존	유물 보전과 복원, 국립 및 사립 박물관의 지원으로 유물보관 상태 개선, 유물 구매 및 확보, 도서관 개발. □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특생을 띠는 문화 아이템 개발 및 지원 □ 무형문화유산과 관련, 다양한 문화를 평가, 발굴.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는 '사회조직 강화(enhancing the social fabric'가 주요 축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문화 및 가치 진흥이 사회조직을 강화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 중 문화유산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다양한 문화 존중(our diverse culture valued)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 자료 개발 (재외 국민 포함) - 전통 문화를 위한 지식개발센터 및 학교 설립 - 문화 인프라 및 시설 설립 (예: 박물관, 문화 센터, 도서관, 갤러리 등) <캄보디아> □ 국가 전략적개발계획 2014-2018의 다음 항에서 문화 관련 개발계획을(Fifth Legislature 관련)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국립·사립 박물관의 지원으로 인력교육을 실시함.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서는 문화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비준 - 국가 문화 유산 보전과 보호 강화 - 문화부 설립 - 필리핀 문화유산보존 연구소 설립 - 필리핀 국립박물관 법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이중 '불교, 토착문화 보존 및 장려' 는 불교사원을 통한 문화 강화 및 확대, 크메르 예술품 반환 요청 등 정책 부문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4장: 2014-2018 중요 정책우선순위 및 사업 4. 물리적 인프라 개발 Ⅳ. 정보통신기술 향상 -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은 세계무대에서 국가의 정체성과 긍지를 높이고자 문화와 전통을 보존·진흥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전략을 우선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세부사항 중 다음 두 사항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짐. -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기록 및 목록화 - 문화센터 체계구축 및 활성화	

51)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52) 안재홍, 김충식(2016). 디지털유산, 문화유산의 3차원 기록과 활용.
53)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54) 이선영(2013). 문화융성시대의 ODA 발전방향과 문화 ODA의 필요성. 문화ODA 개념 및 한국의 문화 ODA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5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4.26.)
56) 문화재청(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57) e-나라지표
58)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59) 이혜은, 최희수(2015). 관광분야 문화ODA 개발 방안.

나. 공연 및 축제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공연 및 축제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문화 복지 확충 정책 시행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및 법적 기반 마련	□ 공연시설 지속 증가 □ 창작공연 기획 및 수행	□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전문인력 배출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공연예술 인력 양성
		□ 문화 복지 확충 정책에 따른 문화시설 보급 확대 ○ '90년대 후반이후 문화복지 확충을 문화정책 중심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문화시설 보급 확대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 수 증가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65] ○ (무대예술 전문인력)'95년 '공연법'에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계획수립에	□ 공연시설 지속적 증가 ○ 국내 공연장 공급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6.1%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기준 전국적으로 약 1,000개의 공연장이 공급되었음. 단, 서울 소재 공연 시설 분포율이 전국 대비 38%로 서울에 공연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 ○ '00년부터 무대예술(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인력 자격제도 시행 ○ '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전국 대학의 공연예술 관련 학과 개설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

60) 이혜은, 최희수(2015). 관광분야 문화ODA 개발 방안.
61) 이혜은, 최희수(2015). 관광분야 문화ODA 개발 방안.
62) 이혜은, 최희수(2015). 관광분야 문화ODA 개발 방안.
63)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64)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대한 의무조항 등장 ○ '99년 '공연법' 전면 개정으로 한국 최초 공연예술 부문에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인 자격제도 도입 ○ '00년부터 무대예술(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인력 자격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마련 및 '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66] □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05)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발전 및 활성화 기여 ○ '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및 '서울아젠다'제안을 통해 세계문화예술주간 지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문화예술교육 아젠다 주도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및 법적 기반 마련 ○ 문체부는 문화융성위원회와 함께 '14년 1월부터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 향유 확대 캠페인인 '문화	□ 창작공연 기획 및 수행 ○ '난타' 이후 크게 확대된 한국 넌버벌(비언어) 공연[67] 시장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관람할 정도로 인기가 높으며, 잠재력이 매우 큼[68]. '난타'는 '97년 초연된 넌버벌(비언어) 퍼포먼스로 한국의 전통음악인 사물놀이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계승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공연, 축제,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관광축제 ○ 문화관광축제[69]는 전국의 지역축제 중에서 지역 고유의 특산물, 인문자원, 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고 지원하는 관광상품화한 축제 - '90년대 후반 한국의 지역축제는 한 해 약 350여개가 개최되었음. 정부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광업무가 '94년 12월 교통부에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면서,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것이 정책과제로 대두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은 우수한 예술 교육을 제공하고 일반인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화향유권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기여 ○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6 QS 세계 대학 학과별 랭킹' 공연예술부문에서 한국 예술종합학교가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46위를 차지. '2017 QS 세계 대학 학과별 랭킹'공연예술부문에서 한국 예술종합학교는 서울대 등 학교와 함께 51-100위권에 순위.

			가 있는 날' 시행 ○ 사업초기에 비해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참여율이 크게 올랐으며, 관련 예산도 국회에서 '16년 130억 원에서 '17년 162억 원으로 증액 반영되었음. ○ '16년 5월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가 있는 날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는 지난 '06년 넌버벌 퍼포먼스 페스티벌로 시작하여 세계에 몸짓 한류를 알려온 한국 유일의 공연관광 전문 축제임[70].	
	타 공여국과의 차별성	정책(일반)	해당사항 없음	<일본>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일본 신탁기금(UNESCO)를 통해 전통무용·음악·공예기술·구전전통 등에 대한 기록 보존,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함.	<일본>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일본 신탁기금(UNESCO)를 통해 전통무용·음악·공예기술·구전전통 등에 대한 전수자 교육을 지원함.
		사업사례		<일본(UNESCO 신탁기금)> • 소말리아 전통 공연예술 보호 사업 (Safeguarding traditional Somali performing arts / 2008-2009, 케냐 소말리아) • Mbede Jerusarema 춤 보호 사업 (Safeguarding the Mbende Jerusarema Dance / 2006-2009, 짐바브웨)	<일본(UBESCO 신탁기금)> • Mbede Jerusarema 춤 보호 사업 • (Safeguarding the Mbende Jerusarema Dance / 2006-2009, 짐바브웨) • 탄자니아와 코모로의 스와힐리 전통 음악 달의 노래 보호 사업 (Safeguarding the Songs of the Moon, traditional Swahili music from Tanzania (Unguja and Pemba) and the Comoros / 2008-2009, 코모로, 탄자니아)
수요자측면	기존 ODA 사업 수행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예술봉사단' [71] ○ 수원국 현지 청장년층 대상 판소리 등 한국 전통문화 예술 강연 및 공연. 한국문화 확산 및 청년 예술인의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목적. - 평가결과 □ KOICA '한국 전통무용 전수' (2011) [72] □ KOICA '키르키즈스탄 문화예술 촉진을 위한 키르기즈스탄 국립극장 개선지원' (2012) [73] - 일회성으로 그침.			

	SDG와의 부합성	□ SDG 8.9/ 11.4		
	수원국 수요(발전계획)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의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내 다음 사항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문화상품 창출 및 문화행사 조직 -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 정부부처 및 기관 협력 - 문화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촉진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2020년에는 동남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2030년에는 세계적 창조경제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② (창조적인 우수성)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청중 지향성, 현대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시대 문화조직과 비즈니스 육성 ③ (창조적인 도시 및 지역): 주요 도시 중심부에 문화 창조 중점지역을 두어 아시아 창조경제의 허브로 성장,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혜택 누리도록 지원 □ 위의 목표에 따라 다음 개발테마를 채택하였으며, 각각 즉각조치(2014-2016), 단기전략(2017-2018), 중장기전략(2019~) 수립함. 더불어 해당 전략들은 공예, 축제, 관광, 영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으며(좌측 란 참고), 그 중 인력 부문의 목표와 테마는 다음과 같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의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내 다음 사항은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인도네시아> □ 공연예술분야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화산업의 융합, 연구개발, 투자,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하는 16개 분야 중 하나로서 창조경제청, 교육문화부 주관으로 공연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2)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관료주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여 규제와 투자 측면에서 문화산업 성장 (3)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4)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도농지역 모두에서 사회적·전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화, 공연, 시각 예술 분야의 전용 인프라에 교육, 기술, 생산, 상업 활동이 융합되도록 구축 필요 (5) 국제적 입지: 베트남을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캄보디아> □ 국가 전략적개발계획 2014-2018에서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문화 관련 개발계획(Fifth Legislature 관련)을 찾을 수 있음. **4장: 2014-2018 중요 정책우선순위 및 사업** **5. 민간영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I. 민간영역 강화 및 투자·사업 진흥** - 문화부는 문화가 지속가능개발의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연 분야와 관련, 세부적으로 다음 활동을 계획함. 1) 공연예술의 진흥 및 확산을 제고하며 캄보디아를 문화 관광지로 위상을 높이고자 함.	- 공연예술분야 진흥은 국가 문화정책 다양성의 통일; unity in diversity 과도 일맥상통함.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의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내 다음 사항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문화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촉진 □ 더불어 '문화 분야 시장창출'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하게 다룸. - 시장수요 파악 - 유통 및 상품홍보 지원 -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법적수단 마련	

65) 이장원, 임지원(2009). 무대예술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66) 2013 학술예술연구소 심포지엄 자료.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예술 교육의 과제
67) 논버벌(Non-verbal) 공연: 가급적 언어를 배제하고 비언어적 상징과 표현, 몸짓과 소리, 음악 등으로 극을 꾸미는 성격의 공연
68)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16.8.21.) 방한관광시장 다변화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공연관광축제' 개최.
69)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70) http://www.koinmo.kr/about.jsp
71)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72)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73)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다. 시각예술 및 공예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시각예술 및 공예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 전통공예기술보호 정책 시행 □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	□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존재 □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 □ 유통 및 전시 인프라 확충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05)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발전 및 활성화 기여 ○ '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및 '서울아젠다'제안을 통해 세계문화예술주간 지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문화예술교육 아젠다 주도 □ 전통공예기술보호 정책 시행 ○ '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한국 고유 공예기능 보전 및 공예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립 및 미술대학에서의 공예 교육 실시	□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존재 ○ 공예부문 전담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 실시 □ 신속한 제작이 가능한 인프라 확보[75] ○ 종로, 청계천 등 금속 공구상가 및 재료상가와 생산업체 밀집 ○ 여주 이천 도예 특화 지역 등 □ 유통 및 전시 인프라 ○ '06년 공예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공예트렌트페어 개최. 한국공예 유통 및 확산에 구심점 ○ 30여개 이상의 아트페어 개최 및 아트페어 관람객수 꾸준한 증가[76]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77] ○ '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인 자격제도 도입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curator) 인력 자격제도 시행 ○ '13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 ○ '82년부터 사진기능사 자격제도 시행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공예 인력 양성[78] ○ 매년 115개 대학 공예학과(전공)에서 1,200명,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1,035명의 졸업생 배출

		□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 실행 ○ '15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마련 등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자체의 공예 관련 조례 및 시행령 다수 존재 ○ 문체부는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공예마을 육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연계 상품 개발, 우수공예 상품 지정제 등 다양한 정책 시행 ○ 또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공예 산업 실태조사와 백서 편찬, 전문 서적 출판 등 연구와 교육 사업 병행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74] ○ '99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인 자격제도 도입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curator) 인력 자격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시행	□ 지역공예마을 육성 ○ 지역공예마을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공예가치를 재조명하여 이를 산업화함으로써 21세기형 자급자족 공예마을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음. ○ 지역이 보유한 공예자원을 바탕으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컨설팅 제공 □ 공예소재 목록화 ('12-) ○ 활용도가 높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 소재와 기법을 수집하여 전통 공예 소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	○ 전국 대학 미술관련 학과 개설 및 인력 양성

	타공여국과의차별성	정책(일반)	해당사항 없음	<일본>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일본 신탁 기금(UNESCO)를 통해 전통무용·음악·공예기술·구전전통 등에 대한 기록 보존,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함.	<일본>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일본 신탁 기금(UNESCO)를 통해 전통무용·음악·공예기술·구전전통 등에 대한 전수자 교육을 지원함.
		사업사례	해당사항 없음	<독일> □ 말리 Land of the Dogons Dogon 주민의 삶의 질은 매우 어려우며, 관광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임. Dogon의 생활문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GIZ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지역 박물관 설립(set-up)과 고대 공예예술 및 직조기술 등의 복원을 지원함. <일본(UNESCO 신탁기금> □ 자피마니리 목공예기술 보호 액션플랜 (Action Plan for the Safeguarding the Woodcrafting Knowledge of the Zafimaniry / 2004-2008, 마다가스카)	<일본(UNESCO 신탁기금> □ 우간다 수피포(樹皮布) 공예 활성화 사업 (Revitalization of bark cloth making in Uganda / 2006-2009, 우간다)
	기존 ODA 사업 평가		□ 라오스 공예가 초청연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전통공예 콘텐츠의 디자인 개발 및 유통구조 개척' 지원(문체부/'14년) ○ 개도국의 전통공예 콘텐츠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응용·개발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지원 ○ 상품화가능한 공예콘텐츠, 공예산업 기반시설, 인력양성 등 '공예상품 육성 정책 컨설팅'(1단계) ○ 전통공예콘텐츠를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하여 공예상품으로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2단계) ○ 중소시장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구조 개척(3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베트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관계부처 합동, 2016) ○ 교육 효과성 및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며, 향후 평가계획 수립시 ODA 평가 전문가 및 지역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과정 구축을 위한 평가연구 추진 필요 □ KOICA '미술 교육 지원' (2008) [79] □ KOICA '박물관 운영 기술 전수' (2008-2012) [80] □ KOICA '콩고 국립 박물관 건설 지원' (2012) [81] - 박물관 운영 기술 전수 사업 이외에는 일회성에 그침. □ KOICA '프놈 끄라움 마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전통 공예 지원 사업' (2013)[82] ○ 캄보디아 전통 공예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주민 역량 강호, 전통 공예의 사회적 협동조합 결정으로 마을 내 공예 제작장과 전시장 건설. - 평가결과 □ KOICA '페루 꼬라오 지역개발사업' (2004) [83] ○ 도예학교, 교육장, 전시 판매장, 가마를 설립·설치하여 도자기 제작 판매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2007~2013, 격년)[84] ○ 1차 사업: 몽골·베트남의 전통 수공예와 문화원형 디지털 사업 발전 ○ 2차 사업: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전통 수공예 보존 및 발전. ○ 3차 사업: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라오스 등 창조 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수요자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8.9/ 11.4

	수원국 수요 (발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2020년에는 동남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2030년에는 세계적 창조경제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② (창조적인 우수성)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청중 지향성, 현대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시대 문화조직과 비즈니스 육성 ③ (창조적인 도시 및 지역): 주요 도시 중심부에 문화 창조 중점지역을 두어 아시아 창조경제의 허브로 성장,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혜택 누리도록 지원 □ 위의 목표에 따라 다음 개발테마를 채택하였으며, 각각 즉각조치(2014-2016), 단기전략(2017-2018), 중장기전략(2019~) 수립함. 더불어 해당 전략들은 공예, 축제, 관광, 영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2)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관료주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여 규제와 투자 측면에서 문화산업 성장 (3)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으며(좌측 란 참고), 그 중 인력 부문의 목표와 테마는 다음과 같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교육 및 훈련' 은 문학 작품, 공예, 문화 및 예술 등의 분야에 커리큘럼 및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루며, 더불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다룸.

			(4)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도농지역 모두에서 사회적·전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화, 공연, 시각 예술 분야의 전용 인프라에 교육, 기술, 생산, 상업 활동이 융합되도록 구축 필요 (5) 국제적 입지: 베트남을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74) 이장원, 임지원(2009). 무대예술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75) 문화체육관광부(2012).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7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미술시장 실태조사
77) 이장원, 임지원(2009). 무대예술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78) 문화체육관광부(2012).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79)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80)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81)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82)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83)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84)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라. 도서 및 언론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도서 및 언론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 측면	한국적 경험	□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 정책 추진	□ 도서관 건립 지속 확대 및 운영 □ 도서전 개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사서훈련기관 운영)
		□ 도서관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 ○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서관법' 제정('64년) ○ '도서관법시행령'에 의거한 사서자격제도 시행 ○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14-'18) 수립 ○ 도서관 등록제도 개선[85]: 도서관법 개정('17)을 통해 모든 도서관 등록 및 보고 의무화, 정책기반 자료 마련 및 관리강화((현행) 사립도서관 ->(개정) 국공사립 도서관) □ 지역신문의 발전기반 조성 정책 추진[86]	□ OECD 수준의 지속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조성[87] ○ 정부는 '도서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14-'18)에 의거하여 공공도서관 확충: 지역의 교육, 문화 중심지이자 복합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국민의 정보문화향수권 시장 및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목표 ○ '15년 기준 공공도서관수는 978관으로, 최근 5년간 지속증가 추세이며(e-나라지표), '18년까지 1,100개관(인구 약 4.5만 명당 1관)목표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공공 유휴시설, 노후시설 등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생활 밀착의 소규모 도서관 조성('17년,16개관)	□ 사서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 국내 사서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문헌정보학 교육기관 설립, 운영 ○ '17년 현재 41개교(기관)(4년제대학 32곳, 2년제대학 6곳, 1년제 사서교육원 3곳)에서 사서교육 담당

		○ 문체부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 중.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신문 기금을 지원함	○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5년까지 공공도서관 446개관에 순회사서 각 1명씩을 배치하고, 총 1,784개관의 작은 도서관 지원. ○ 작은도서관에 파견된 순회사서는 장서관리,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작은 도서관 운영 전반 관리 □ 지역서점 활성화[88] ○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서점 CN) 구축 ○ 서점 POS(판매통계시스템) 연계 확대 ○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 도서전 개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89] ○ 서울국제도서전은 '54년 전국도서전시회로 시작하여 '95년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되었으며, 한국출판의 세계화,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정착,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의 목표하에 세계 주요 도서전 중 하나로 도약. '17년 6월 개최된 도서전에는 20여만 명의 관람객 참가 ○ 독서하는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캠페인 운영 □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타 정	해당사항 없음	<프랑스>	<프랑스>

	공여국과의 차별성	정책(일반)	□ 다원주의(pluralism)과 지식의 확산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토론, 컨퍼런스, 전시,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 지원	□ 다원주의(pluralism)과 지식의 확산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토론, 컨퍼런스, 전시,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 지원
		사업사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존 ODA 사업 평가	□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문체부, '07~) ○ 아프리카 등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개도국에 작은도서관(공간 리모델링, 도서, 컴퓨터 등 지원,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조성하여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학습력 향상에 기여 □ KOICA [90] ○ 도서관 운영 기술 전수 (2006, 2011-2012) ○ 기록정보 관리 기술 전수 (2009) ○ 도서관 사서 교육 지원 (2009) ○ 도서관 사서 지원 (2012) - 도서관 운영 기술 전수 이외에는 일회성에 그침. □ KOICA '캄보디아 열후지역 아동들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전래동화 보급사업' (2013) [91] ○ 빈곤지역 극빈층 아동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KOICA '국제기록문화유산 관리과정' [92] ○ 기록관리 체계 및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가 차원 기록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관심 제고. □ KOICA '콜롬비아 역사자료 전산화 사업' (2010-2011) [93]		

		○ 문화 역사 자료에 대한 DB 기반 마련, 사료 보존 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수요지향적 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4.7 / 11.4		
	수원국 수요(발전계획)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서는 문화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필리핀 국립도서관 현대화 법 - 일리간 시 문화 및 언어를 위한 문화 콤플렉스 구축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의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내 다음 사항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문화상품 창출 및 문화행사 조직 -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 정부부처 및 기관 협력 - 문화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촉진	<미얀마> □ 2016년 정부 예산으로 국립도서관의 일부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착수된 바 있으나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진척을 이루지 못함. 이에 미얀마 문화부는 국립도서관 소장자료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을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 바 있음. □ 또한, 2016년 바간지역 지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물리적 보존 이외에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보존화가 필요함을 면담 시 언급함.	<캄보디아>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교육 및 훈련' 은 문학 작품, 공예, 문화 및 예술 등의 분야에 커리큘럼 및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루며, 더불어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도 다룸. □ 또한, 동문서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내 다음 사항은 역량강화와 관련된 사항이 주요하게 다루어짐. -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85)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86)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문화영역 공정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87)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국도서관연감.

마. 시청각 및 쌍방향미디어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시청각 및 쌍방향미디어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추진 □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콘텐츠사업 활력을 위한 제도 개선 □ 창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콘텐츠산업의 꾸준한 성장 □ 세계적 수준의 PC,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보급률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지상파 방송사의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추진[94] ○ '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및 '73년 영화법 개정 ○ '73년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발전 종합계획인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74-'78) 발표(당시로는 큰 규모인 485억 4,240만	□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95] ○ '16년 기준 전국 극장 수는 417개, 스크린 수는 2,575개로 '05년(301개/1,648개)에 비해 증가[96] ○ 지역 영상문화 격차해소 및 향유기회 확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방송영상 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지상파 방송사의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88)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89) 서울국제도서전 홈페이지.
90)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91)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92) 이혜은, 최희소(2015). 관광분야 문화ODA의 개발 방안.
93)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원을 5년간 문화예술분야에 투자 결정) □ 문화예술분야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영화) 문화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화 기획개발 시장 활성화, 시각특수효과(VFX) 작업 관행 개선을 위한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표준계약서 제정 ○ (방송)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 집필계약서 제정 ○ (웹툰) 웹툰 및 웹툰원작 OSMU 시장 성장에 따른 만화 웹툰 2차 저작물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한 OSMU 표준계약서 제정 추진 ○ (이야기) 이야기 판권 거래, 도급계약 등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 □ 콘텐츠사업 활력을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세부기준 마련('17년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영화, 드라마, 다큐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영화상영관(화질, 음향, 서비스 등) 품질 기준 마련 및 인증을 통해 영화 관람 환	대를 위해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건립('17년 8개소, 총 51개소) ○ 이동식 영화창작시설 '시네마 드림카'('17년 3대) 및 지역 영상미디어센터('17년 2개소, 총 42개소) 운영 □ 콘텐츠산업의 꾸준한 성장[97] ○ (수출, 매출 증가) 최근 4년간('12-'15) 콘텐츠산업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같은 시기 전체 산업 성장률인 1.3%를 상회하는 성장 지속 ○ (고용) 대표적 고용친화 산업으로, '11-'14년간 1,2만명 고용 창출 □ 영화와 음반산업에서 국내 콘텐츠 비중 및 전반적 수준 양호[98] ○ 사업환경 및 경쟁역량의 측면에서 영화와 음반산업에서 국내 콘텐츠 비중이 매우 높고, 콘텐츠의 전반적 수준과 구성이 탄탄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통계자료에 따르면 '11년 이후 6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함 □ 세계적 수준의 PC,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경 개선 ○ 로케이션 지원 제도 소개를 비롯, 국내 촬영지, 전문인력 정보 등이 제공되는 '필름 코리아' 고도화 - 국내 촬영 해외 영상물(3일 이상 촬영, 1억 이상 지출)의 국내 집행비용 20~25% 현금지원 □ 창작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창작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화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안)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문체부가 정부대표로 지정)	보급률[99] ○ 시장 및 유통구조 측면에서 PC, 브로드밴드, 이동통신의 보급률 측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타 공여국과의 차	정책(일반)	해당사항 없음	<스페인> □ 스페인 문화 및 개발협력 전략 2007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관련하여 전략6 아래에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 제시함. - 지역적 맥락에 따라 자주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지원 - 청중의 미디어 접근성 개선	<프랑스> □ 자유롭고 다원적인 미디어로의 접근 향상을 위해 시청각 분야의 전문화 지원
		사	해당사항 없음	• (일본)	해당사항 없음

	별성	업사례		[Cultural Grant Assistance] 말라위 방송사 TV 방송 기기 및 프로그램 개선 사업 (약 7천만 엔)	
	기존 ODA 사업		□ 영화산업전문가 및 기술교육(KOICA, '13) □ 영화산업지원(KOICA, '14) □ 미디어장비 지원(KOICA, '15) □ KOICA [100] ○ 영상, 미디어 증진 지원 (2011) - 일회성으로 그침. □ 문화체육관광부 'WIPO신탁기금 지원 사업' (2006~)[101] ○ WIPO와 공동 지원.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및 인식향상, 저작권정책 선진화 지원. ○ 수원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수원국 내 주민 및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 목적.		
수요자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11.4		
	수원국 수요(발전계획)		<필리핀> □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2에서는 문화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영화 산업 발전법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2020년에는 동남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2030년에는 세계적 창조경제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② (창조적인 우수성)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으며(좌측 란 참고), 그 중 인력 부문의 목표와 테마는 다음과 같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청중 지향성, 현대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시대 문화조직과 비즈니스 육성 ③ (창조적인 도시 및 지역): 주요 도시 중심부에 문화 창조 중점지역을 두어 아시아 창조경제의 허브로 성장,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혜택 누리도록 지원 □ 위의 목표에 따라 다음 개발테마를 채택하였으며, 각각 즉각조치(2014-2016), 단기전략(2017-2018), 중장기전략(2019~) 수립함. 더불어 해당 전략들은 공예, 축제, 관광, 영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2)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관료주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여 규제와 투자 측면에서 문화산업 성장 (3)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4)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도농지역 모두에서 사회적·전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화, 공연, 시각 예술 분야의 전용 인프라에 교육, 기술, 생산, 상업 활동이 융합되도록 구축 필요 (5) 국제적 입지: 베트남을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94) 김규찬(2013).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

바. 디자인 및 창조형서비스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디자인 및 창조형서비스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미술진흥정책 추진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문화기반시설 지속 증가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실시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 기업의 디자인 관련 투자규모 미미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디자인 인력 역량 우수
		□ 미술진흥정책 추진[102] ○ 미술창작·유통·향유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법제도 마련 -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16.10월),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안' 기초마련('16.12월)	□ 문화기반시설 지속 증가 ○ '15년 전국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수는 각각 780관, 202관으로 '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박물관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e-나라지표). □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실시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디자인 인력 양성 ○ 2013년기준 전문대학 이상 디자인 관련 학과 재학생은 약 97천여 명, 졸업자 21천여 병, 취업자 11천여 명임 □ 디자인 인력 역량 우수

95)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96) 영화진흥위원회(2016).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97)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콘텐츠 경쟁력 평가방안 연구. p. 37
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콘텐츠 경쟁력 평가방안 연구. p. 37
100)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101)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15년부터 추진해온 정부상징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정부기에 관한 공고 개정('16.3월), 중앙부처 42곳, 소속기관 1,220곳 정부상징 통합, '공공디자인법'제정('16.2.3) 및 시행('16.8.3) □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 ○ 저작권법 제정 ○ (공공부문)문체부를 중심으로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저작권 보호 업무 수행 ○ (민간부문)저작권법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 제도 운영	○ '11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한 '서울어젠다;예술교육 발전 목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매년 5월 넷째 주를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으로 선포·실시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자원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업의 디자인 관련 투자규모 미미 [103] ○ 기업당 연평균 디자인 관련 투자 규모는 한국이 24만3264불로 전체 17개국 중 15위 차지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디자인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8위를 차지(한국디자인진흥원,2015).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코퍼레이션과 서강대 정재학 교수가 참여해 지난 10월 10일부터 한달여 간 벌인 이번 조사에는 각국의 디자이너와 일반인 2210명이 참여했음. 전통적인 '디자인 강국'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이 그 뒤를 이었음. ○ 레드닷과 IDEA 등 2개의 국제 디자인상 수상 횟수를 토대로 한 '디자이너 질적 수준' 항목에서도 한국은 1위를 차지해 개별 디자이너의 역량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타공여국과의차	정책(일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별성	사업사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존 ODA 사업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WIPO신탁기금 지원 사업' (2006~)[104] ○ WIPO와 공동 지원.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및 인식향상, 저작권정책 선진화 지원. ○ 수원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및 수원국 내 주민 및 한국의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 목적		
수요자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4.7/ 8.9		
	수원국 수요(발전계획)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2) 문화체육관광부(2016).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103) http://www.ktnews.com/m/sub.php?PageNo=1&cd_cate=E017&cd_news=92908
104)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사. 관광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관광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 경험	□ 관광개발 정책 추진 및 법적 기반 마련 □ 관광부문 자격제도 실시 □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9위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관광산업 종사자 교육)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
		□ 관광개발 정책 추진 및 법적 기반 마련 ○ '60-'70년대(공공주도형 관광개발정책 기틀 마련): 관광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및 공공주도 관광개발 정책 체계화 시작.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다양한 법,제도 제정 및 관광사업 본격화 ○ '80년대(국내관광진흥이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부상):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정책 활성화에 따라 관광단지, 국민관광지, 국립공원, 대중 숙박시설 등 개발 ○ '90년대(관광개발 정책의 체계화):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5대권 24개발소권의 법적 관광권역 설정 ○ '00년대(광역화와 환경친화적 개발정책 추진): 환경보전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되기	□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9위[107)] ○ '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격년)에서 한국의 종합순위가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로 '15년보다 10단계 상승 ○ 분야별로 한국의 관광정책·기반 조성이 82위에서 47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인프라도 40위에서 27위로, 환경조성 분야도 28위에서 24위로 각각 상승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관광 인력 양성 ○ '64년 경기대학교에 관광학과 개설된 이래 전국 대학 정규학위과정 개설을 통한 관광교육 실시 □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은 '60-'70년대 전문 관광요원을 양성하면서부터 '17년 현재까지 관광인력 교육 실시

		시작.'07년 이후에는 녹색성장 기조를 따르는 관광개발 정책 추진 ○ 관광개발 분야 법정계획 수립·추진: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한국의 관광자원 개발 분야의 10년 중장기 계획임. 우리 정부의 관광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컨벤션기획사 1,2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총 9종의 자격제도 시행 □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105)] ○ 국내 관광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행주간 추진 및 기존 봄가을 여행주간 연장(주말, 공휴일 2-3일 추가), 겨울여행주간 신설을 통해 여행주간 혜택 확대 ○ '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함으로써,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시대를 만들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정책 [106)].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컨벤션기획사 1,2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총 9종 자격제도 시행

			○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barrier free)인 '열린관광지'를 '15년부터 매년 5개소 선정·지원		
	타공여국과의차별성	정책(일반)	<독일> □ 관광은 빈곤퇴치와 소득창출의 경제개발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도 연결됨. 현재 전체적으로는 70여개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와 비용분석, 기업진흥, 정책자문 등을 지원함.	<독일> □ 전문가 파견하여 관광지 개발, 인프라/철도 구축	해당사항 없음
		사업사례	<독일(GIZ)> □ 관광산업 진흥을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사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2011년에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71개 관광분야 개발협력 사업 시행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보전, 경제개발과 빈곤감소, 생태 및 사회적 안정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함 <네덜란드> □ 지역사회 고용창출, 관광분야 민간부분의 참여 독려, 관광가치사슬 고려한 사업, 관광정책 및 전략개발 추진	<독일> □ 요르단 물 소비(Water Consumption) 관련 GIZ의 파트너 기관인 Pontos와 관련 정부기관을 연결하여 숙박업에서 '중수 재활용 공장 (greywater recycling plant)'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었으며, 삼자간 관련 노하우를 공유함. □ 몬테네그로 내륙지역 관광지 개발 저개발된 내륙지역(Cetinje, Plav 등)에 관광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기회를 높이는 것이 목표로, 관련 기관을 지원함. □ 독일은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도 실행 캄보디아 '고대 유물(Ancient Treasures)' 캄보디아 문화유산 근처의 관광산업의 질 향상, 영어 교육 등의 요소 일부 포함	<독일> □ 독일은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도 실행 캄보디아 '고대 유물(Ancient Treasures)' 캄보디아 문화유산 근처의 관광산업의 질 향상, 영어 교육 등의 요소 일부 포함

			<독일> □ 타지기스탄 Zeraf Shan Valley (2008) Zerafshan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ZTDA)의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지역공동체의 관광활동 통제권과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함. □ 독일은 지속가능개발 프로젝트도 실행 라오스 '관광 및 지역공동체 발전' 전문가를 통해 Phonsaly주 관광사무소에 공동체 기반의 에코투어리즘 활동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등에 관한 전략 자문.		
	기존 ODA 사업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 관광발전지원사업' (2008-2010/1차, 2011-2015/2차)[108] ○ 1차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community-based tourism 개발, 관광분야 중소기업 육성 등 시행 ○ 2차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0개 국가의 Millennium Village들과 주요 관광지 연계, 지역 관광산업 원조(관광프로그램 개발, 수공예품 제작 지원, 관광인력 교육 등)를 통한 빈곤퇴치 프로그램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 관광공무원 교육연수' ○ 개도국 관광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단기 연수프로그램(약 2주 소요)으로, 관광정책 강의, 관광산업 현장 방문, 관광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됨. ○ 'UNDP 동남아 3국(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관광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워크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UNDP 신탁기금 지원으로 동남아 3개국의 관광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2005년) ○ '개발도상국 관광공무원 연수' 사업은 가나, 도미니카공화국, 모잠비크. 베넹 등 8개 국가의 관광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반자사업' (2005~)[109]		

		○ 수원국의 관광·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 인사 초청연수 및 협업 공동창작, 한국 문화 체험 등. □ 한국관광공사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2014)' ○ 저개발국 관광지도를 초청하여 한국관광에 대한 벤치마킹 사업 연수 진행 - 관련 강의와 현장답사가 적절히 이루어져 참가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ReDI,2016) □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관광컨설팅 사업' (2011~) ○ 관광개발분야의 관광마케팅, 관광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통합관광컨설팅 제공 ○ '동티모르 관광개발계획(2011.05~2011.12)': 개발여건 분석, 사업대상지 선정, 개발전략, 관광개발계획, 사업화 방안 등 마련 ○ '라오스 관광마케팅 전략 계획(2012.08~2012.12)': 라오스 인바운드 관광실태 확인, 관광상품 분석 및 전략 수립 등 ○ '인도 관광지 개발 계획(2013.03~2014.07)': 개발여건 분석, 개발 콘셉트 개발, 투자유치전략 수립 등 □ KOICA '카자흐스탄 관광산업진흥 마스터플랜 수립사업(2007-2009)' ○ 카자흐스탄의 관광개발 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조사연구 수행, 관광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연수과정 운영, 공동세미나 개최 등으로 구성됨. □ KOICA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생태관광 개발프로젝트' ○ 관광객과 여행사 홍보를 통해 관광객 모객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 또한 지역주민 중심의 생태관광 모델 구축 및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휴(休)까사 호텔 건설 - KOICA-갈라파고스-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 - 건축사업(하드웨어),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소프트웨어)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적 현장사업 시행 □ 한국개발연구원 KSP사업 ○ '가봉경제 다변화 추진 사업(2011-2012)'의 일환으로 가봉 관광산업 발전방안 컨설팅 시행: 가봉 방문의 해, 생태관광, 관광발전기금 설치 등 정책 제안

		□ KOICA '우즈벡 전통문화 보존을 통한 관광지원' 110) ○ 호레즘 주 관광청에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히바시의 '고대 호레즘 문화 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사마르칸트'에 한국어 봉사단 파견.		
수요자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8.9 / 12.b		
	수원국 수요(발전계획)	<미얀마> □ 지속가능 사회 발전 관련 사회발전 및 관광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함. - 서로 다른 그룹 간 차별 감소 (to reduce disparities among different groups) -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기회 제공 (to provide accep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isadvantaged groups) - 중소기업에게 관광업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to create new tourism related business opportunities for entrepreneurs of small and medium) - 문화 및 전통 재활성화와 자연환경 보호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culture and tradition and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 기회 제공 (to provide income opportunities to the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2020년에는 동남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2030년에는 세계적 창조경제 중심국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② (창조적인 우수성)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청중 지향성, 현대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시대 문화조직과 비즈니스 육성 ③ (창조적인 도시 및 지역): 주요 도시 중심부에 문화 창조 중점지역을 두어 아시아 창조경제의 허브로 성장,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혜택 누리도록 지원	<베트남> □ 2016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에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으며(좌측 란 참고), 그 중 인력 부문의 목표와 테마는 다음과 같음. ① (창조적인 재능)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다양하고 재능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지원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캄보디아> □ 국가 전략적개발계획 2014-2018에서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문화 관련 개발계획(Fifth Legislature 관련)을 찾을 수 있음.

		local communities living in rural areas) - 식량안보, 보건, 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아동·서로다른 민족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계 구축 지원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of increased security in the area of food sufficiency, health, criminality, rights of women, children and different national races in the country)	□ 위의 목표에 따라 다음 개발테마를 채택하였으며, 각각 즉각조치(2014-2016), 단기전략(2017-2018), 중장기전략(2019~) 수립함. 더불어 해당 전략들은 공예, 축제, 관광, 영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음..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문화산업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경제 분야 활성화 (2)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관료주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여 규제와 투자 측면에서 문화산업 성장 (3)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4)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도농지역 모두에서 사회적·전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화, 공연, 시각 예술 분야의 전용 인프라에 교육, 기술, 생산, 상업 활동이 융합되도록 구축 필요 (5) 국제적 입지: 베트남을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미얀마> □ 지속가능 사회 발전 관련 사회발전 및 관광사업으로 제시된 예시 - 도심 또는 상업지구에서 먼 지역의 인프라 개선 <캄보디아> □ 국가 전략적개발계획 2014-2018에서 세부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항에서 문화 관련 개발계획(Fifth Legislature	4장: 2014-2018 중요 정책우선순위 및 사업 5. 민간영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I. 민간영역 강화 및 투자·사업 진흥 - 관광부는 관광서비스 질 향상과 신규 투자 등에 집중할 예정이며, 다음 활동을 계획함. 2) 국립 관광연구소 (National Tourism Institute)를 설립하여 관광분야 연구 및 인적자원 훈련에 활용 4) 관광분야 인적자원 개발

			관련)을 찾을 수 있음. 4장: 2014-2018 중요 정책우선순위 및 사업 5. 민간영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I. 민간영역 강화 및 투자·사업 진흥 - 관광부는 관광서비스 질 향상과 신규 투자 등에 집중할 예정이며, 다음 활동을 계획함. 1) 인프라 구축 2) 국립 관광연구소 (National Tourism Institute)를 설립하여 관광분야 연구 및 인적자원 훈련에 활용 3) 지역 관광 개발 계획 설계 4) 관광분야 인적자원 개발 5) 국립 관광센터(National Tourism Center) 설립 6) 관광 마케팅 전략 (Tourism Marketing Strategic Plan) 준비 및 실행 7) 민관 협력에 있어 마케팅 및 홍보 위원회 (Marketing and Promotion Board)를 설립 8) 관련 거버넌스 강화 □ 2014년 승인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의 7가지 중점사항 중 '문화잠재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부분은 아래와 같이 관광부문을 주요하게 다룸. - 관광지 개발 - 고용기회 창출	

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분류 영역 / 분류 기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정책 수립	인프라구축(시설/프로그램)	인적 역량
공급자측면	한국적경험	□ 체육부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확립 마련 □ 스포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 추진 □ 전 세계 최초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 지속적인 스포츠시설 확충 □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및 강화 □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경험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인력 양성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
		□ 체육부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반확립 마련[111] ○ 1960년대 초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행정조직 정비와 함께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체계 마련에 힘씀.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1962) 제정 및 관련 법/제도 수립, 그리고 재정지원 목적의 국민체육진흥재단 설립	□ 지속적인 스포츠시설 확충 ○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93-'97) 채택 후 스포츠시설 확충 시작 ○ 1980년대 1개 시군에 1개의 운동장과 1개의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정책적 방향 아래 인프라 확충 ○ '15년 기준 한국의 공공체육시설은 22,662개소로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스포츠 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정규학위과정의 스포츠 교육 실시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02~)[112] ○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

105)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1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2017.2.16.)
10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4.21.).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9위.
108) 한국문화관광연구원(n.d.). 관광분야 ODA 확대 방안.
109)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110) 박열한, 김상현(2015). 한국의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 '체육은 국력' 또는 '체육입국'과 같은 구호 아래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체육중시 정책 펼침. 특히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중점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독립 중앙부처인 체육부 신설(1982) ○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및 강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93) □ 민간주도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간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기조 전개('90년대 초 이후). 체육부문의 지방화, 민간화 및 다양화 시작 ○ 제1차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93-'97) 채택 □ 스포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 추진 ○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 완성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및 스포츠부문 자격제도 실시 □ 전 세계 최초 프로선수 도핑검사 의무화 ○ 선도적인 도핑방지 활동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경쟁 기반 구축 및 약물로부터의 선수 보호 강화	추세(e-나라지표) □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및 강화 ○ 국민생활체육회('91) 활성화 ○ 동호인스포츠클럽 수 증가 ○ 스포츠 종목별 협회 수 증가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지원단체 활동 증가 □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경험을 통한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 스포츠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양성기관, 스포츠산업융합분야 CEO아카데미, 스포츠산업분야 인턴 총 4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인원은 '15년 기준 총 483명으로, '14년 411명에서 72명 증가 ○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체육영재육성, 체육계 중고등학교 지원, 국제스포츠인재 및 국제심판 양성, 국제스포츠인재 전문과정, 국제심판 양성과정, 및 스포츠멘탈코치 양성과정 운영, 국제스포츠행정가 양성과정 등 운영을 통해 스포츠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음 □ 국가공인 자격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 배출
	정책(일반	해당사항 없음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와 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를 통해 문화/교육 활동 및	해당사항 없음

	타공여국과의차별성			일본문화 확산 활동('Japan Promotion')뿐만 아니라 체육활동의 증진과 확산에도 기여. 특히 GACGP에서는 2020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국으로서 'Sport for Tomorrow' 이니셔티브 아래 스포츠 지원.	
		사업사례	해당사항 없음	<일본> □ [Cultural Grant Assistance] 국무장관 체육 훈련센터 장비 개선 사업(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Equipment of the Sports Training Center of National Secretary of Sports) (약 1억 엔)	<독일(GIZ)> □ Sport for development – Brazil('12–'16)[113] 아동 청소년 스포츠 교육활동 개발 및 수행. 지역 스포츠 코치, 교직원, 복지사, 유치원 교사 등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환경, 남녀 평등 및 폭력 예방 등의 문제를 기존 프로그램에 통합하고자 함.
	기존ODA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사범 파견' 및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114] ○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사업. ○ 사범 파견은 2008년 KOICA의 태권도 사범 파견 중단 이후 국기원이 이행기관으로서 지속하고 있음. 수원국에 각 1명씩 태권도 전파를 위해 파견되며, 이와함께 수원국에 태권도 용품지원도 함께 이루어짐. ○ 용품 및 훈련비용 지원은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복, 보호 장비, 품새DVD 등 용품과 선수 및 지도자의 국내 전지훈련비를 지원함. ○ 태권도 평사봉사단 파견은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이 시행하고 있으며, 월드프렌즈코리아(WFK)의 브랜드에 속함.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전파함. 각국의 태권도협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으로 요청이 오면 재단에서 파견을 결정함. 세부 종류로는 단기 일반통역, 단기 태권도 봉사, 중기, 장기 파견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 드림프로그램, 지도자 파견으로 구성 ○ 드림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평창과 동계 스포츠 홍보를 위해 시작. 개도국 청소년에게 동계스포츠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동계스포츠의 기반을 다지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둠. 동계스포츠 종목 지도자와 선수를 초청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장애인 선수 초청, 2012년부터는 동계스포츠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2013년에는 마스터클래스를 개설하여 메달리스트, 국가대표들이 참가자 지도. ○ 대한체육회를 시행기관으로 가맹 경기단체를 통해 개도국을 대상 태권도, 사격, 축구 등의 용품, 지도자, 합동훈련을 제공. 나이지리아, 요르단, 이집트,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을 대상으로 지원. – 개도국의 스포츠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춤. 주로 수원국의 요청으로 사업이 구상되어 지원 국가와 종목 면에서 지속성이 높지 않음.[115] □ 문화체육관광부 '개도국 스포츠발전지원(Dream Together)' (2013~) ○ 추진 목표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국가브랜드 제고'이며, 기존의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 합동훈련 등 단발성 사업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한 사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상. ○ 스포츠 용품 지원, 스포츠 지도자 파견 및 국가대표 초청연수(스포츠 경영, 스포츠 코칭 등 교육 및 기술 공유) ○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을 통해 스포츠 행정가 초청, 스포츠경영 학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도국 NOC(National Olympic Committee) 및 NF(National Federation)의 행정부문 강화 ○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대상으로 종목별 기술과 코칭법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엘리트체육의 수준 향상 ○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또는 선수를 직접 진천선수촌으로 초청하여 훈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반자사업' (2005~)[116] ○ 수원국의 관광·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 인사 초청연수 및 협업 공동창작, 한국 문화 체험 등. □ KOICA '스포츠 봉사단원 파견' (1990~) ○ 1990년부터 체육분야 봉사단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태권도 부문에 가장 많은 봉사단원 파견 ○ 체육분야 봉사단원들은 현지선수 지도, 일반인 대상 교육활동 진행

		□ KOICA '인도네시아 스포츠교류센터 건립' (2003-2005) ○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으로 태권도와 실내경기 개최 가능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였음. 동 센터는 태권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합숙 및 훈련장소로도 사용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을 위한 장소로도 활용 - 스포츠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여가선용 및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대 인도네시아 태권도 보급 및 전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사후평가보고서, 2007) □ KOICA '체육 교육' (2012) [117] - 일회성으로 그침. □ EDCF '라오스 SEA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118] ○ 태국 등 동남아시아 11개국이 참여하는 SEA(South East Asian) 게임의 비엔티안시 개최에 대비하여 주경기장까지의 연결도로를 확장 - 라오스 SEA게임이 개최될 당시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에 문제점이 많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됨 □ ECDF '튀니지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사업'[119] ○ 튀니지 정부 요청으로 지중해연안국 올림픽 개최장소 용도의 올림픽 경기장을 포함한 선수촌 등 대규모 복합 운동시설단지 건설 ○ 완공된 경기장은 지중해 올림픽(2001) 및 아프리카컵 축구대회(2004)의 주경기장으로 사용됨 - 지역사회와 경제, 문화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높았으며 사후 운영도 전국체육대회와 월드컵 지역예선 등 주요경기를 치루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됨		
수요자측면	SDG와의 부합성	○ SDG 4.7		
	수원국수요	해당사항 없음	<베트남> □ 사회경제발전계획 2016-2020의 주요 목표 중 문화가 잠시 언급이 되는데, 문화발전, 민주주의, 사회발전과 정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안전(social	해당사항 없음

	(발전계획)		security)를 확보하고 사회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함. 또한 Key duties and solution로 [5. 경제발전과 문화발전, 사회진보, 평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합·조화시켜 문화, 사회, 보건(healthcare)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제시하고 있음. 스포츠와 관련된 세부내용으로는 '⑧국가를 발전·보호하고 공공의 여가 수요를 만족하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언론과 출판체계 구축' 측면에서 체육활동을 세부활동을 제시하고 있음.	

111) 문화체육관광부(2013). 우리 스포츠 성공사례 ODA 활용전략 연구.
112)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63
113) https://www.giz.de/en/worldwide/12778.html
114) 문화체육관광부(2013). 우리 스포츠 성공사례 ODA 활용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3).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계획
115) 문화체육관광부(2013). 우리 스포츠 성공사례 ODA 활용전략 연구.
116)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117) 백소연, 박경철(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118) 한국스포츠개발원(2014).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발연구.
119) 한국스포츠개발원(2014).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발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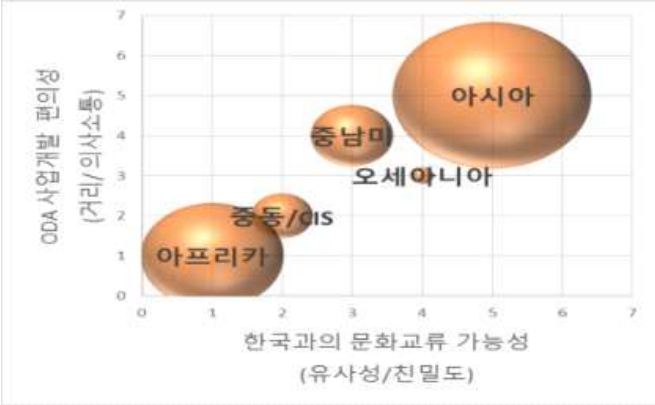
[부록 3] 중점협력국가 기초 수요조사

□ 대상국가 선정

○ 연구진과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1) 문화적 유사성과 친밀도 등을 기준으로 '한국과의 문화교류 가능성'과, 2) 지리적 거리 및 의사소통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ODA 사업개발 편의성'의 2가지 기준으로 각각 5점 척도의 상대점수를 배점으로 한 내부 인식 조사결과를 활용

- 2가지 기준은 문화ODA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개발되는 점과 본 과제의 수행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임을 감안하여 결정됨.
- 여기에 한국 ODA의 지원규모(2015년 기준)를 감안, 아시아를 첫 번째 대상지역으로 선정함. 이는 본 과제를 주어진 기간 내에 수행하기 위한 접근법으로서 향후 다른 지역의 사업개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

[그림 8-1]] 문화 ODA 중점협력국가 자문의견



※ 원의 크기는 한국으로부터의 ODA 지원규모 (2015년 기준)

○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의, 1) 한국으로부터의 ODA 지원규모와 2) OECD DAC 회원국으로부터의 ODA 지원규모를 두 축으로 다시 분류함.

- 호주는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원조의 지원 추세를 벗어나지 않는 대상국 선정을 위한 것임.

○ 더불어 각 국가의 GDP 규모를 반영함으로써 원조 제공에 따른 향후 경제, 문화 협력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총 5개국을 선정

○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용역의 기간, 사업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중점협력국 중 시범사업발굴을 위한 출장국으로 선정되어 세부내용이 제 3절에 작성되었으며, 본 절에서는 그 외 3개국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 및 한국의 비교우위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 검토내역만을 추가함.

1. 베트남

가. 베트남 현황분석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치(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경)		
수도 (주요도서)	하노이(수도: 680만 명), 호치민(710만 명), 하이퐁(183만 명), 다낭(85만 명)		
기후	연 평균기온 24.1℃ / 북부지역(아열대성), 남부지역(열대몬순)		
종족	베트남족 89%, 타이, 므엉, 크메르 등 53개 산악소수민족		
면적	33만 341㎢ (한반도의 1.5배)	GDP	약 2,052억 불 (2016)
인구	9,500만 명 (2016)	1인당 GDP	2,215 불 (2016)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동 Dong (VND)
종교	불교(12%), 카톨릭(7%)등	언어	베트남어 (공용어)

출처 : KOTRA (n.d.)

1) 베트남 수원 현황

□ 2011-2015년간 국제사회의 對베트남 해외원조액은 총 197억 1,505만 불로, 동 기간 중 동남아시아에서 해외원조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 42억 744만 불로 21.5%를, 유상원조가 154억 670만 불로 78.5%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편임

□ 국가별로는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이 주요 공여국인데, 일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2억 불을 지원하여, 베트남 수원액의 약 39%를 점유하고 있음.

- ○ 호주, 미국은 무상 중심의 원조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원조의 대부분이 무상 지원이나, 2015년 기준, 일본의 경우는 93.6%, 한국의 경우는 77.3%, 프랑스의 경우는 72.7% 유상지원을 함. 독일의 경우는 무상 중심의 원조에서 유상 원조를 확대하여 2015년에는 57.8% 유상지원을 함.
-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23.3%), IDA(23.3%), ADB(9.2%), 한국(5.1%), 프랑스(4.9%), 독일(3.3%), 호주(2.7%), 미국(2.6%) 순임.

[표 8-1]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베트남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단위 : 백만 불, 총지출 기준)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일 본	920.5	4	독 일	130.8
2	한 국	201.9	5	호 주	105.6
3	프 랑 스	194.7	6	미 국	103.9

출처 : OECD/DAC

□ 분야별 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다부문, 생산분야, 기타 순임.

- ○ 2011-2015년 기간 중 對베트남 ODA의 분야별 평균 지원현황은 경제인프라 분야 53%, 사회인프라 분야 24%, 다부문 14%, 생산분야 6%, 기타부문 (채무조치, 인도주의 원조) 4%임.

[표 8-2] 對베트남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 불)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사회인프라	교육	186.31	159.27	194.93	160.18	190.34	178.206
	식수공급.위생	165.76	409.85	369.58	94.79	303.45	268.686
	기타	407.45	284.87	242.02	207.94	462.21	320.898
	소계	**759.52**	**853.99**	**806.53**	**462.91**	**956**	**767.79**
경제인프라	에너지	910.5	5.23	375.3	340.44	642.06	454.706
	운송.통신	1389.24	1329.01	1588.42	1049.66	520.75	1175.416
	기타	98.97	33.49	33.2	30.26	28.95	44.974
	소계	**2398.71**	**1367.73**	**1996.92**	**1420.36**	**1191.76**	**1675.1**
생산분야	농림수산	111.82	203.47	234.42	78.33	44.42	134.492
	산업.광업,건설	21.33	14.62	65.29	18.84	44.23	32.862
	무역.관광	9.95	47.07	7.59	10.65	10.15	17.082
	소계	**143.09**	**265.16**	**307.3**	**107.82**	**98.81**	**184.436**
다부문		760.66	438.34	379.02	346.28	311.41	447.142
기타		64.77	83.47	215.9	171.74	31.53	113.482
합계		**4126.75**	**3008.69**	**3705.67**	**2509.11**	**2589.51**	**3187.95**

출처 : OECD/DAC

2) 베트남 수원 체계

□ 베트남은 ODA주무부처인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원조계획과 조정을 담당함. 그 외 창구 역할을 하는 외무성, 원조예산 배분 및 채무관리를 담당하는 재무부, 다자채무를 담당하는 베트남 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됨. 베트남은 일본, 한국 등 주요 공여국과 World Bank, ADB등 주요 다자금융기구가 참석하는 원조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 경제성과 및 목표를 검토하고 차년도 원조 규모를 양허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6)

3) 국가개발계획

□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불 달성과 현대화된 사업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한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SEDS)는 두 차례의 5개년 계획(SEDP)으로 추진함.

-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진입을 위해 1)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2)고급인력 육성 3)인프라 확충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선정함.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2020년까지 연평균 6.5~7%의 경제성장을 통해, GDP 3,200~3,500불 달성 추진

- 주요 목표는 1)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2)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3)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4)자연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5)국가안정 보장, 6)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7)국가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8)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임.

4) 한국의 對베트남 ODA 지원 현황

□ 2013-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추이는 아래와 같음.

○ 약 38개 부처 및 기관에서 10억 955만 불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

-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 2억 67만 불 지원
- 유상원조 사업으로 총 8억 888만 불 지원

□ 2011-2015년간 對베트남 지원은 운송 및 통신(43.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식수공급 및 위생, 교육, 농림수산, 산업·광업·건설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

[표 8-3] 한국의 對베트남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6)

(백만 불, 명목가격)

구분	교육	식수공급.위생	운송.통신	에너지	농림수산	산업.광업.건설	무역.관광	기타 다부문
금액	27.32	38.07	120.95	2.73	4.85	3.9	0.3	22.86
비율(%)	9.7	13.6	43.1	1.0	1.7	1.4	0.1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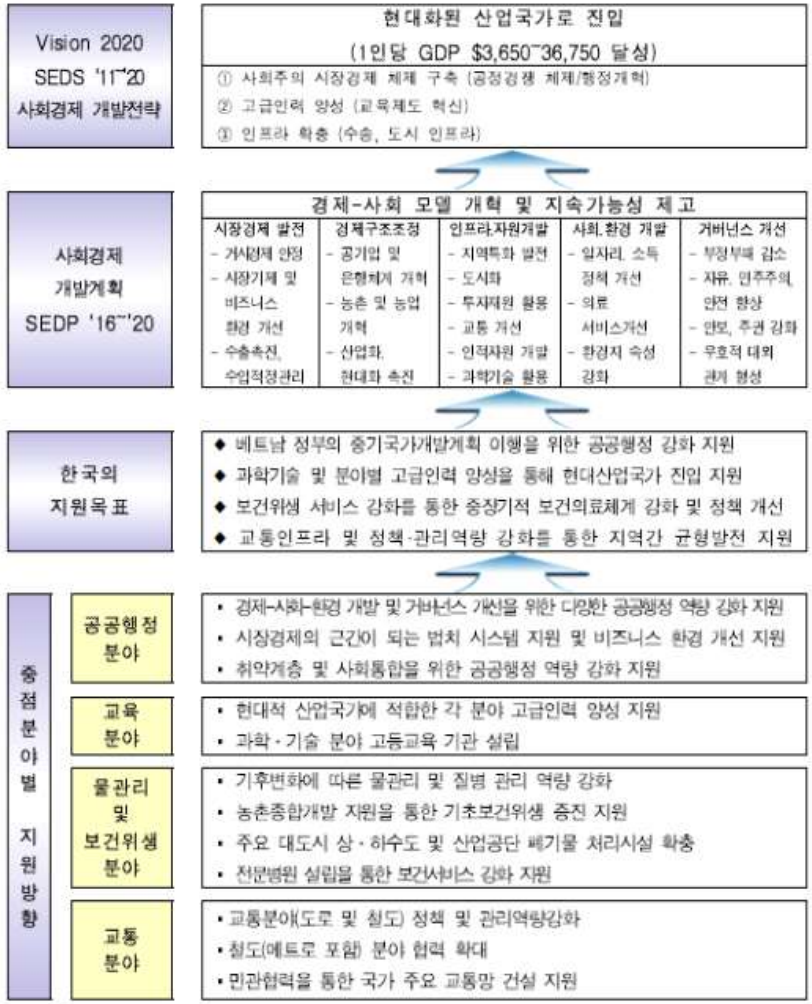
출처: OECD 통계

5) 한국 국별지원계획

□ 2016년에 수립된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서는 교통, 공공행정(거버넌스),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對베트남 개발협력 지원목표는 (1) 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2) 현대산업국가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 및 고급인력 양성, (3)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개선, (4)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및 정책·관리역량 강화임.

[그림 8-2] 한국 對베트남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a)

나. 베트남 문화분야 전략 및 문화 ODA 현황

1) 문화분야 전략

□ 지금까지 문화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었지만,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예술 연구소(VICAS)가 최초의 문화산업 발전전략인 '2020년까지의 베트남 문화산업 발전전략, 2030년 비전'을 발표함(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 문화전략은 다음의 법률에 기초함.

- 베트남 공산당 총회에서 발표한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SEDS)
- 베트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의 중앙 결의 법안 제5호 베트남 선진 문화의 구축과 발전 관련 결의안 23조, 582조
- 베트남 문화 유산법(2001년 공포, 2009년 개정 및 보완)
- 베트남 촬영법(2006년 공포, 2009년 개정 및 보완)
- 베트남 법안 공표(2004년 공포, 2008년 개정 및 보완)
- 베트남 언론법(1989년 공포, 1999년 개정 및 보완)
- 베트남 관광법(2005년 공포)
- 베트남 지적재산권법(2005년 공포)
- 베트남 광고법(2012년 공포)
- Decree No32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출 및 수입되는 문화 상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 (1)광고, (2)건축물, (3)수공예품, (4)디자인, (5)영화 및 비디오, (6)출판, (7)소프트웨어 및 엔터테인먼트 게임, (8)전자출판, (9)음악, (10)공연예술, (11)시각예술, (12)방송 및 라디오, (13)문화관광 총 13개의 문화중점분야를 선정함.

□ 베트남은 2020년까지 동남아시아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중심지로 도약,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창조경제의 중심국가로 인정받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목표를 가짐.

○ 창조적인 재능

- 문화산업이 일자리, 영감 및 자신감의 주요 원천 또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생산자 및 소비자들을 고취하기 위해 베트남의 가장 큰 자산인 젊고 다양하고 재능 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함.

○ 창조적인 우수성

-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청중 지향성, 현대사회와 관련된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조직과 비즈니스의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고자 함.

○ 창조적인 도시 및 지역

- 베트남 주요 도시 중심부에 문화와 창조를 중점으로 두어 아시아 창조경제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이 강력한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및 문화관광과 같은 문화 산업 활동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개발테마를 채택함.

(1)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 창의교육 및 기술을 통해 베트남 문화산업의 전문 인력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 및 경제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함.

[표 8-4] 베트남 창조적인 교육 및 기술 발전 전략

즉각적인 조치 (2014-2016)	단기 전략 (2017-2018)	중장기 전략 (2019이후)
1. 베트남 학교 내 창조교육 실태와 가능성파악 2. 예술관련 대학, 문화단체 및 문화산업 전문가와의 실무단체 구성 3. 영화위원회 모델 구축 및 기술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문체부)	1. 학교에 창조적 예술 교육 홍보 캠페인 및 시범프로그램 진행 2. 실무진과 함께 창조적 기업가 정신 시범프로그램 수립 3. 문화기관에 창조적인 교육활동 실시 4. 영화부문 기술지원 프로젝트 실시 5. 문화 분야 재능상 수여	1. 국가 창의적 교육 협의회 및 전략 수립 2. 대학교 내 창작 및 문화사업 창업 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3. 영화 및 디지털미디어 부문 기술기관/협의회 구성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2)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 기존의 문화조직의 관료주의, 빈약한 자금 조달 모델 및 경직성과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규제 및 투자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잠재력을 키우고자 함.

[표 8-5] 베트남 거버넌스 투자 및 규제 전략

즉각적인 조치 (2014-2016)	단기 전략 (2017-2018)	중장기 전략 (2019이후)
1. 기술지원: 문체부 고위공무원 대상의 문화산업규제의 국제 모범 사례에 관한 마스터 클래스 운영 2. 효과적인 권리 보호 및 수금에 관한 기술지원 워크숍 3. 문화산업의 자금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1. 비즈니스 모델, 투자, 검열, 과세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화규제 검토 2.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문화산업 조직 및 사업체를 위한 시범 전문 프로그램 개발 3. 베트남 영화위원회 설립 추진 4. 주요 문화단체의 발권 및 데이터수집 시스템을 개혁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기금 마련	1. 문화규제 검토의 권고에 입각하여 입법개혁 수행 2. 영화기금을 포함한 시범 문화 산업 투자 프로그램 소개 3.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체계수립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3)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 베트남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시장 구축과 잠재고객의 다양화에 초점을 두어 문화조직의 효과적인 성장을 기대

[표 8-6] 잠재고객 및 시장개발 전략

즉각적인 조치 (2014-2016)	단기 전략 (2017-2018)	중장기 전략 (2019이후)
1. 젊은 창조적 기업가 쇼케이스 2. 수공예부문 시범 교육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잠재적인 시장 니즈/추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이해 구축	1. 국가문화산업과 창조경제를 위해 새로운 국가브랜드 위임 2. 하노이 및 호치민 주요시장에 '저작권 인식 캠페인' 시범 실시 3. 디자인 및 창조적인 서비스 시범 프로젝트	1. 베트남 문화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국가적 캠페인 실시 2. 베트남에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무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을 수립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4)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 문화부문의 중심을 구축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 조직 및 사업체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함.

○ 중요한 도시에서의 문화산업 활동의 고밀도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임계질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즉,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강력한 사회적 및 전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영화, 공연 및 시각 예술과 같은 분야의 전용 인프라로 교육, 기술, 생산 및 상업 활동이 융합되도록 함.

[표 8-7] 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전략

즉각적인 조치 (2014-2016)	단기 전략 (2017-2018)	중장기 전략 (2019이후)
1. 국가 창조산업 대책 위원회 설립: 문화관련 조직의 비공식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2. 하노이, 다낭 및 HCMC의 문화 산업지도 작성 3. 하노이 및 HCMC의 창조적 기업가 네트워크를 위해 문화산업 네트워크 및 쇼케이스 행사 기획 4. 다낭의 창조적 클러스트 형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술지원 프로젝트	1. 공예품과 같은 부문의 프로파일과 성능을 높이기 위한 시장개발 및 네트워킹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을 타겟매핑, 데이터베이스 및 디렉토리 프로젝트 실시 2. 하노이 및 호치민시의 문화산업 클러스터 시범 프로젝트 3. 국가적 영화 촬영 단지의 타당성 및 조사계획 4. 시범 문화산업 데이터 수집 및 통계 프로젝트	1.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개혁하여 2020년까지 국가부문 매핑을 하도록 함. 2.디지털 및 콘텐츠 산업의 국가 창조 클러스터 전략 수립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5) 국제적 입지

○ 베트남을 국제시장에 문화산업국가로 포지셔닝

○ 현재 베트남은 현대 문화 산업 분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문화산업 국가들과의 강력한 국제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 및 지식 교환 기회를 모색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국제 개발 및 원조 기관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공동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강력한 국제적 차원을 갖는 것도 중요

[표 8-8] 국제적 입지 전략

즉각적인 조치 (2014-2016)	단기 전략 (2017-2018)	중장기 전략 (2019 이후)
1. 2014년 3대 주요 무역 박람회 및 페스티벌에 베트남의 문화산업 인재선발을 목표함. 2. 국제기구가 발전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십 회의를 통해 국제기관 및 수출기구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1.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는 주요 국제박람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디지털미디어 및 게임), 일본(디자인), 싱가포르(미디어), 패션 및 섬유업계 주요 행사에 중점 2. 국제문화산업 컨퍼런스 및 쇼케이스 개최- 베트남 주관, 동아시아국가와 파트너십 3. 문화산업 선도국과 양해각서 체결- Focus Year 프로그램 (2014 년 말)의 결과로 영국정부와 MoU 시작	1. 아시아 주요국과의 무역 파트너십 및 합작 투자 - 문화 산업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 설립 (예: 영화,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 무역 협정, 지식 공유 및 기관 파트너십).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VICAS (2016)

2) 문화협력 및 문화 ODA 현황

□ 베트남 문화 분야 주요 협력국가는 프랑스,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120] 등이며, 아래는 프랑스, ADB 그리고 UNESCO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사항임.

○ (프랑스) 베트남은 프랑스의 구식민지로 문화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프랑스와 가장 많은 문화예술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120) OECD-DAC Statistics, CRS - Culture and Recreation. 2013-2015 기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기술원조 성격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짐. 그러나 간행물 제작, 문화보급, 영화산업 시청각협력(Audio-visual) 및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한 프랑스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자국문화 홍보 또는 과거 식민지시대의 유대감 지속사업이 주가 되고 있음.

○ (ADB)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음 (베트남 문화 ODA 중 48% 차지). Thanh Hoa City 사회 경제 개발 프로젝트, Viet Tri, Hung Yen 및 Dong Dang에서의 종합 사회 경제적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문화 관광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수도 하노이를 보완하며 중소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끄는 통합 개발 계획을 추진함.

○ (UNESCO) 베트남 Quang Nam 및 Thua Thien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문화자원과 환경을 보존하여 지역 공동체의 생계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최근 베트남 내 세계문화유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함.

□ 베트남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15%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약 70%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ODA 중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베트남의 문화 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행정조직

1) 문화관련 정부부서

□ 베트남의 문화정책은 5개의 부처에서 관할함.

○ 문화 관련 업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담당함.

- 문화체육관광부: 전반적인 문화유산 보존 및 진행, 문화관련 정책수립

[표 8-9] 베트남 부처별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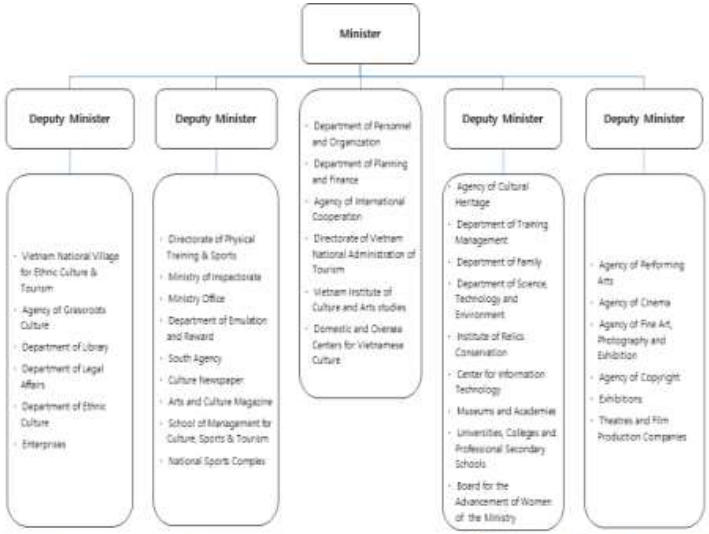
부처	장관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Nguyễn Ngọc Thiện	문화, 영화, 예술, 전통, 역사, 문화유산, 박물관 및 문화재 관할
정보통신부	Nguyễn Bắc Son	소프트웨어 및 엔터테인먼트 게임, 전자출판, 방송 및 라디오 관할
건설부	Trịnh Đình Dũng	문화·건축물 관할
교육훈련부	Phùng Xuân Nhạ	문화·예술적 재능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
산업통상부	Trần Tuấn Anh	문화산업 경제적 및 복지 발전으로 기여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2) 문화체육관광부

□ 베트남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응웬 응옥 티엔 장관 아래 각각 4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며, 각 차관이 담당하는 분야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차관 아래 1) 문화, 가족, 스포츠, 도서관 등 문화시설 2) 체육교육, 일반스포츠 및 관광 3) 문화유산, 교육, 과학, 기술, 환경, 역사 박물관 4)공연예술, 미술, 사진 전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함.

[그림 8-3] 베트남 문화부 조직도



출처: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라. 한국의 문화ODA의 비교우위 적용가능성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정책자문

□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중 문화 환경 구축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들의 공동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함.

□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자문 부문의 비교우위인 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체계마련에서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 한국의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와 같은 문화재보호제도 구축경험을 공유하여 베트남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보호 정책마련
- ○ 문화재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한국적 경험에 기초해 베트남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 관리의 기틀마련

- ○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베트남의 무형문화재 관리체계를 마련
-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법률 제정 기반을 공유해 베트남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법률 제정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부문의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봤을 때, 문화재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문화유산 관리시스템 구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공연 및 축제

□ (인프라 구축) 베트남은 주요 도시 중심부에는 문화 창조 중점지역을, 소규모 도시 및 농촌 지역은 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공예, 축제, 관광 등의 활동을 통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고자 함.

- ○ 한국은 공연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공연, 축제, 관광을 결합한 통합형 관광축제의 등장으로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추진중임
- ○ 이러한 한국적 경험을 공연 및 축제의 지식공유사업 진행을 통해 베트남의 공연 및 축제의 인프라구축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인적 역량)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젊고 재능 있는 인구를 최대한 활용 및 지원하여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함.

- ○ 또한, 베트남 중장기 전략에는 대학교 내 창작 및 문화산업 창업 교육센터 건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요도 존재
- ○ 한국의 비교우위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과 같은 대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산업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로 문화 및 경제 분야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임.

3) 시각예술 및 공예

□ 해당사항 없음

2. 캄보디아

가. 캄보디아 현황분석

국명	캄보디아 왕 (Kingdom of Cambodia)		
위치	인도차이나반도 동부에 위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접경)		
수도 (주요도서)	프놈펜(수도: 132만 명), 바탐방(20만 명), 시엠립(15만 명)		
기후	연 평균기온 27.7℃ / 열대몬순, 고온다습		
종족	크메르족 90%, 베트남인, 중국인, 참족, 고산족		
면적	18만 1,035㎢(남한의 약 1.8배)	GDP	약 195억 불(2016)
인구	1,595만 명(2016)	1인당 GDP	1,330 불(2016)
정치체제	입헌군주/의회 민주제	통화단위	리엘 Riel(KHR)
종교	불교(95%), 기타(5%)등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출처 : KOTRA (n.d.)

1) 캄보디아 수원 현황

□ 2011-2015년간 국제사회의 對캄보디아 해외원조액은 총 37억 4,839만 불로,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 27억 9,512만 불로 74.6%를, 유상원조가 9억 1,628만 불로 24.4%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무상원조의 비율이 높은 편임.

□ 국가별로는 중국[121], 일본, 미국, 한국, 호주 등이 주요 공여국인데, 중국은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3억 4,528 불을 지원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원조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 미국, 독일은 무상 중심의 원조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원조의 대부분이 무상 지원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무상 중심의 원조에서 2013년 기점으로 유상 원조를 확대하여 2015년에는 약 76% 유상원조를 지원함.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18.52%), 아시아개발은행(10.26%), 미국(10.12%), 호주(9.58%), 한국(7.23%) 순임.

○ 일본과 ADB는 각각의 국가협력전략에서 다음의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함.

- 일본 : 경제활동 기반 강화(경제인프라, 민간부문 강화, 농업 및 농촌개발), 사회개발 촉진(상하수도, 보건・의료, 교육, 지뢰제거), 거버넌스 강화 등
- ADB : 농촌-도시간 연결, 인간 및 사회개발을 전략적 핵심으로 두고 농업, 천연자원 및 농촌개발, 수도 및 기타 도시 인프라・서비스, 교통, 교육, 금융, 공공부문 관리에 초점을 둠.

[표 8-10]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캄보디아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단위 : 백만 불, 총지출 기준)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일 본	111.3	4	호 주	59.2
2	미 국	83.2	5	독 일	41.1
3	한 국	65.2	6	프 랑 스	39.2

출처 : OECD/DAC

□ 분야별 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분야, 다부문, 기타 순임.

○ 2011-2015년 기간 중 對베트남 ODA의 분야별 평균 지원현황은 사회인프라 분야 49%, 경제 인프라 분야 28%, 생산분야 11%, 다부문 10%, 기타부문 (채무조치, 인도주의 원조) 2%임.

121) 중국은 자료 도출이 용이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2016). 캄보디아 국별협력전략'을 참고하여 2010-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함.

[표 8-11] 對캄보디아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 불)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사회 인프라	교육	53.35	38.49	77.69	55.47	68.54	58.708
	식수공급.위생	42.65	97.85	127.15	21.41	40.56	65.924
	기타	240.18	210.97	226.89	219.5	176.72	214.852
	소계	336.18	347.31	431.73	296.38	285.82	339.484
경제 인프라	에너지	1.53	1.46	14.45	65.42	114.77	39.526
	운송.통신	79.23	68.36	130.97	199.99	191.53	134.016
	기타	10.08	6.07	28.8	48.93	12.8	21.336
	소계	90.84	75.89	174.22	314.34	319.1	194.878
생산 분야	농림수산	92.9	44.72	68.73	113.83	23.65	68.766
	산업.광업.건설	4.08	3.96	3.06	1.84	2.34	3.056
	무역.관광	2.89	3.52	1.64	5.23	1.33	2.922
	소계	99.87	52.19	73.43	120.9	27.32	74.742
다부문		94.96	61.5	38.04	82.04	72.75	69.858
기타		17.5	29.92	6.9	17.67	5.99	15.596
합계		639.35	566.81	724.32	831.33	710.98	694.558

출처 : OECD/DAC

2) 캄보디아 수원 체계

□ 캄보디아 정부는 2014-2018 개발협력 및 파트너십 전략(Development Cooperation and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수행하고자 함.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DC)*의 캄보디아 재건개발이사회(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DRB)는 공여국 및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 원조조화 및 분야별 의제에 대한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중임.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6)

○ CDC는 캄보디아 개발포럼(Cambodia Development Forum)을 개최하여, 정부부처와 개발협력파트너 간의 협의진행 및 정책검토와 각 분야별 Technical Working Group등을 통해 분야별 협력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함.

*CDC: 캄보디아재건개발이사회(CDRB)와 캄보디아투자이사회(Cambodia Investment Board; CIB)로 구성

3) 국가개발계획

□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 (NSDP)

○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까지 빈곤률 15% 감축 달성을 목표로, '사각전략Ⅲ(Rectangular Strategy Ⅲ)' 실행을 지원하는 5개년 전략목표인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사각전략Ⅲ: 농업부문 발전, 물적 인프라 재건 및 건설,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촉진,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함.

[표 8-12] 캄보디아 2014-2018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주요 목표 및 내용

목표	주요 내용
거버넌스	부정부패 척결, 입법 및 사법 개혁, 공공행정 개혁, 군대 개혁
농업	생산성, 다각화 및 상업화 개선,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축산 및 양식업 촉진,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영
인프라	운송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수자원 및 관개 시스템 관리, 전기생산 및 접근성 증진, 정보통신기술 개발
민간부문 발전 및 고용	민간부문 강화와 투자 및 비즈니스 촉진, 산업 및 중소기업 발전, 노동시장 강화, 금융 부문 증진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개발	교육, 과학기술, 기술교육 강화, 보건 및 영양 촉진, 사회적 보호발전, 인구정책 및 성평등 실행
사각전략Ⅲ을 위한 환경 구축	평화, 정치적 안전성, 사회질서 증진, 지역/세계로의 통합, 경제/재정 환경 마련,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 파트너십 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b)

□ 2015-2025 산업 개발 정책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 캄보디아의 산업부문의 성장을 위해, 2025년까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주요 목표는 2025년 GDP대비 산업부문의 비중* 30%, 제조업 부문의 비중 20%로 확대, 수출품목에서 비-면직물 부문 15%이상으로 확대, SME 기업의 관리 능력 등 증진임

*2013년 산업부문의 비중 24.1%, 제조업 부문의 비중 15.5%임.

[표 8-13] 캄보디아 2015-2025 산업개발정책(IDP) 주요 전략 및 내용

주요 전략	주요 내용
투자 촉진	- 투자 환경 개선 - Special Economic Zones(SEZ) 개발 및 산업 개발 구역 마련
SME 확대 및 현대화	-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등록률 증가 및 회계처리 방법 개선 - Agro-Industrial 개발 촉진(농수산업 부문의 산업화 등)
규제 환경 개선	- 무역 촉진 및 수출 진흥 - 산업부문 표준화 및 지적재산권 강화 - 조세 및 소비세 등 징수 강화 - 산업부문 노동시장 개발
정책간 조화	-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 - 과학, 기술 및 혁신 촉진 - 산업 인프라 구축 및 개발 - 재원조달 촉진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b)

4) 한국의 對캄보디아 ODA 지원 현황

□ 2013-2015 기간 동안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 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 분야 지원추이는 아래와 같음.

[표 8-14] 한국의 對캄보디아 지원 추이 2011~2015

(단위: 백만 불)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무상(집행)	23.73	36.61	32.47	34.19	37.47	164.48
유상(집행)	40.09	23.36	31.05	34.82	32.02	161.34
계(집행)	63.82	59.98	63.52	69.01	69.50	325.82

출처: OECD 통계

○ 지난 5년(2011-2015)간 3억 2,582만 불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 (집행액 기준)

- 동 기간 중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 1억 6,448만 불 지원
- 동 기간 중 유상원조 사업으로 총 1억 6,134만 불 지원

○ 2011-2015년간 對캄보디아 지원은 운송 및 통신(6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식수공급 및 위생, 교육, 농림수산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

[표 8-15] 한국의 對캄보디아 분야별 지원 규모(2011-2015)

(백만 불, 명목가격)

구분	교육	식수공급.위생	운송.통신	에너지	농림수산	산업.광업.건설	무역.관광	기타 다부문
금액	8.43	12.36	54.34	0.24	5.46	0.42	0.32	3.17
비율(%)	9.9	14.6	64.1	0.3	6.4	0.5	0.4	3.7

출처: OECD 통계

5) 한국의 국별지원계획

□ 2016년에 수립된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에서는 교통, 식수공급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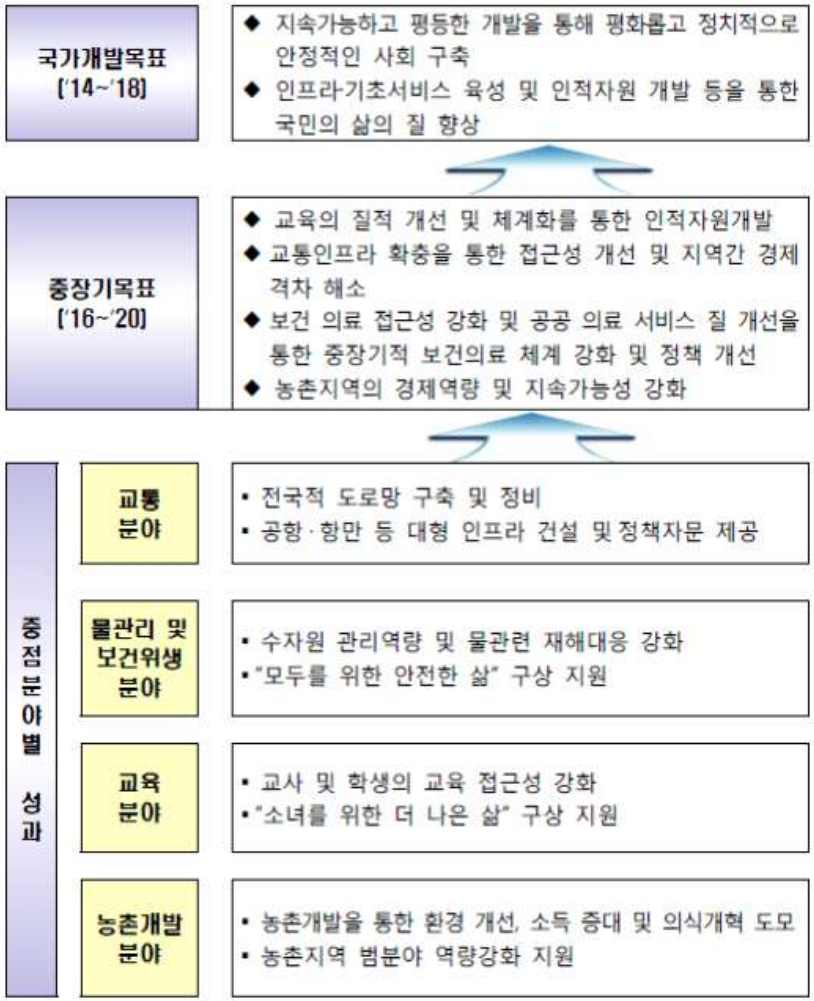
○ 중점협력분야는 캄보디아 국가전략개발계획,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기회·위협 요인, 재원규모,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분야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유·무상을 포함한 양자간 ODA의 70%이상을 중점협력분야에 지원

○ 對캄보디아 개발협력 지원목표는 중점분야별 지원성과를 통해 (1)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체계화를 통해 인적자원 양성, (2) 지역간 경제적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3)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개선, (4)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경제역량 강화를 이루고,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그림 8-4] 한국의 對캄보디아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b)

나. 캄보디아 문화분야

1) 문화분야 정책

□ 캄보디아의 문화정책은 2014년 7월 18일에 총회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캄보디아 문화의 보존 및 발전, 문화예술부(MOCFA,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s) 및 관련 문화기관 강화 및 기타 목적을 위해 계획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계획 2014'를 발표함.

□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경제발전을 위한 문화잠재력 활용, 문화산업 진흥, 문화파트너지원, 문화 분야 시장 창출, 교육 및 훈련, 기관 및 파트너와 협력 총 7가지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실행함.

[표 8-16]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정책

주요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기록 및 목록화
	문화센터 체계구축 및 활성화
	불교, 토착문화 보존 및 장려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기록 및 목록화
- 문화자원 매핑구축 및 목록화
- 멸종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연구진행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캄보디아 문화유산 목록화와 같은 국제협력 프로젝트 경험을 활용
- 연구, 보급, 및 교육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기록

○ 문화센터 체계구축 및 활성화
- 크메르족의 전통, 신념,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주/시립 문화센터 건립
- 박물관과 문화센터간의 역량개발 및 지식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구축

- 문화센터를 문화논의를 위한 집합소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 커뮤니티 활성화

○ 불교, 토착문화 보존 및 장려
- 토착문화 보존 및 장려
- 불교사원을 통해 문화 강화 및 확대
- 외부로 도난 및 불법 유출된 고대 크메르 예술품의 반환 요청
- 문화자원 연구와 보존을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제공

[표 8-17] 문화잠재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

주요 내용	
문화잠재력 활용을 통한 경제발전	관광지 개발
	고용기회 창출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관광지 개발
-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및 개발 확대
- 캄보디아를 공연예술, 문화상품 및 외국 영화제작의 중심지로 홍보

○ 고용기회 창출
- 빈곤감소의 목표로 문화 분야의 고용기회 창출

[표 8-18]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주요 내용	
문화산업 진흥 및 활성화	문화상품 창출 및 문화행사 조직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정부부처 및 기관 협력
	문화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촉진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문화상품 창출 및 문화행사 조직

- 음악, 시청각, 영화, 출판, 공연예술, 공예, 회화, 전통수공예, 디자인 및 건축 등 모든 분야의 새로운 창작물 지원 및 장려
- 문화 창조 산업의 새로운 창작활동 및 상품을 전시하기 위한 축제 구성
- 문화의 날(National Cultural Day), 연날리기 축제, 크메르음식 축제, 패션쇼, 노래경연대회와 같은 연례행사 기획

○ 전통지식 보존 및 전수

- 지역 및 지방 수준에서 전통, 지식 및 삶의 방식 파악 및 보존
- 기존의 지식, 기술 및 재능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 장려
- 전통생산기법에 통합시키기 위해 전통생산기법을 돕는 현대발전 혜택, 연구형태 및 기술 파악

○ 정부부처 및 기관 협력

- 문화에 대한 애정을 고양시키기 위해 사회적 도덕과 삶의 방식 강화
- 문화상품 및 관련 문제에 관한 대책조정을 위해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협력
- 부처 간 장관급 실무그룹 설립을 통해 문화 분야의 주요 문제 해결 및 공동 목표 정의
- 문화 분야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국제기관과의 교류증대

○ 문화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형성 및 참여 촉진

- 민족문화 보존 및 발전에 대한 사회의 참여 도모 및 촉진
- 국가문화정책에 준하여 활동하려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문화 파트너 및 시민사회를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기적인 토론과 문화정책 및 실행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예술 포럼 협조체계 수립
- 관련 문화이해관계자들과 정보 공유 및 접촉을 위한 절차 수립
- 문화 활동의 보급 및 참여 촉진
-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좋은 계획도 지원

[표 8-19] 문화파트너 지원 정책

주요 내용	
문화파트너 지원	조정체계수립
	지원제공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조정체계수립

-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을 유치 및 조정하기 위한 체계수립 및 지원 제공
- 사용가능한 자본을 찾는 문화적 기업가를 위한 조정 체계 수립

○ 지원제공

- 인센티브 제공 및 창조산업의 설립 지원

[표 8-20] 문화 분야 시장창출 정책

주요 내용	
문화 분야 시장창출	시장수요 파악
	유통 및 상품홍보 지원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법적수단 마련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시장수요 파악

- 문화 분야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 및 연구결과 보급
- 예술가 및 제작자가 시장을 찾기 쉽게 함
- 예술가 및 제작자가 시장 수요에 따라 문화상품을 제작 및 보완하도록 도움

○ 유통 및 상품 홍보 촉진

- 창의적이고 새로운, 전통적인 컨셉을 결합하여 문화상품 상표 제작
- 문화상품의 무역거래 및 유통경로 창출 지원

- 시립/지방 문화예술부는 예술가 및 제작자 지원에 주목하도록 장려
- 문화상품 홍보 및 국제교류 강화

○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법적수단 마련
- 지역네트워킹 참여 장려
- 저작권법의 엄격하고 지속가능한 이행으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증대
- 문화상품의 약탈 및 불법거래 예방조치를 정기적으로 실시
- 문화 분야의 새로운 기업가를 위해 합법적인 표준 기술 장비 수입을 용이 하게함

[표 8-21] 교육 및 훈련 정책

주요 내용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 및 전문프로그램 제공
	문화 분야 참여증진 및 개선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커리큘럼 및 전문프로그램 제공
- 젊은 세대들에게 예술 문화에 대한 지식 향상 및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깊이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훈련소의 커리큘럼에 예술과 문화를 통합
- 전문예술가를 위한 기교 개발 프로그램 창설 지원
-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교육 제공
- 주/시의 차원에서 문학 작품, 공예, 문화 및 예술 등 문화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 문화 분야 참여증진 및 개선
- 관리자부터 유능한 공공서비스 공급자까지 문화 직무의 태도 변화시킴
- 미술교사의 수를 늘리고 근로조건 개선

- 문화 분야에서 여성, 장애인 및 토착민의 참여 장려

[표 8-22] 기관 및 파트너와의 협력 정책

주요 내용	
기관 및 파트너와의 협력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증진
	인적교류 제고
	워크숍 개최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2014)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기관 및 파트너와의 협력
- 하위 국가,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발전을 위해 파트너와 관계증진 및 강화
- 평화, 조화 및 발전을 위해 인적교류 활동 증진
- 국내외 워크숍 개최

2) 캄보디아 문화협력 및 ODA 동향

□ 캄보디아 문화 분야 주요 협력국가는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이며, 아래는 프랑스, 한국, UNESCO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사항임.

○ (프랑스)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구식민지로 문화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프랑스와 활발한 문화예술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술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 다양한 성격의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인프라 및 사회 서비스 구축, SCAC*를 통한 에니메이션 네트워크 사업,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한 프랑스어 교육사업이 진행됨.
- SCAC: Service of Cooperation and Cultural Action

○ (한국) 한국은 2012년도부터 캄보디아 문화 분야 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문화 ODA 중 약 30%를 차지함. 한-캄 협력센터 봉사단 파견, 문화유산 역량 강화 프로그램, 무형문화 유산 목록화

시스템 구축 지원, 유네스코 Tuol Sleng 대학살 박물관 아카이브 보존 및 디지털화 등 캄보디아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 (UNESCO)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앙코르 유적의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국제조정위원회(ICC-Ankor)를 개최하여 앙코르 사원 및 바이욘에 대한 보존 및 보호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캄보디아 내 유형문화유산 복원을 위한 연구, 문서분석, 관련기준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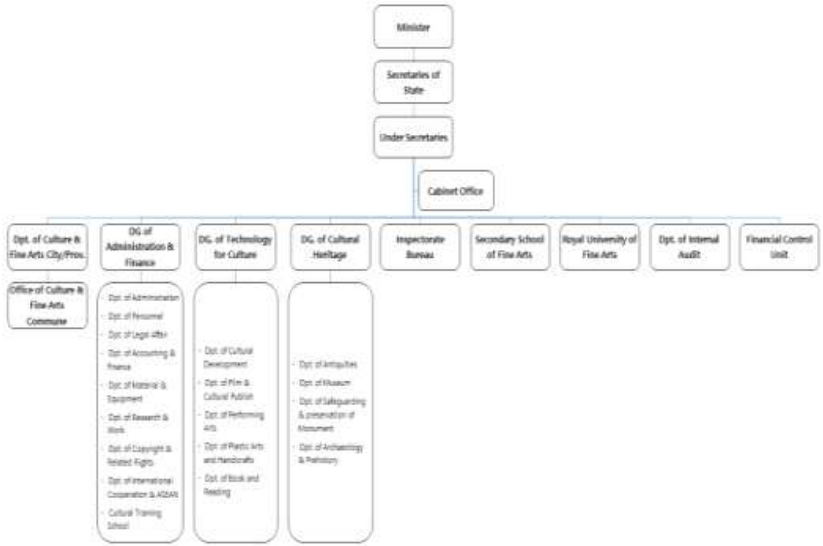
□ 캄보디아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 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국 약 0.25%로, 동남아시 평균의 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 ODA 중 10%를 차지해 캄보디아의 문화 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과 비슷한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행정조직

1) 문화예술부

□ 캄보디아의 문화예술부는 금융 및 관리・문화유산・문화기술 세 개의 총국을 비롯하여, 지방예술학과, 감찰국, 예술중고등학교, 왕립미술대학, 내부감사부서, 재무통제 기구를 두고 있음.

[그림 8-5]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조직도



출처: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홈페이지 참고 재구성

라. 한국의 문화ODA의 비교우위 적용가능성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정책 자문) 캄보디아는 불교사원 보전을 통한 불교문화 강화, 외부로 유출된 크메르 예술품 반환 요청 등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의 정책부문 사항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자문 부문의 비교우위인 문화재보호제도 구축에서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 한국의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와 같은 문화재보호제도 구축경험을 공유하여 캄보디아의 불교 및 토착문화 관련 보호 및 장려 정책마련
- ○ 특히, 문화재보호 민간협력 활동인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 의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재보호제도로의 발전경험을 공유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 수립 부문의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 봤을 때, 문화재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문화자원 연구 및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프라 구축) 캄보디아는 물리적 인프라 개발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향상과 더불어 문화유산 파악을 위한 기록 및 목록화, 문화센터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집중하여 문화 및 전통을 보존·진흥시키고자 함.

○ 한국은 국가문화유산 표준관리 시스템 구축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으로 국가문화유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있음.

- 박물관 소장품 통합 DB구축을 통해 국가문화유산을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
- 전수교육관 건립을 통해 보유자에게는 원형보존의 장으로, 전승자에게는 전승교육의 도장으로, 일반인에게는 사회교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실현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인프라 구축 부문의 한국적 경험을 공유해 캄보디아에 인프라 관련 문화유적 보존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인적 역량) 캄보디아 '문화와 예술에 대한 실천 계획 2014' 중 차세대 전통지식 전수 및 장려를 통해 전통문화산업을 진흥 및 활성화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함.

○ 한국은 매장문화재조사 교육과정 운영, 대학 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제도 신설 및 정규 학위과정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을 실시해 전통문화산업 보존 및 전수 경험이 존재함.

○ 이러한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하여 캄보디아에 학위과정,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형태로 문화재기술자를 위한 문화재보존보수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공연 및 축제 - 인프라 구축

□ 캄보디아 주요 정책우선순위에 공연예술의 진흥 및 확산을 제고하여 캄보디아를 문화 관광지로 위상을 높이고자함.

○ 더불어 문화산업의 새로운 창작활동 및 상품을 전시하기 위한 축제 및 연례행사를 기획에 대한 수요도 존재

○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의 공연 및 축제 인프라 구축 부문의 비교우위인 넌버벌 공연 '난타' 와 같은 고유의 퍼포먼스 공연, 공연관광축제 및 문화관광개최에서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공연 및 축제 인프라 구축 부문의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봤을 때, 지식공유사업 및 예술인재 양성 사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공연분야 활성화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시각예술 및 공예 - 인적 역량

□ 캄보디아는 젊은 세대들의 예술 문화에 대한 지식 향상 및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훈련소의 커리큘럼에 공예, 문화 및 예술 부문을 포함시키고자함.

○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의 시각예술 및 공예 인적역량 부문의 비교우위인 대학 정규학위과정을 통한 인적양성에서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3. 필리핀

가. 필리핀 현황분석

국명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치	필리핀 해와 남중국 해, 동베트남 사이에 있는 도서국		
수도 (주요도서)	마닐라(Manila, 인구 11.4백만명)		
기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연평균 27℃)		
종족	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면적	30만㎢(한반도 1.3배 약 7,107개 섬)	GDP	3,043억 불(2016)
인구	1억 98만명 (2015)	1인당 GDP	약 2,947 불(2016)
정치체제	대통령제, 6년 단임제	통화단위	페소 Peso(PHP)
종교	카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 (3%)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출처 : KOTRA (n.d.)

1) 필리핀 수원 현황

□ 2010-2014년간 국제사회의 對베트남 해외원조액은 총 60억 4,730만 불로, 전체원조 중 무상원조가 약 37억 7,393만 불로 62,4%를, 유상원조가 22억 7,337만 불로 37.6%를 차지함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6).

□ 동일 기간 주요 공여국은 국가별로는 일본(51.0%), 미국(25.9%), 호주(8.7%), 한국 (4.4%), 독일(3.6%), 캐나다(1.5%) 등이 있으며, 특히 일본은 최근 5년 간 연 평균 3억 5,000만 불을 지원하면서 최대 공여국으로 남아있음.

[표 8-23] 주요 공여국의 연도별 對 필리핀 지원규모 (2011-2015 연평균)

(단위 : 백만 불, 총지출 기준)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순위	원조공여국	지원규모
1	일 본	350.8	4	한 국	45.4
2	미 국	214.6	5	독 일	42.1
3	호 주	104.7	6	캐 나 다	28.8

출처: OECD/DAC

□ 분야별 원조 동향을 살펴보면, 2011-2015년 기간 중 對필리핀 ODA의 분야별 평균 지원현황은 경제인프라 분야 50%, 사회인프라 분야 21%, 기타부문(채무조치, 인도주의 원조, 프로그램 지원, 기타) 16%, 다부문 10%, 생산분야 7%임.

○ 세부적으로는 운송 및 저장(34%), 농림수산업(22%), 교육(12%), 보건(7%), 인도적 지원(7%)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표 8-24] 對필리핀 분야별 ODA 총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 불)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사회 인프라	교육	82.15	119.15	59.44	108.32	88.62	91.54
	식수 공급. 위생	8.91	3.8	108.71	19.1	9.53	30.01
	기타	338.43	169.88	150.62	185.45	142.95	197.47
	소계	**429.49**	**292.83**	**318.77**	**312.9**	**241.1**	**319.02**
경제 인프라	에너지	4.07	5.75	16.88	2.38	4.99	6.81
	운송. 통신	815.92	416.52	781.97	42.14	2542.73	919.86
	기타	18.01	18.2	30.81	20.48	21.38	21.78
	소계	**838**	**434.72**	**812.78**	**62.62**	**2564.11**	**942.45**
생산 분야	농림 수산	60.35	421.6	34.38	24.48	67.86	121.73
	산업. 광업. 건설	3.09	5.09	4.34	10.83	9.59	6.59
	무역. 관광	5.49	3.67	15.91	10.23	6.45	8.35
	소계	**68.93**	**430.36**	**54.63**	**45.55**	**83.91**	**136.68**
다부문		70.1	426.71	62.18	227.98	168.47	191.09
기타		49.1	191.42	434.29	729.69	60.04	292.91
합계		1455.61	1776.03	1682.64	1378.74	3117.64	1,882.13

출처 : OECD/DAC

2) 필리핀 수원 체계

□ 필리핀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재부무 (DOF, Department of Finance),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등의 세 기관이 ODA 조정과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ODA 계획 및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조정, 재부무는 차관 등 유상원조 협상 및 운영, 예산관리부는 차관인출과 차관 계약에 명시된 기타 경비 충당을 위한 예산 세출을 담당함.

□ (필리핀 협업 체계) 공여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필리핀 개발포럼 (Philippines Development Forum)을 통해 필리핀 개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함. 필리핀 개발포럼은 필리핀 정부와 World Bank이 의장을 맡고 공여국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회의로부터 진화한 형태로, 기존의 자문그룹을 비롯하여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협의체로 발전함. 필리핀 개발포럼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포럼 개최 시 분야별 이슈점검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6).

3) 필리핀 국가개발계획

□ 두테르테 행정부는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11개항의 사회경제 의제인 0-10개항의 사회경제 의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를 발표하며 향후 6년간의 경제개발 방향을 제시함. 장기개발계획인 '우리의 포부 2040(Ambisyon Natin 2040)' 및 '중기개발계획 2017-2020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0)'과도 연계되어 있음.

- ○ 단기 및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이 2017년 발간되었으며, 이를 각각 정리함.

[표 8-25] 필리핀 장기 국가개발전략

구분	개발전략	주요 내용
장기	우리의 포부 2040 (Ambisyon Natin 2040)	향후 25년간 2040년까지 빈곤퇴치 및 GDP 3배 증가
		2040년까지 중산층을 중심으로 빈곤을 퇴치한 필리핀 사회의 달성 및 현명하고 혁신적인 국민들의 건강한 일생과 고신뢰 사회 향유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c)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표 8-26] 필리핀 중기 국가개발전략

구분	개발전략	주요 내용	
중기	필리핀 개발계획 2017-2020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0)	사회복지향상	국민 중심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 행정 추구
			필리핀 문화와 가치 증진
		불평등 감소를 위한 변화	농업·임업·어업에서의 경제적 기회 확대
			일과 사업을 통한 산업과 서비스의 경제기회 확대
			인적 자본개발 가속화
			개인과 가족의 취약성 감소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성장 잠재력 제고	인구배당효과 도달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적극적 발전
		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건전한 거시 경제 정책 보장
			국가 경쟁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	정의롭고 지속적 평화 이룩
			보안, 공공 질서 및 안전 보장
			인프라 개발 가속화
			생태성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보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c)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표 8-27] 필리핀 단기 국가개발전략

구분	개발전략		주요 내용
단기 (향후 6년)	0-10개 항의 사회경제 의제 (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0	평화와 질서
		1	기존 거시 경제정책 기조 유지
		2	누진세를 강화한 조세개혁 및 효율적인 세수 징수체계 확립
		3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헌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기존40%)를 완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4	PPP(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인프라 지출을 GDP의 % 수준으로 확대
		5	농업 및 농촌기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관광 활성화
		6	토지권리의 안정성 담보를 통한 투자 유인 및 토지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병목현상 해결
		7	교육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시행
		8	과학기술 및 창조적 예술활동 장려로 자립경제 및 포용적 발전 (inclusive development) 추구
		9	조건부현금 지급 (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확충
		10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산아제한 정책 등 가족계획 시행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c)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4) 한국의 對필리핀 ODA 지원 현황

□ 한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약 33개 이상의 부처 및 기관에서 원조사업을 추진하였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상원조로 약 1억 4,050만 불을 지원하였고, 유상원조로는 7,174만 불이 지원되었음. 분야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운송 및 저장 분야(34.2%)분야를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농림수산업(21.5%), 교육(11.6%), 보건(7.2.%) 분야 순으로 지원 규모가 컸음(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6; ODA KOREA).

[표 8-28] 한국의 對필리핀 지원 추이(2010-2014)

(백만 불, 명목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집행	19.55	25.84	29.06	33.36	32.69	140.5
	약정	51.90	10.23	16.72	44.71	37.48	161.04
유상	집행	11.04	11.74	4.04	11.22	33.70	71.74
	약정	13.29	37.80	238.95	96.05	-	386.09
계 (집행)		30.59	37.58	33.10	44.58	66.39	212.24

출처: ODA KOREA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표 8-29] 한국의 對필리핀 분야별 지원 규모(2010-2014)

(백만 불, 명목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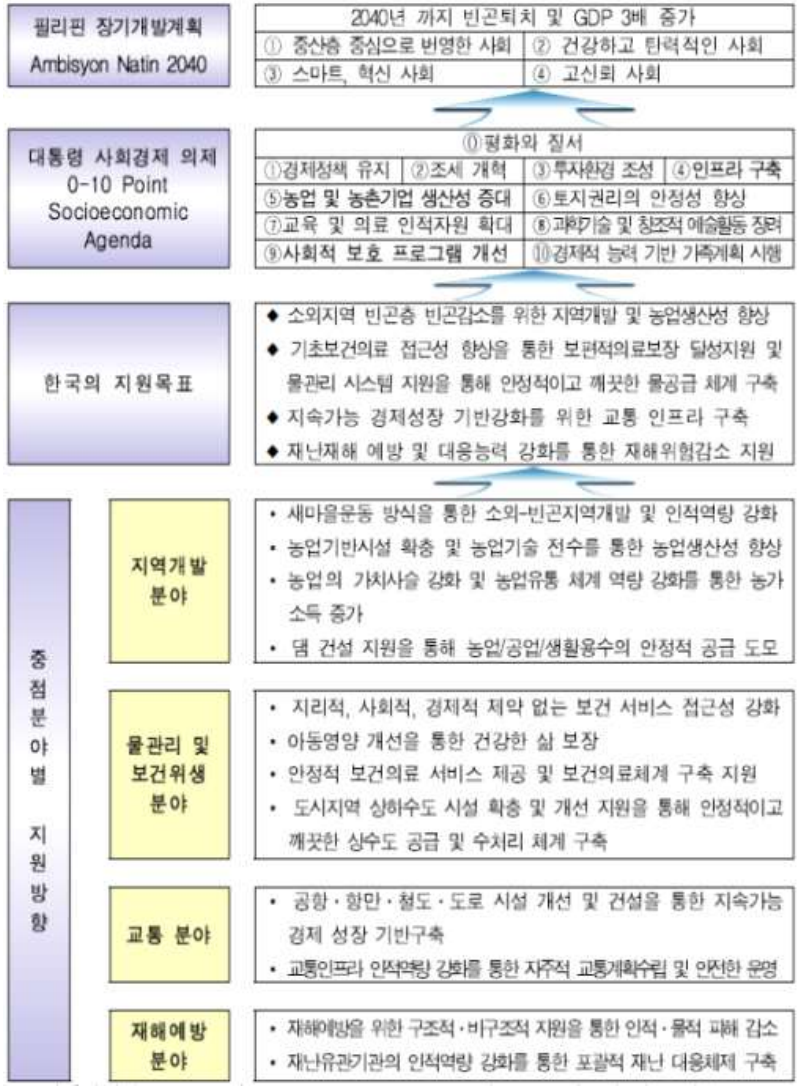
구분	운송/저장	농림 수산업	교육	보건	인도적 지원	공업 광산업 건설업	통신
금액	72.7	45.6	24.7	15.3	15.0	10.1	7.1
비율 (%)	34.2	21.5	11.6	7.2	7.1	4.8	3.3

출처: ODA KOREA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5) 한국의 국별지원계획

□ 2016년 수립된 필리핀 국가협력전략에서는 공공행정(거버넌스),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對미얀마 개발협력 지원에서는 (1) 소외지역 빈곤층 반곤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2)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지원 및 물관리 시스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 체계 구축, (3)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4)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감소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아래 그림은 분야별 지원방향과 종합적인 지원목표를 통한 필리핀 개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도식화한 도표임(필리핀 국가협력전략, 2016).

[그림 8-6] 한국의 對필리핀 국별지원계획 기본 방향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16c)

나. 필리핀 문화분야 현황

1) 문화분야 전략

□ 필리핀의 문화분야 정책은 2010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前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문화 유산 보호 및 보존, 문화예술위원회(NCCA,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및 관련 문화 기관 강화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제정된 필리핀 공공법 제10066호(또는 국가문화유산법)에 따라 시행됨.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분야의 전략적 목표 및 기관의 전략적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5가지의 프로그램을 수립함.

- 문화와 개발 프로그램: 굿 거버넌스를 향한 국가 계획,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상 문화와 개발의 주류화, 평화와 통일 이니셔티브에 따른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 창설 및 지원
- 문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커리큘럼 및 미디어에 문화 제도화
- 예술적 우수성 및 독창성 프로그램: 문화자유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필리핀 민족의 정체성, 역사, 비전 및 구축할 수 있는 예술성 개발
- 문화유산보존 프로그램: 역사성 보호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유산보존을 위한 유산 보존 접근법
- 문화외교 프로그램: 국제 이해, 관용 및 문화 다양성 강조를 위해 타국과의 문화 교류 및 협약 확대 및 강화

○ 기관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자료에 입각한 기초선 및 금년도 성과지표도 설정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

[표 8-30] 필리핀 관련 기관 성과지표 관리사항

기관목표 및 성과지표		기초선	2017년 타겟
1. 협조적 정부활동을 통해 강화된 예술 및 문화유산 관리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준수·제도화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	7	7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제도화 함
	문화 기관 및 기타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의 수	25	25건의 보조금 및 프로젝트 지원됨
2. 진보된 예술·문화적 표현의 창의력과 다양성			
	2017년 새로운 창작물 개수 증가와 문화예술 학술연구 및 교육과정의 증가	2,381	119 (5%)
	국내외 수상 및 인정을 얻은 문화예술기금 수령자 증가율	694	5% (34)
	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 행사, 활동에 대한 관객 수의 증가율	11,990,000	5% (599,500)

□ 두테르테 정부 이전까지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관자체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문화활동들이 진행되어왔으나, 현 정부에서 국가개발전략(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목표들 중 문화분야 전략이 포함되었으며 4가지 목표를 가짐.

[표 8-31] 필리핀 국가개발전략 내 문화분야 전략 내용

주요 내용	
사회복지향상	국민 중심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 행정 추구
	필리핀 문화와 가치 증진
	문화의 다양성 가치인정
	공익의 가치 고취
	창의적 우수성 선진화
	문화에 민감한 거버넌스 및 개발

출처: 필리핀 정부 (2017)

○ 문화의 다양성 가치인정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 자료 개발 (재외 국민 포함)
- 유형문화유산 보존
- 전통 문화를 위한 지식개발센터 및 학교 설립
- 문화 인프라 및 시설 설립 (예: 박물관, 문화 센터, 도서관, 갤러리 등)

○ 공익의 가치 고취
- Core value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단 활용
- 자료 제작
- 문화교육의 주류화를 위한 기초교육 제도 개혁

○ 창의적 우수성 선진화
- 문화기반산업과 창조적 경제 발전
- 창의적 작업 장려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역량개발에 투자

○ 문화에 민감한 거버넌스 및 개발
-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추구하며, 무형의 가치 인식
- 문화자산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 활성화

- 취약계층의 문화자원 접근권 확보를 통한 권리 보호

○ 상위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입법 안건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 필리핀 국립도서관 현대화 법
- 필리핀 국립박물관 법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비준
- 원주민 권리 보호법 시행 기념
- 국가 문화 유산 보전과 보호 강화
- 영화 산업 발전법
- 예술가 및 문화 노동자 복지 보호법
- 문화부 설립
- 번역국 (Bureau of Translation) 설립
- 일리간 시 (Illigan City) 문화 및 언어를 위한 문화 콤플렉스 구축
- 지역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젠더와 개발(GAD, Gender and Development) 기금 또는 특수교육 기금과 유사한 기금 할당
- 필리핀 문화유산보존 연구소 설립
- 공공예술과 기반시설

2) 문화협력 및 문화 ODA 현황

□ 필리핀 문화분야 주요 협력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한국, 일본[122] 등이며 아래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UNESCO와 협력하고 있는 주요 사항임.

○ (프랑스) 프랑스와 가장 많은 문화예술협력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필리핀 문화ODA 중 49% 차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기술원조 성격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짐. 그러나 프랑스 영화 진흥에 초점을 맞춘 시청각협력(Audio-visual) 및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한 프랑스어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자국문화 홍보가 주가 되고 있음.

122) OECD-DAC Statistics, CRS - Culture and Recreation. 2013-2015 기준

○ (스페인) 필리핀은 스페인의 구식민지로 문화적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자간 협력에 있어 문화적 교류와 홍보는 스페인의 지원에 있어 지속적으로 우선시되어 왔음. 서반테스 문화원을 통한 스페인 문화의 홍보 및 프로젝트형 지원으로 문화 전문가의 인적역량 개발과 필리핀 문화의 대중화를 주요 목적으로 함.

○ (UNESCO)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바나우에 계단식 벼 경작지(Banaue Rice Terrace)가 재해로 인해 훼손됨에 따라 재건을 위한 작업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필리핀 내 세계문화유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및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함.

□ 필리핀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ODA의 비중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0.07%로, 동남아시아 평균의 약 1/3수준을 상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ODA 중 7%만을 차지해 필리핀의 문화 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성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 행정조직

□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필리핀문화센터, 국립역사위원회,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관광부 등 각 정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이 1)예술 2)문화유산 3)문화보급 4)문화커뮤니티 및 전통예술 총 4가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라. 한국의 문화ODA의 비교우위 적용가능성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 (정책 자문) 필리핀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유형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며, 이와 관련한 다음의 안건을 제시한 상황임.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 비준
- 국가 문화 유산 보존과 보호 강화

- 문화부 설립
- 필리핀 문화유산보존 연구소 설립
- 필리핀 국립박물관 법

○ 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자문 부문의 비교우위인 문화재보호제도 구축에서 한국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음.

- 문화재관리국 발족과 같은 문화재보호제도 구축, 고도보존특별법 제정 경험을 공유하여 필리핀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보호 정책 마련

○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정책자문 부문의 한국의 비교우위를 적용해봤을 때, 문화재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문화부 체계 수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프라 구축) 필리핀은 문화의 다양성 가치인정이라는 목표 아래, 인식 제고를 위한 학습자료 개발, 전통문화 관련 지식개발센터 및 학교 설립, 문화 인프라 및 시설을 설립하고자 함.

○ 한국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라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인프라 구축 부문에 비교우위가 존재함.

○ 이러한 한국적 경험을 살려 문화인프라 시설 구축 및 전통문화 전수를 위한 기관 설립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2) 공연 및 축제

□ 해당사항 없음

3) 시각예술 및 공예

□ 해당사항 없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강응선. (2001). “문화경제학의 원류와 탄생”.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고삼석. (2013). 문화ODA의 글로벌 트렌드 및 한국형 문화ODA 사업 추진 방향.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편). 문화ODA 개념 및 한국형 문화ODA사업 활성화 방안 (p.82~158).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관계부처 합동. (2008).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6a).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6b).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6c).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6d). 미얀마 국가협력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6e).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2).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제1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13-1호), 2012.9.1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 2016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2013). 문화ODA 개념 및 한국형 문화ODA사업 활성화 방안

김규찬. (2013). 한국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내용과 성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주요국의 창조산업 해외진출전략과 시사점

문화체육관광부(2010). OECD 주요국가의 문화산업 및 정책현황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예문화 중장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a), 문화분야 ODA 확대방안 검토(안), 국제문화과 내부자료, 2013.01.

문화체육관광부. (2013b). 우리 스포츠 성공사례 ODA 활용전략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c).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d). 공예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체육관광부. (2014). 문화관광축제의 성과 및 선정,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5). 2015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 (2016a). 한국도서관연감.

문화체육관광부. (2016b).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7년 주요 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7). 인도네시아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6). 미술시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도네시아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

문화재청. (2011).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의 문화재보호제도: 문화재수리, 전수교육, 보호활동.

금기형. (2016). 우리나라 문화ODA 현황 및 추진방향 발표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박광무. (2013). 한국 문화정책론. 김영사.

박복영 외. (2014).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박열한, 김상현. (2015). 한국형 문화ODA 현안과 발전방향

박정수. (2008).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과 과제

백소연, 박경철. (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소병희. (2001). “예술에 대한 지원: 논리적 근거와 현황”,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소병희. (2013). 문화와 국가경쟁력.

수출입은행 양곤사무소. (2014). 미얀마 관광산업 현황 및 정부 육성 전략

신용석. (n.d.) 관광분야 ODA 확대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재홍, 김충식. (2016). 디지털유산, 문화유산의 3차원 기록과 활용.

영화진흥위원회. (2016).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동남아시아・중남미 공연예술 현황과 특징, 공연예술 전략포럼, p.13-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한눈에 보는 유네스코: 2014 문화와 발전, 한국의 문화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윤광석 외. (2013).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Ⅴ: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 한국행정연구원

이선영. (2013). 문화융성시대의 ODA 발전방향과 문화 ODA의 필요성. 문화 ODA 개념 및 한국의 문화 ODA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이장원, 임지원. (2009). 무대예술인 자격제도의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이태주. (2014) 문화와 개발협력: 한국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방향. 『2014 문화와 발전: 문화 개발협력의 사례와 시사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이혜은, 최희수. (2015). 관광분야 문화ODA 개발 방안.

인도네시아 정부. Coordination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aster Plan 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025(MP3EI)

인병택 외, (2014). 문화체육관광 ODA 성과평가 및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정기문. (2001). “예술가 시장의 경제학”.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정기문. (2001). “문화 유산의 경제학”. **문화경제학 만나기**. 김영사.

정보람 외. (2016).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진단 및 추진체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콘텐츠 경쟁력 평가방안 연구.

정우진. (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정정숙 외. (2010).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외. (2013).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영화산업정책.

한국교용정보원. (2014). 디자인 인력수요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공연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9). 문화예술교육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발연구.

한국정책홍보연구원. (2014). 문화체육관광 ODA 성과 평가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세계 창조산업 전략과 시사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양희승 역. (2007) 오래된 미래. 중앙북스.

E.F. 슈마허 저, 이상호 역. (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예출판사.

KOTRA. (2016). 미얀마 신정부 출범과 진출 유망 분야.

ODA Watch. 2012. [제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대한 ODA Watch 의견서

국외문헌

ADB. (2016).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Indonesia 2016-2019: Towards a Higher,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Path

ICHCAP. (2013). ICHCAP Field Survey Report on ICH Safeguard Efforts in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2009-2013]

OECD DAC. (2008). Is it ODA? Factsheet-November 2008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

UNESCO. (1998). Our Creative Diversity.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Retrieved from

UNESCO. (2012). Culture: A Driver and an Enabl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UNESCO. (2013). Hangzhou Declarati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World Bank. (2001).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웹페이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016). 시민사회의 SDGs 국문번역본. http://www.kofid.org/ko/bbs_view.php?no=60622&code=kofid

문화체육관광부, (n.d.). 한류마당, https://www.mcst.go.kr/usr/kwave/index.jsp

문화체육관광부, (n.d.). 스포츠비전 2018, http://www.mcst.go.kr/web/s_policy/sports/sportsVision01.jsp

서울국제도서전. http://2017.sibf.or.kr/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n.d.). 퓨 고대도시. 2017년 4월 21일 확인. http://heritage.unesco.or.kr/whs/%ED%93%A8-%EA%B3%A0%EB%8C%80%EB%8F%84%EC%8B%9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주미얀마연방공화국 한국대사관, (2008). 사회/문화. 2017년 4월 21일 확인. http://mmr.mofa.go.kr/korean/as/mmr/policy/overview/index.jsp

주미얀마연방공화국 한국대사관. http://mmr.mofa.go.kr

한국국제협력단. (2017). KOICA Newsletter 지구촌가족 (2017년 1월호), 2016 문화ODA 심포지엄. http://webzine.koica.go.kr/201701/main.php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2). 통신원리포트, 문화 지원 정책의 주요내용-2편, http://www.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761

e-나라지표. (n.d). http://www.index.go.kr/main.do?cate=6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https://www.kemdikbud.go.id/main/?lang=id

KOTRA. (n.d.).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베트남, 캄보디아, . 2017년 4월 21일 확인.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57

Ministry of Culture, Myanmar. (n.d.). About Us. 2017년 4월 10일 확인. http://www.culture.gov.mm/About_Culture/Organization/default.asp

Ministry of Culture, Myanmar. (n.d.). Archaeology, National Museum and Library. 2017년 4월 10일 확인. http://www.culture.gov.mm/DANML/Vision/default.asp

Ministry of Culture, Myanmar. (n.d.). Fine Arts. 2017년 4월 10일 확인. http://www.culture.gov.mm/DFA/Functions/default.asp

Ministry of Hotels & Tourism, Myanmar. (n.d.). Culture. 2017년 4월 25일 확인. http://www.myanmartourism.org/index.php/about-myanmar/geography#culture

Ministry of Hotels & Tourism, Myanmar. (n.d.). Festival Calendar in Myanmar. 2017년 4월 25일 확인. http://www.myanmartourism.org/index.php/destination/festivals

ODA KOREA. (n.d.) https://www.odakorea.go.kr

OECD DAC. (n.c.) Defini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7년 4월 14일 확인.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definitionandcoverage.htm

OECD, OECD.Stat, http://stats.oecd.org/index.aspx

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1993). Myanmar Hotel and Tourism Law. 2017년 4월 25일 확인. http://www.myanmartourism.org/index.php/aboutus/myanmar-hotel-and-tourism-law

Throsby, D. (2000).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trieved from http://www.ebrary.com

UNESCO. (n.d;) Cultural Diversity.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international-migration/glossary/cultural-diversity/

UNESCO. Hangzhou Congress. http://www.unesco.org/new/en/culture/themes/culture-and-development/hangzhou-congress/

United Nations.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enu=1300